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김 민 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김 민 수

김민수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김 종 욱 (인)

부위원장 송 유 경 (인)

위 원 방 민 호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손창섭의 소설에서 항구적인 주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구속 원리에 대한 비판의식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손창섭의 소설이 시기와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문제의식 아래 작성된 것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의 문학성을 '전후'라는 키워드 속에서 설명하려 한 경향을 탈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의 작품과 전후문학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낙서족』, 「신의 희작」과 같은 자전적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작법상의 전략을 놓치게 만들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 창작된 신문연재소설로 이어지는 방향전환의 국면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장에서는 손창섭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실체적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유학시절과 독서체험 정황을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소설 창작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손창섭의 유일한 번역소설 『평요전』의 저본을 실증적으로 밝혀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1920년대 일본에서 신조사와 개조사의 주도 아래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세계문학전집류의 영향 속에 그를 위치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손창섭이 수용한 루소의 『참회록』,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등과 같은 저작들은 그의 초기 소설 속에 주요한 테마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사회적 구속 원리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니체의 저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경도는 손창섭이 소설을 통해 사회적 원리들에 대항할 때 저항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낙서족』 속에서 개인을 압도하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관념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코자 하였다.

3장에서는 손창섭이 1960년대에 초기 작품 활동의 문제의식을 이어나가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차별화하였는지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1950년대에 창작된 단편소설을 일컬어 '순문학'으로, 1960년대 이후에 창작된 신문연재소설을 '통속소설'로 구분하는 틀을 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작가가 직접 참여한 『손창섭 대표작전집』의 편집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1961년에 발표된 「신의 희작」이 초기 소설의 문제의식을 한층 끌어올린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에서 『낙서족』과의 관련성 아래 논의할 수 있는 작품 「신의 희작」은 루소가 『참회록』에서 보여주었던 '고백'의 원리를 차용해 '난센스'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전도의 가능성

을 구축한다. 이때 두 작품 사이의 연속성과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 확인된 인터뷰 자료와 산문「반역 문학인의 허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난센스'라는 개념은 모리스 블랑쇼의 '결핍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손창섭은 '이성'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모색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손창섭이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치정문제를 치열하게 서사로 끌어들이면서 이성을 통해 어떻게 타자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197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한 뒤에 신문을 통해 연재한 두 편의 장편소설『유맹』과『봉술랑』을 '역사'와 '공동체'라는 키워드 아래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확인된 산문「사학가의 책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손창섭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지리와 역사과 교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새로 발견된 전기적 사실과 더불어 손창섭이 1960년대에 간헐적으로 발표했던 역사단편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1970년대에 발표한 두 장편소설의 테마가 돌발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님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손창섭에게 소설 자체가 역사를 구성하는 글쓰기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착안해『유맹』과『봉술랑』속에서 사회적 구속원리에 대한 비판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손창섭 소설에서 공동체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이 고유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년 시절부터 '재류외인'의 삶을 체득한 손창섭은 필요는 접근의 동인이 아니라는 루소의 논제를 받아들이면서 소설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에 항거해 나간 한편, 구속의 원리 바깥에서 가능할 새로운 공동체를 벼리고 있다. 인습적인 도덕률을 허무는 시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타자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힘을 쏟았던 손창섭의 소설은 그 자체로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손창섭, 공동체, 루소, 참회록, 자연, 니체, 민족, 국가, 난센스, 자전적 소설, 배설문학, 이성(異姓), 타자, 재일조선인, 역사
학 번 : 2015-20034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1
1.2. 연구의 시각 ····· 11

2. 루소 사상의 수용과 사회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

2.1. 유학시절의 독서체험과 루소 사상의 수용 ····· 20
2.2.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과 소설의 장편화 ····· 43

3. 대중성의 이면과 공동체 재구성이라는 실험 ····· 57

3.1. 1960년대 소설의 연속성과 난센스의 차별화 ····· 57
3.2. 이성이라는 타자로의 투신과 공동체의 실험 ····· 75

4. 역사소설과 공동체의 시공간적 경계 넘어서기 ····· 105

4.1. 역사를 통해 환기하는 사회비판의식과 민족의 재사유 ····· 105
4.2. 역사소설의 장편화와 공동체 이상의 실현 가능성 모색 ····· 124

5. 결론 ····· 136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abstract>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손창섭(孫昌涉 1922~2010)[1]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상 '두 번 실종되었다'[2]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문학적 실천의 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0년대에 작품 활동을 활발히 개진하던 시기에조차 손창섭은 개인적 기질로 인해 외부로의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며, 1973년 일본으로 이주해버린 뒤의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작가론의 견지에서 봤을 때 그의 문학적 실천이 완전히 재구성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다만 그의 사거를 전후하여 전기가 재구되고 미발표 원고가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3] 이에 힘입어 본 논문은 그의 문학 세계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 평양에서 출생한 손창섭은 1973년 도일한 이후 아내 우에노 지즈코 여사를 따라 우에노 마사루(上野昌涉)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귀화 시기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도쿄에서 타계할 당시 일본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2) 정철훈,「두 번 실종된 손창섭」,『창작과 비평』114, 2009 여름.

3) 가령 정철훈 기자의 최근 저작『내가 만난 손창섭』은 손창섭의 전기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치중한 중요한 연구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홍주영은 그의 석사논문에서 단편소설 40편, 장편소설 13편, 소년소설 9편, 꽁트 8편과 동시, 잡문 21편의 목록을 만든 바 있다. 이러한 홍주영의 서지작업을 통해 이전까지 손창섭의 소설 중 가장 앞선 자리에 위치하던 작품으로 인식되던「얄구진 비」보다 먼저 발표된「싸움의 원인은 동태 대가리와 꼬리에 있다」와 같은 단편소설의 존재가 밝혀졌으며, 마찬가지로 단편소설인「모자도」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장편소설『세월이 가면』과『삼부녀』와 같은 작품이 손창섭 작품목록에 새롭게 오를 수 있었으며, 소년소설「앵도나무집」, 꽁트「인식부족」, 동시「봄」이 추가되었다. 홍주영의 작업 이후 최미진은 이전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라디오 단편소설을 발굴해냈으며, 공연예술자료연구사로 활동하는 김종욱은 단편소설「애정의 진리」를 발굴해 문예교양지『연인』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은경은 그의 논문「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에서 새로 발굴된 단편소설「애정의 진리」를 분석하는 한편,『소설계』1959년 6월호에 수록된「애정무효」의 존재를 새롭게 소개하고 있다. 최근의 발굴사례로는 방민호가 일본에서 손창섭의 유품들 중 노트에서 발견해 그 존재를 발표한 70편의 시조를 들 수 있다. 정철훈,『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 b, 2014; 홍주영,「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부성 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최미진,「손창섭의 라디오 단편소설「비둘기 한 쌍」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39, 2009; 김종욱,『연인』, 2013 가을호; 신은경,「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아리랑』에 실린「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14; 방민호,「그는 '마지막까지' 한국인이었다-손창섭의 시조를 소개하며」,『작가세계』27, 작가세계, 2015, 참조.

손창섭은 지금까지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혹은 '모멸의 인간상'[4]을 구현한 작가, '잉여인간'[5]의 작가 등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 손창섭을 장용하과 더불어 가장 '1950년대적인 작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경향은 한수영의 지적에 따르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전후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던 시기에 제출된 것들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재구할 여지가 산재해 있다. 오히려 '전후문학'이라는 통념적인 상이 손창섭의 문학을 다소 평면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끈 것은 아닌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6]

방민호는 전후문학 개념으로 손창섭의 소설에 접근할 경우 1950년대라는 시대와의 관련성이 부각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손창섭과 그의 문학 전반에 걸친 이해가 불명료해지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7] 게다가 손창섭은 전후 상황을 가장 활발하게 소설로 옮긴 것 같지만 그것은 배경 정도에 그칠 뿐, 기실 전중 · 전후의 폐허와 허무를 쓴 것 외에 언급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8] 이처럼 전후문학에 집중하는 연구방법은 손창섭의 문학 활동 전반에 걸쳐 창작기간과 분량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후의 장편소설들을 방기할 위험이 있다. 손창섭의 장편소설들은 대개 신문연재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들인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1950년대의 작품을 순문학으로 이해하면서 1960

---

4) 지금까지 손창섭이 소설 속에서 '병자' 혹은 '모멸'의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논의가 많이 있다. 이 논의에는 또한 그의 작품을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한 사례에서 많이 적용되어 나타난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 혹은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종호, 「모멸과 연민」, 『현대문학』 57-58호, 1959.9-10; 정찬범, 「자기 모멸의 신화」, 『문학춘추』, 1965.2; 조두영, 『목석의 울음-손창섭 문학의 정신분석』, 2004.

5) 손창섭을 일컬어 '잉여인간의 작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의 작품 「잉여인간」이 그의 대표작 정도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런 현상은 손창섭이 2010년 6월에 별세한 소식을 전한 언론의 기사제목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그에 대한 예로 2010년 8월 25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혹은 2010년 8월 26일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6) 1990년대 전반기에는 특히, 전후문학을 전반적으로 다룬 공동 연구나 기획서들이 상당수 등장했다. 그 성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현대문학연구회 편, 『한국 전후문학 연구』, 태학사, 1991;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한국 전후문학의 형성과 전개』, 『문학과 논리』 3, 태학사, 1993;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조건상 편, 『한국의 전후문학』, 성균관대 출판부, 1994; 구인환 외, 『한국 전후문학 연구』, 삼지원, 1994. 한편 1990년대 이후 전후문학 연구의 흐름과 그 공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33~42면 참조.

7)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관한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3』, 2005, 300~301면 참조.

8) 방민호, 「6.25와 한국문학」, 『서정시학』, 2013.5, 175면.

년대 이후의 작품들을 통속문학으로 치부한 경향이 있다.

손창섭의 문학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단절, 혹은 순문학과 통속문학의 단절 등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그의 문학 세계의 연속성 속에 벌어지고 있는 변모와 그에 대한 맥락을 규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때로는 '전회'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창작방법의 전환에 대해 보다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시대와 분량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손창섭이 지속적으로 고민하려 했던 일관되면서도 연속적인 문제의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 아래 손창섭 소설의 시기 구분 문제와 전후문학과의 관련성, 그리고 작가의 아이덴티티 확정 문제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제출된 연구들 중 임경순과 조남편의 연구를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임경순은 손창섭의 소설을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면서 그를 구분짓는 경계로 1956년에 발표된 소설 「유실몽」(『사상계』, 1956.3)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유실몽」 이전의 단편들은 마치 '내용 없는 혈서'의 세계와도 같이 무의미함 그 자체를 소설에서 의미화하고 있으며,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암담한 이미지는 그러한 무의미가 발현된 양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유실몽」에 이르게 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욕망'의 구현이라는 문제가 손창섭 소설에서 최초로 발견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한편 임경순은 손창섭의 이러한 변모를 전쟁으로 찢긴 세계에 대한 극복의 의지로 이해하면서도 「유실몽」 이후의 소설에 대해서만큼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임경순은 1961년에 발표된 「신의 희작」을 손창섭의 마지막 작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에 창작된 소설을 연구에서 배제하고 있다. 손창섭의 "체험에 고착된 정신의 본 풍경이 「유실몽」으로 종합되어 고갈되는 순간, 그의 창작 활동의 의미도 사실상 막을 내린다"[9]는 결론은 이러한 입장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조남현은 임경순의 경우와는 달리 「잉여인간」(『사상계』, 1958.9)에 이르기까지, 혹은 1959년 11월에 「포말의 의지」(『현대문학』, 1959.11)까지를 손창섭 문학 초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10진법의 연대성 따위를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고집하는 태도는 문제"[10]가 아닐 수 없다는 그의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라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손창섭의 작품 세계를 조명할 경우 그의 문학세계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작품 분

9) 임경순, 「혈서의 세계와 욕망의 좌절」, 『1950년대 문학의 이해』, 1996.12, 86면.
10) 조남현, 「손창섭 소설의 의미 매김」 『문학정신』, 1989, 6-7면 참조.

석에 있어서 조남현이 단편소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잉여인간」을 손창섭의 소설의 정점으로 이해하는 대신, 『낙서족』과 「신의 희작」에 대해서는 "손창섭이 어른이 되어서도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 수준의 파악에도 닿지 못하였음을 털어놓"[11]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조남현과 임경순의 논의는 공히 손창섭의 소설만을 대상으로 할 뿐, 그의 산문을 연구의 대상에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손창섭은 「아마추어 작가의 변」에서 그의 작품 전체에 취급되어 온 본질적인 경향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다. '나의 자전적 소설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글은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달린 소설 「신의 희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결국 1952년으로부터 「신의 희작」이 발표된 1962년, 그리고 「아마추어 작가의 변」이 발표된 1965년까지를 통일된 하나의 큰 연결선 안에서 해명해내야 함을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당대의 평가가 서만기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다룬 「잉여인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한편, 독립투사의 아들을 희극적으로 다룬 『낙서족』에 관해서 만큼은 유독 혹평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낙서족』에 행해진 당대의 감정적 평가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논의들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손창섭의 작품세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손창섭의 소설이 전후문학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조명을 받아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손창섭이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소설에서 전후의 사회적 참상을 날카롭게 그려낸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물론 1922년에 태어난 작가가 유년 시절 만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일제시기를 고학생으로 전전했고, 해방을 맞아 귀국한 뒤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세대론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손창섭이 전후문학이라는 자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956년에 주최된 「신세대를 말하는 신진작가 좌담회」에 한명의 작가로서 떳떳하게 참여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적인 지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게 된다.[12] 1920년대에 태어난 생애사와 더불어 문단에 뛰어든 시기적 상황, 여기에 더해 실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장용학이나 김성한, 곽학송 등과 같은 작가들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

11) 조남현, 위의 글, 참조.
12) 손창섭 외, 「신세대를 말하는 신진작가 좌담회」, 『현대문학』, 1956.7, 참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창섭을 신세대라 통칭할 수 있는 당대 작가들과 온전히 '전후'라는 문제로 묶을 수만을 없을 것 같다. 고은의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후문단과 손창섭의 문학이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는지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 모든 것은 역사 탓이다, 모든 것은 전쟁 탓이다라고 절규한 50년대의 문학은 그들의 문학 속에서 이제까지의 향토문학, 토속문학을 거부할 때 야기되는 자기 정체를 감수해야 했고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려는 의지가 의타현상을 일으켜서 아주 못생긴 서구주의 문학이 된 것이다. …… 그것은 쉽사리 감상주의에 도달했다. ……(중략).
>
> 가장 작가가 되기 어렵거나 가장 작가가 되기 쉬웠던 그 때의 혼란에서 발자끄와 도스토엡스끼의 요소로 이루어진 합성화의 손창섭에 의해서 50년대의 인간상은 희화화되거나 인간성의 하위현상을 표출하는데 일관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50년대의 불안정한 문학이 손창섭만큼 집요하게 추구된 의지를 발견하기 어려운 나머지 50년대의 많은 작가들이 하나의 손창섭에게 도태되고 만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50년대의 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현실임을 알게 된다.[13]

여기서 고은이 지적하고 있는 '못생긴 서구주의 문학'이란 서구에서 유입된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일련의 문학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고은은 1950년대의 문학에 대해 기성 윤리의 허망을 일종의 다다이즘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요약하는 한편, 다분히 감정에 뿌리를 박은 당시의 문학과는 달리 손창섭의 문학이 창조한 인간형은 천편일률적인 모형에 찍혀진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노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비창조적이고 습득한 형태의 인간상에 1950년대의 모든 얼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14]

고은의 관점에서 보자면 손창섭이 당시 문단의 작가들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특징은 바로 현실을 절하시키며 현실의 밑바닥에서 주워낸 형태의 인간상 혹은 소재들이 오히려 강렬했던 1950년대를 잘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전후문단의 다른 작가들이 관념성의 지향으로 인해 형상화된 이미지를 내세워 전후의 문제와 인간상을 다루려 했던 것과는 달리, 손창섭은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단지 있는 그대로 습득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비창조로서의 창조로 말미암아 전후라는 문제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

13) 고은, 「실내작가론(9)-손창섭」, 『월간문학』, 1969.12, 190면.
14) 고은, 위의 글. 191면.

> 저는 다른 길을 버리고 걸어온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하여서 제 가슴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구멍이 뻥하니 뚫렸어요. 이 상처가 소설을 읽는 데서, 나와 같은 경우 또는 나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공감하여 어떻게 메꾸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인간이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15]

손창섭은 「신세대를 말하는 신진작가 좌담회」에 참석해 전후문단을 대표하는 작과들과의 대화하며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에서부터 문학의 독서, 혹은 집필이 이루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학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그의 다른 산문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 나는 도스또예프스키, 필립, 체홉의 작품을 통해서 나보다 더 괴롭고 불행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자신이 가장 괴롭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당시의 나에게 그것은 적지 아니한 경이였다. 나는 좀 더 여러 작가의 작품을 읽는 동시에 차츰 냉정한 눈으로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나와 같이 혹은 나 이상으로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꽉 차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 ……(중략).
>
> 나는 현실에서 또는 작품 속에서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애썼고 한편 그들과 친하기를 원했다.[16]

위와 같은 산문을 참고했을 때 손창섭은 실존주의나 다다이즘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생활에서 발견한 어두운 분위기 그 자체에 경도되어 소설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문들은 대체로 현실적 조건들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행동적이다. 뒤에 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러한 근본적 경향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가 일본에서 유학한 시절의 다양한 독서체험이 바탕에 깔려있다.

반면 장용학을 위시한 다른 전후작가들은 앞 세대와의 단절을 통해 자신들의 문학이 새롭다는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른바 전후 '신세대'라고 불린 이들이 부정하고자했던 전 단계 문학으로서의 구세대란, 운명과 서정성 속에서 문학

---

15) 손창섭 외, 「신세대를 말하는 신진작가 좌담회」, 『현대문학』, 1956.7, 참조.
16) 손창섭,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1955.9, 138면 참조.

의 의미를 추구하고 형상화한 문협정통파를 지칭한다.[17] 전후 신세대는 전후라는 문제와 그 현실의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새로운 문학적 양식을 모색하기에 이르고, 자연주의로 대별되는 구세대의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소설에서 관념적 지향을 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념지향성이 가지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그들이 항의하고 초월하고자 했던 현실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들은 한편으로는 전후라는 현실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문학적 표출방식에 있어서도 구세대와 대별되는 부정의 형식을 만들어갔다.

가령 장용학의 「요한시집」을 살펴볼 경우, 누혜에게 자살이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으로 인한 결과임과 동시에 박탈당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자하는 마지막 선택이 된다. 죽음을 통해 현신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로의 통합을 꿈꾸는 태도는 전후의 관념적 지향상을 잘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장용학은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그에 영향을 받아 「요한시집」을 썼음을 「나의 작가수업」(『현대문학』, 1956.1)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실존주의는 전후문단의 다른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18] 즉 실존주의와 통하는 관념 지향적 성격은 그들의 문학적 성격으로 통하는 스펙트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손창섭과 대별되는 1950년대 전후문단의 성격은 이렇듯 관념성이란 이름 아래 그와의 경계를 구획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설을 쓰는 스타일상의 차이로도 확인이 된다. 전후문학기에 발표된 장용학과 김성한, 유주현 등의 알레고리 소설들은 대체로 우화로 다루어지거나 의식소설적 관점에서 위치 지어졌다.[19] 장용학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모자이크 혹은 몽타주기법이나, 장용학과 김성한 두 사람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우화적 성격의 기법이 보여주는 것 혹은 현상에 대한 에세이적 서술의 방식과 언어의 시적인 사용이 바로 이 관념적 형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20]

실존주의의 수용은 하나의 새로운 세대적 흐름을 문단에 형성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렇게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했던 문단의 상

---

17) 유철상, 『한국전후소설연구』, 월인, 2002.9, 181~182면.

18) 김종욱, 『한국 현대문학과 경계의 상상력』, 역락, 2012, 313-337면 참조,

19) 알레고리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비유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이다. 알레고리는 매개를 먼저 드러내고 그것의 해석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알레고리에서 작품 자체는 해석되어야 할 어떤 것에 불과하다. 방민호, 「전후 알레고리 소설에 관한 연구」, 『외국문학』, 열음사, 1994, 161면.

20) 이때 장용학의 에세이즘적 서술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유철상과 방민호 두 사람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전후소설의 양식적 특징이다.

황 속에서도 손창섭은 다른 작가들과 구분되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손창섭의 소설에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초월적인 경향을 감지하기보다는 현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암울한 분위기의 반영에 더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창섭은 「신세대를 말하는 신진작가 좌담회」에서 문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떼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어쩌다 보니 문학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라 고백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 좌담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첫 발언을 한 이후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창섭의 개인적 성격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작가들과 뒤로도 큰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 그의 문학적 성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21] 그리고 그가 스스로 남긴 소설 혹은 많은 산문들을 통해 문단의 인사들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손창섭의 태도를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손창섭의 소설은 1950년대와 전후문학이라는 카테고리만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연구사례들을 토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손창섭에게 문학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그의 작품세계를 재단하려 한 시도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도들은 좁게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휘되고 있는 그의 문학적 세계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손창섭 문학의 전반을 이해하는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들이다. 더불어 그에 대한 문학적 정체성을 부여하려한 시도들이 주로 1950년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작가에게 일정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분석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선명한 구도를 마련해준다는 장점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적절치 못한 방향의 설정이나 지나친 아이덴티티 부여는 오히려 손창섭의 작품세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협소한 시선만을 흩뿌릴 수 있게 만든다. 본고에서는 손창섭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려 한 연구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한수영은 손창섭을 위시한 전후문학가들을 비평함에 있어 한국전쟁을 매개로

---

21) 곽학송은 손창섭의 평소 생활태도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그는 좀체로 웃지도 않고 말을 극도로 아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손창섭이 문학적으로 개별적으로 교류를 가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외출을 하는 그가 의례 한 번씩 찾아온다는 점, 그렇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곽학송의 말을 반응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는 것이 글의 주요한 내용이다. 곽학송, 「벙어리처럼 말 없는 손창섭」, 『현대문학』, 1958.5, 58면.

한 맥락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하며, 식민지주체로서의 전후세대의 문제를 '언어적 타자'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해내고 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 손창섭의 텍스트를 이중언어적 주체의 혼란,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혼종'에 대한 진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2] 즉, '혼종'이라는 호미 바바의 이론을 조심스럽게 끌어오면서 언어적 타자로서의 위치를 통해 손창섭을 분석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가 푸코의 이론을 끌어오면서 라캉의 담론을 함께 적용했듯, 한수영 또한 손창섭을 분석하기 위해 바바의 이론을 끌어오면서 프로이트식 정신분석학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바바의 식민담론이 정치적 개입을 촉발하지 못하고 저항의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성과 역사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계보학적 태도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 푸코와 달리 바바는 초월적인 범주인 정신분석학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23] 한수영의 논의가 한국문학사의 언어적 타자인 전후세대와 손창섭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바바의 '혼종' 개념과 프로이트식 '타자성'에 관한 논의가 적합한 것이었는지 그 자체로 고민해보아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중언어 문제를 경유한 전후세대'라는 틀로 손창섭을 묶어낼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작품세계를 국한시켜 논의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유종호가 정철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던 바와 같이 손창섭은 "글씨가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띄어쓰기도 정확"히 구사하는 작가였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4] 이처럼 이중언어적 주체의 혼란이라는 개념을 손창섭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타 작가들과의 면밀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류동규는 『유맹』을 분석하면서 손창섭의 정체성을 '난민'으로 정의했다.[25] 이때 사용되고 있는 '난민'이라는 개념은 근대 민족국가 체제의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근대 '민족국가' 및 '국민'이 양가적이고 분열적인 공간에서

---

22) 한수영, 앞의 책, 274~277면 참조.

23) 사공일, 「호미 바바의 식민담론에 나타난 푸코의 권력담론」, 『현대영미어문학』32, 2014, 333~339면.

24) 정철훈, 앞의 책, 79면.

25) 이와 비슷한 개념틀로 최다정이 논의한 "이언어적 말걸기"를 통해 나타나는 "혼종적 정체성" 내지는 공종구가 논의했던 "강요된 디아스포라"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시도한 정체성 부여는 『유맹』의 문제에 국한된 것들이어서 손창섭의 문학세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다정, 「민족번역과 혼종적 정체성」, 『이화어문논집』29, 2011. 그리고 공종구, 「강요된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2006, 참조.

형성된 산물이다.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 내리고 있던 원초적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정체성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논문의 주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근대 민족국가에 귀속된 개인, 즉 '국민'은 이러한 관점 아래 근본적으로 분열된 민족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로 파악된다.

류동규는 『낙서족』 혹은 「신의 희작」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맹』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소간 재고가 필요하다. 류동규는 이 글에서 "근대 민족국가 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해명하고자 한 시도"[26] 라는 점에서 『유맹』의 독보적인 성과를 찾아내고 있는데, 사실 『유맹』은 『낙서족』과 「신의 희작」과 더불어 자전적 소설의 범주 속에서 함께 논의될 여지가 많은 작품이다.[27] 따라서 "민족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이라는 문제를 『유맹』 개별 작품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손창섭 소설의 변모라는 맥락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유진의 경우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 손창섭의 정체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는 손창섭의 도일을 경계인의 삶을 선택한 결과로 이해하면서 이와 결부시켜 일종의 '방외인 문학'[28] 내지는 '재류외인(metoikos)'[29]이라는 개념으로 손창섭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때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명백한 의미의 '재류외인'으로서 단순한 문화적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의 이방인, 경계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손창섭의 개인적 전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개념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의 단편소설과 후기의 장편소설을 순수문학과 세태문학의 것으로 양분해내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보다 풍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방민호는 강유진의 '재류외인(metoikos)'을 끌어오면서도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의 외부인적 시선을 손창섭의 삶과 문학을 관통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강유진에게 있어 '재류외인'이라는 개념틀은 『유맹』과 『봉술랑』과 같은 '도일' 이후의 장편소설로 국한된 것이었다면, 방민호는 '외부성'[30]이 지닌 정치성 담론들을 통해 '재류외인'적 삶이 그의 장편소설 전체를 관통할 수

---

26) 류동규, 「난민의 정체성과 근대 민족국가 비판」, 『비평문학』29, 한국비평문학회, 2008, 116면.
27) 방민호, 「손창섭의 『유맹』과 '재일(在日)'의 운명」,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참조.
28)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2, 47면.
29) 강유진, 위의 글, 162~178면 참조.
30)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한국문화』58, 한국학연구원, 2012, 참조.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손창섭의 작품세계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외부성' 담론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손창섭의 소설이 일종의 타자, 혹은 외부의 목소리로 자리매김해 있다는 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시각

폴리스와 같은 상태, 즉 순수한 정치적 영역의 내부를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사회·정치의 문제를 보다 폭넓게 사유하기 위해 외부자의 시선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다.[31] 이를테면 내-외부의 유동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공동체가 구획의 논리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그 순간부터 루소가 언급한 '일반의지'를 획득할 수는 없다. 손창섭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열병을 앓을 정도 경도되었음을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루소의 사상은 손창섭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

> 나는 언제나 혼자서 책을 읽었고, 실생활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발굴하려고 애썼다. 나는 다만 문학을 인생학(?)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이었다. 그 무렵 룻소오와 니이체에게 도취되어 나는 열병환자처럼 된 적이 있었다. 특히 룻소오에게는 더 심하게 경도되었다. 룻소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내가 하고 싶던 말 같았고 그의 행동은 하나하나 그대로 내가 원해온 행동이었다. 나도 룻소오처럼 십여세나 연상의 여인과 연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32]

이와 같은 회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루소와 니체를 경유해 손창섭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놀라울 정도다. 손창섭이 기질적으로 문학인이라거나 지식인 특유의 전문적인 냄새를 극도로 꺼리노라 스스로를 설명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루소와의 관련성을 직접 조명한 경우는 한 편에 그치고 있으며, 니체를 직접 주목한 경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33] 이는 니체의 경구가 손창

31)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76-80면 참조.
32) 손창섭,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현대문학, 1955.9, 138면.
33) 김진기, 「손창섭 소설에 미친 루소의 영향」, 『겨레어문학』50, 겨레어문학회, 2013.6.

섭의 단편소설 「잡초의 의지」과 「포말의 의지」, 그리고 장편소설 『길』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문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주제이지만 니체와의 관련성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가 정식으로 등단하기 이전인 1949년에 《연합신문》을 통해 독자투고의 형태로 발표한 소설 「얄구진 비」에서부터 신을 겨냥한 저항의 태도와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그의 초기소설 전반에 채색된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의 희작」과 같은 문제작이 이러한 성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니체의 영향은 간과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 더해 1960년대 후반에 연재한 장편소설 『길』에서 니체의 경구가 소설의 주제의식과 밀접한 과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요컨대 니체는 손창섭에게 있어 삶을 관통하는 성찰대상으로 자리한 사상가 중 하나였다. 니체의 사상이 소설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본문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니체의 경우보다 경도의 정도가 심했음을 토로했던 루소를 살펴볼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진기의 경우 손창섭과 루소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을 한차례 제출한 적이 있다. 그는 손창섭을 루소와 관련시킬 때 소설의 많은 부분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루소의 주요저작과 함께 『에밀』의 중요성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 김진기의 논의가 손창섭의 다른 소설들보다도 『저마다 가슴 속에』에 대한 논의에 기울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저마다 가슴 속에』는 교육현장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밀』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텍스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손창섭의 회고에서처럼 경도의 정도가 그만큼 강렬한 것이었다면 소수의 작품이나 교육이라는 주제의식을 벗어나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34]

손창섭은 루소가 바랑부인과 함께 연인관계를 구성했던 것처럼, 연상의 여인과의 연애를 꿈꾸게 될 정도로 루소의 삶과 사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35] 또한 『고백』에서 루소가 보여준 삶의 궤적이 손창섭의 인생경로와 겹치는 면모가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괴벽한 편이라 인정하는 손창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삶의 궤적에서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는 루소의 사상은 내적인 울림이 더 경했을 것이라 생각된다.[36]

---

34) 위의 글, 참조.

35) 김진기의 경우 이 문제를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거울단계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정도다. 위의 글, 11면.

36) 루소는 태어난 직후 어머니를 잃었으며 유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소원해지게 되었다. 본국을 떠나 방랑의 삶을 살게 되면서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삶

언명과 행동, 즉 손창섭에게 있어 내외의 차원 모든 영역에서 깊이 연관된 루소의 사상을 통해 그가 간취할 수 있었던 주제의식이 과연 무엇인지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본고는 우선 장-뤽 낭시가 루소의 사상에서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추출해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자 한다. 『무위의 공동체』에서 낭시가 주장하고 있듯이 루소는 분명 모든 의미에서 공동의 나타남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37]

루소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 등의 저술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고 결속하는 질서들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살펴봤을 때 그에게 있어 도덕이란 이성과 감성에 의해 인간에 대하여 형성한 관계관념과 관계감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곧 인간관계 속에서 습관, 예절, 관행, 관습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도덕들은 그 사회의 인간관계를 도덕관계로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이 확장된 도덕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들을 규율하는 질서로서 법은 도덕들을 반영하게 되는데,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 덕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도덕들은 좋은 도덕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로부터 도출된 법은 곧 '자연법'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도덕들과 그에 기반한 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는 인위적인 족쇄에 지나지 않게 된다. 루소가 후에 『에밀』과 같은 교육론과, 『사회계약론』과 같은 제도론을 제시하게 된 것 또한 『인간불평등기원론』의 문제의식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38]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주제는 곧 손창섭이 소설과 산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는 두 가지 면모를 고찰할 수 있도록 만든다. 먼저 사회적 관계와는 구분된 자연적 상태를 긍정하는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 한편, 사회의 구속을 비판하는 태도를 그의 소설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제는 점차 인간의 사회적 결속과 '법'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적 태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를테면 손창섭의 초기소설에서 근대적인 의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인위적인 결속의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루소의 언명과도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손창섭의 초기소설이 인간적인 의미들을 퇴

을 살았던 루소는 다양한 직종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가 『고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희구와 함께 이성과의 합일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37)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75~76면 참조.

38) 오수웅, 「루소의 도덕과 법: 개념과 관계」, 『정치사상연구』15(2),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참조.

색시켜가면서 다소 방종과도 같은 자연적 형태로 인간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은 줄곧 지적되어온 면모다.[39] 손창섭이 보여준 이와 같은 인간상실의 소설화는 자연적 상태를 고려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손창섭의 소설 속에서 사회·정치적 결속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주로 결속의 원리들로부터 한발 물러난 태도를 취하던 초기소설의 경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손창섭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소설 속에서 연출하기에 이른다. 손창섭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경향을 첫 장편소설 『낙서족』을 통해 종합한 뒤부터 「신의 희작」을 경유한 뒤 1960년대에 세태소설이란 영역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정치·경제 등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소설화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치열한 사회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공동체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실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손창섭의 소설을 분석함에 있어 루소의 『에밀』과 『고백』과 같은 저작을 참고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루소가 『에밀』을 통해 스스로의 교육론을 설파해나간 것처럼 손창섭은 작품활동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후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는 문제를 고심했던 작가 중 하나였다. 「소년」, 『저마다 가슴 속에』, 『길』같은 작품을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1968년대 '야심작'으로 교육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간공장』이라는 소설을 기획했음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40] 또한 『유맹』에서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술자 '나' 또한 재일조선인 2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대해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41]

무엇보다도 손창섭이 "루소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면화하고자 했다면, 이를 참고할 수 있는 텍스트 『고백』의 영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의 원리는 「신의 희작」과 같은 자전적 글쓰기라는 경향에 관해 중요한 참고텍스트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저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와 사랑이라는 의미는 손창섭 소설 전반에 짙게 채색된 기본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용민의 경우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에밀』, 『고백』 등의 저

---

39) 유종호, 「모멸과 번민」, 『현대문학』, 1959.9-10, 참조.

40) 손창섭 외, 「人間工場 :다음 連載小說 非情한 現實敎育 파헤칠 野心作」, 《동아일보》, 1968.7.4; 손창섭 외, 「길:다음 連載小說 시골少年에 비친 서울相 그려 -『人間工場』은 入試制全廢로 變更」, 《동아일보》, 1968.7.18.

41) 장-자크 루소, 김중현 역, 『에밀』, 한길사, 2003, 425~431면 참조.

작이 성과 사랑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검토한 바 있다. 루소의 성과 사랑에 관한 일반이론이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에밀』에서 전개되고 있다면, 『고백』을 통해 자기편애와 상상력이 뛰어난 '문명인'으로 자라난 루소가 이 둘을 이성의 통제 하에 놓음으로써 자신이 꿈꾸어 왔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용민은 루소가 이러한 인간본성에 대한 궁극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만이 좋은 삶과 정당한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고 파악한다.[42] 이와 마찬가지로 루소의 저작들에서 우정과 사랑에 근거한 인간관계에 대한 희구를 손창섭의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겹쳐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한번 언급한 낭시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 즉 공동의-나타남의 질서는 루소가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비판적으로 문제시했던 결속의 질서보다 근원적인 것이다. 루소에게 사회란 '자연 상태'에서 결속 없이 분리되고 고립되지 않을 수 없었던 자들이 결속함으로써, 그리고 분리됨으로써 주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루소가 중시했던 핵심적인 문제는 곧 인위적 족쇄를 벗어난 상태에서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43]

이 문제에 관해 질 들뢰즈는 루소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적인 악함은 복잡한 사회적 이익들에 맞추어서 압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창섭은 압제의 관계 그리고 이 압제의 관계가 전제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확신했던 작가 중의 한 사람이었고, 폭력과 압제가 최초의 사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민의 상태, 사회적 상황들, 경제적 결정들을 폭력과 압제보다 선행하는 것들로 가정하였는데, 이것은 루소의 논리를 엄격히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44]

널리 알려진 것처럼 루소는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45]라는 명제로 『사회계약론』을 시작한다. 루소는 힘에 굴복하는 것은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천부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사회계약론』에서 부단히 강조하였다.[46] 루소의 사상이 가진 이러한 급진적인 성격 때문에 1910년 이후 루소의 정치사상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

42) 김용민, 「『고백록』을 통해 본 루소의 섹슈얼리티와 사랑」, 『정치사상연구』11(2), 한국정치사상학회, 2005.11, 참조.
43) 장-뤽 낭시, 앞의 책, 75~76면 참조.
44) 질 들뢰즈, 박정태 편역, 「들뢰즈, 카프카, 셀린, 퐁주의 선구자, 장 자크 루소」,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이학사, 2007, 151면.
45) 장-자크 루소, 박호성 역, 『사회계약론 외』, 책세상, 2015, 21면.
46) 위의 책, 24~25면.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되어 우리에게 있어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47] 한편 손창섭은 이 시기 일본에서 유학하며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루소를 내면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손창섭의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작가가 스스로를 비유적으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목석'의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48] 그의 소설에서 서술자들은 사회·정치·경제·정치·종교 등 온갖 결속의 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면 수동적인 것으로 비판될 수도 있는 이러한 판단유보의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속에 대한 비행동과 공동체 구성의 열망이라는 주제는 분명 일정한 계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손창섭이 초기 단편소설에서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모색해나가는 한편, 인간군상들 속에서 좋지 않은 도덕들이 판치는 모습을 외부자의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손창섭의 소설 전반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일관적 정신적 상태는 바로 이러한 구속, 즉 인위적인 족쇄들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부조리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항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일 것이다. 하나는 부조리를 형성해내는 원리 내부에 뛰어들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항하는 원리를 표방하는 새로운 결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자는 부조리를 작동하는 원리에 포섭될 위험성이 짙으며, 근원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의지'에 위배된다. 후자의 경우 대안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긍정적 시도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정은 복잡하다.

이진경은 모니 모리슨의 소설 『파라다이스』를 분석하면서 흑인들의 명시적인 공동체 헤이븐의 특성을 주목한 바 있다. 해방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노예적 모욕.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인종차별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순수성을 또 다른 차별의 축으로 만들어버렸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백인들의 차별과 억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던 시도는 곧 자신들이 받은 모든 상처와 모멸을 고스란히 기억하며 원한과 미움, 혹은 두려움 속에서 모든 외부자, 외부성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모든 혼혈과 잡종, 이질성을 적대시하고 차별하게 되었다. 대칭적인 차별을 스스로의 내부에 만들어냈고,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상이한 목소리, 상이한 생각도 허용하지 않는 억압을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49]

---

47) 김용민, 「한국에서 루소사상 수용과 연구현황에 관한 일 고찰」, 『정치사상연구』18,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99면.
48) 손창섭, 「인간에의 배신」, 『문예』, 1953.7, 참조.
49)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13-22면.

그렇다면 인간을 구속의 상태로 인도하는 압제의 원리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무엇일까? 낭시에 따르면 공동체는 이루어야 할 과제의 영역에 속할 수 없다.[50] 그는 오히려 그리스어로 '유예'를 의미하는 에포케를 강조한다.[51] 고은의 지적과 같이 손창섭은 판단을 유예하는 특유의 태도를 통해 1950년대라는 시대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더불어 비행동(무위)라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언제나 일말의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공동체'를 겨냥한 소설쓰기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루소가 인간을 구속하는 조건들로부터 '인간 회복'을 외치며 "언제나 최초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52]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최초'의 자리에 공동체가 있다고 보았다. 비록 그 방법과 층위는 다를지라도, '공동체'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는 시도들이야말로 손창섭에게 있어 소설의 분량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손창섭이 기획한 공동체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모리스 블랑쇼와 장-뤽 낭시의 공동체 담론을 중점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그들은 헤겔적 변증법이 지니고 있는 지양의 원리를 '내제적인 원리'로 파악하며 비판한 점을 공유한다. 그들이 조명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공동체'라는 사유는 교조적이고 내제적인 집단의 원리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내제적 원리를 비판하는 동시에 헤겔이 지양하려했던 '바깥'(혹은 외부)과의 조응관계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학에서 외부성에 대한 사유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저작으로 평가되는 『문학의 공간』에서 블랑쇼가 내세웠던 주요한 논의는 '외부', 혹은 '타자'와의 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비인칭성'과 더불어 '죽음'이라는 문제를 '절대적 외부'라는 개념 아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 '여성성' 등 타자의 이름으로 지칭되고는 하는 관념들이 공동체를 구상하도록 만든다는 사유는 손창섭의 소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주요한 준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유의 난해함 때문에 순수문학 내지는 순수철학의 영역으로 독해되고는 하지만, 블랑쇼가 사유했던 외부와 타자에 대한 철학은 현실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관념들을 허물고 재사유하도록 끊임없이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사유는 정치적인 것 중심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외부에 대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근대적 가치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드는 한편 타자와의 관계에

50) 장-뤽 낭시, 박준상 역,「무위의 공동체」,『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78면.
51) 장-뤽 낭시,「유한한 역사」. 위의 책, 226면.
52) 장-자크 루소, 앞의 책, 30면.

대한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공동-내-존재', 즉 공동체를 긍정할 수 있게 만든다.

손창섭의 소설들은 창작된 시기와 양식의 변모와 관계없이 일관된 주제의식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은 기성의 윤리의식처럼 교조적 원리들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외부를 지양하는 헤겔적 원리들로부터 빗겨나 있는 손창섭의 소설을 조명하기 위해, 외부와의 적극적인 조응을 원리로 하는 공동체와 외부성의 철학을 하나의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랑쇼는 바타유의 사고를 검토함으로써 외부성 담론을 구축하게 되고[53], 낭시와 공명 관계를 이루어 공동체의 사유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내기에 이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깥'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들의 외부성 철학은 헤겔리안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으로 이어지며, 지양의 관점에서 세계를 구성해내는 내제적인 원리의 의식구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그들의 공동체론에서 목적의식을 갖춘 교조적 담론들의 비판이 주로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단절을 선언하고 넘어서고자 했던 것은 신화적 본질주의 내지는 파시즘의 내제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낭시의 공동체론에 따르면 단수적 존재인 인간은 세계의 원리를 규정하려드는 목적의식적인 '집단'이 아니라, 바깥을 향한 일종의 편위clinamen로 말미암아 '공동-내-존재'를 구성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그의 박사학위 논물을 통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를 비교하며 '편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유인 원자들은 편위의 규정 안에 정립되기 전에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54] 이에 관해 부연하자면 데모크리토스와 달리 에피쿠로스는 수직운동에서 벗어나고자 미끄러지는 편위라는 운동을 긍정했으며, 이러한 편위라는 원리를 따르지 않고서는 원자끼리의 충돌 또한 발생할 수 없다. 현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충돌은 편위라는 '우연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었고, 마르크스는 필연성의 원리로 사유될 수 없는 에이돌라[55]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편위에 따른 이러한 "존재의 우연은 사유의 우연으로 옮겨"[56]진다. 에피쿠로스의 경우 원자들의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을 정치적 영역에서는 계약, 사회적 영역에서는 우정으로 보았는데[57], 들뢰즈는

---

53) 모리스 블랑쇼,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1, 참조.
54) 칼 마르크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그린비, 2001, 77면.
55) 위의 책, 103면.
56) 위의 책, 47면.

루크레티우스의 편위론을 더욱 구체화시키면서 철학적 다원주의가 배태될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찾으려 했다. 루크레티우스의 자연주의는 존재, 일자, 전체 등을 회의하며 반정신주의와 다원주의를 표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58] 말하자면 우리는 편위를 통해 모든 획일화된 원리로부터의 이탈을 긍정하게 되면서도, 동시에 그 원리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인간과 인간의 집적체를 구성하는 원리를 정신주의와 같은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사유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단수적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며 그것을 분유함으로써만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태도야말로 공동체론의 핵심일 것이다. 지독한 회의주의자의 시선을 견지함으로써 '타자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손창섭의 문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인간의 회복'을 점쳐나갈 수 있었던 것인지 공동체담론들을 경유해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손창섭 소설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로써 그의 작품세계가 허무주의로 채색되어 있다는 기존의 평가로부터 한발 나아가 그 이면에서 공동체 모색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의 의지는 사회적 여건들로 인해 부단히 실패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그 문제로 항상 뛰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단한 실패의 과정을 인내를 가지고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동체는 구성상 그 원리를 완전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59]

---

57) 위의 책, 82면.

58) 질 들뢰즈, 박정태 편역, 「루크레티우스와 자연주의」, 앞의 책, 55~81면 참조

59) 블랑쇼는 밝힐 수 없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밝힐 수 없는 타자와의 내밀함을 항구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역설한다. 낭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연한다. 장-뤽 낭시·모리스 블랑쇼,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1.

2. 루소 사상의 수용과 사회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 유학시절의 독서체험과 루소 사상의 수용

본격적인 작품분석에 앞서 손창섭의 번역소설 『평요전』(고려출판사, 1953)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60]이 작품은 그가 남긴 유일한 번역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그 중요성을 평가받지 못했다.[61] 그러나 손창섭이 번역한 『평요전』은 한국에서 번역 및 출판한 여타 『평요전』 저본들 중에서도 그 선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당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손창섭의 독서체험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62]

---

60) 1953년 고려출판사에서 출판된 『평요전』의 존재가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곽상인의 박사학위논문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곽상인이 토로하고 있듯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탓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곽상인,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면.

61) 1953년 고려출판사에서 출판한 '손창섭'의 번역소설 『평요전』을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가 '손창섭'의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출판된 번역과 관련된 단행본 485종 4,099건 중 손창섭(孫昌涉)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사례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평요전』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고했을 때 『평요전』을 번역한 '손창섭'에게 있어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가 주업이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때 『평요전』이 출판된 것과 멀지 않은 시기인 1952년에 작가 손창섭이 「공휴일」을 통해 『문예』에서 정식 등단한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문단에 정착함으로써 번역을 통해 생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한국에서 1953년에 출판한 『평요전』의 저본을 일본에서 출판한 개조사의 『세계대중문학전집』 중 제 25권 『평요전』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손창섭이 일본 유학시절 세계문학전집을 탐독했다고 회고한 독서체험의 정황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근대문학 자료 소장 실태 조사 -1945~1960년 문학 단행본 자료와 1895~1945년 근대 문학잡지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2015. 참조.

62) 『평요전』의 번역사례를 다음과 같이 일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태준은 「조선소설사」를 연재할 때 명대소설의 수입에 관해 논하며 "明代의 軟派物이쓴칠새업시흘러들어 民間에傳寫되어沈滯한 李朝中葉의 文運에 一段의活氣를주엇스며나아가 文藝勃興의 直接誘因을일넛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때 「손방연의」, 「개벽연의」, 「서호가화」, 「호구전」 등과 함께 「평요전」을 주요한 작품군에 포함시켜 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송철규의 경우 「평요전」이 조선시대에 이미 널리 보급된 것임을 주장하며 사도세자의 언급을 검토한 바 있다. 사도세자의 최후 친필로 확인된 화첩 「중국역사회모본(中國歷史繪模本)」 속에 「평요전」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규복과 박재연 또한 「평요전」이 영·정조 때 국내에 전래되어 읽혔음을 번역사적 관점아래 논증한 바 있다.

근대의 문턱을 넘어선 이래 한국에서 『평요전』의 번역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50년 잡지 『부인』을 통해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동탁董卓'이라는 이름을 쓴 역자를 통해

손창섭이 번역한『평요전』의 저본은 애초의 원작인 중국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작가가 유년 시절 만주에서 생활한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와 그 문법에 능통하지는 못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그가 비교적 오랜 기간 유학한 일본에서 그 저본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27년 일본 개조사에서『세계대중문학전집』의 기획 아래 제 25권으로 출판한『평요전』이다.[63]

특기할 점은『세계대중문학전집』에서 출판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평요전』번역본이 지니고 있는 구성상의 독특함이 손창섭이 번역한『평요전』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평요전』에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판본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나관중(羅貫中)에 의해 140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추정되는 20회본이며, 다른 하나는 풍몽룡(馮夢龍)이 증보 수정하여 1620년에 초판이 나온 40회본이다.[64]

사토 하루오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두 판본과 달리 30회 구성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소설가이기도 했던 사토 하루오는 번역 과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세계대중문학전집』의 기획에 따라 40회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30회로 축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65] 이로 인해 발생한 사토 하루오의 30회 번역본은 다른『평요전』판본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예외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손창섭이 번역해 1953년에 출판한『평요전』또한 29회라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언뜻 보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출판의 표제삽화는 닮아 있다.

1950년 4월에 번역연재가 시작되었으나 같은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두 차례를 연재한 것에 그치고 말았다.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 연재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원작자를 '나관충羅貫忠'으로 소개하는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태준,「조선소설사(23)」,《동아일보》, 1930.12.10. 5면; 정규복,「평요전의 한국번역문학적 수용」,『아세아연구』34, 아세아문제연구소, 1991; 박재연,「「평요전」번역본에 대하여」,『중국학연구』6, 중국학연구회, 1991; 나관중 작, 동탁 역,「平妖傳」,『부인』5권2호-5권3호, 1950.4-6.

63) 개조사에서 출판한『세계대중문학전집』의 목록은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ameqlist.com/0ka/kaizo/zen_tai.htm 홈페이지 주소는 함동주,「신조사판 엔본『세계문학전집』의 출판과 서양문학의 대중화」,『일본학보』104, 한국일본학회, 2015.8, 참조.

64) 박재연, 앞의 글, 218면 참조.

65) 佐藤春夫,「譯本平妖傳小引」,『平妖傳』, 改造社, 1927, 1-4면 참조.

<그림 1>

개조사판『평요전』표제삽화

고려출판사판『평요전』표제삽화

이때 두 삽화를 비교해봄으로써 각각의 출판본이 지니고 있는 구성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 또한 가능하다. 우선 개조사에서 출판한『평요전』삽화의 경우 왼쪽 상단을 유심히 보았을 때 '散錢米王則買軍(산전미왕측매군)', 즉 "돈과 쌀을 풀어 왕측이 군사를 사다."라는 뜻을 지닌 글귀를 확인할 수 있다.『평요전』은 본래 각각의 회마다 내용에 걸맞은 제목이 달려있는데, 지금 살펴본 것은 그 중에서도 32회 제목의 부분에 해당한다.[66] 그런데 사토 하루오는 본래의 40회 구성을 살리지 못한 탓에 애초에 존재했던 회목명을 번역과정에서 살리지 못했다. 대신 회목명이 실린 삽화를 앞세움으로써 원전의 권위를 일정부분이나마 자신의 번역본에 반영하려 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반면 손창섭이 번역한 출판본의 삽화를 보면 삽화의 본래 제목은 어느새 사라진 채 그 대신 '중국탐정소설(中國探偵小說)'이란 표제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7] 이에 관해 손창섭이 책의 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는 점

66) 40회본『평요전』의 각 회목명은 박재연, 앞의 글, 221-223면 참조.

을 참고해볼 수 있다.

> 나 관중(羅貫中)은 중국의 대 문호(大文豪)요, 세계 삼대 작가의 한 사람이다. 세계 삼대 작가라 함은 로서아의 「톨스토이」 푸랑스의 「유고」 중국의 「나 관중」이다.
> (중략)
> 「삼국지」와 「수호전」은 우리 나라에도 이미 알려진지 오래지만 「평요전」만은 아직 소개되지 않았음을 누구나 유감으로 생각했고 또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지」가 세계 장편 소설의 비조(鼻祖)라면 「평요전」은 세계 탐정 소설(探偵小說)의 조종(祖宗)인 것이다.[68]

1953년 손창섭 번역본에 누차 등장하는 '탐정소설'이라는 수식은 개조사의 판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던 특징이다. 위 서문의 내용에 더해 손창섭은 『평요전』이 "기지와 신비(神祕)와 엽기를 다하여,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인다. 이런 면모는 저본이라 할 수 있는 『세계대중문학전집』의 판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고자 한 방향설정은 번역상의 새로운 굴절로 나타나게 된다. 손창섭은 사토 하루오의 번역본에 존재하지 않던 '회목명'을 자신의 방식대로 붙여나가기 시작한다. 이때 손창섭의 번역본에서 총 29회에 걸쳐 나타나는 회목명은 원작 『평요전』 40회본의 회목명과는 아무런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즉 손창섭은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번역과정에서 자신이 임의대로 각각의 회에 제목을 붙여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69]

---

67) 이러한 특징을 앞서 언급한 '동탁'의 번역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인』에 두 차례 연재된 『평요전』은 '연재탐정소설(連載探偵小說)'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68) 손창섭 역, 『평요전』, 고려출판사, 1953, 3면.

69) 손창섭이 번역한 『평요전』의 29회의 각 회목명은 아래와 같다.
一. 현녀낭랑(玄女娘娘)과 원공(猿公), 二. 백옥보로(白玉寶爐)와 향연(香煙), 三. 두개골(頭蓋骨)을 쓰고다니는 호출아(胡黜兒), 四. 명의(名醫) 엄삼점(嚴三點), 五. 청풍도사(淸風道師)의 마심(魔心) 六. 소녀미아(少女媚兒)의 삼각관계(三角關係), 七. 이상한 독수리 알, 八. 고아(孤兒) 달갱화상(和尙), 九. 달갈화상의 모험(冒險), 十. 의문(疑問)의 시체(屍體), 十一. 달갈화상의 승리(勝利), 十二. 생불(生佛) 성고고(聖姑姑), 十三. 병신 좌출아(左黜兒)의 수도(修道), 十四. 돌아온 호미아(胡媚兒), 十五. 미아(媚兒)의 죽음, 十六. 전당포(典當鋪)아 한폭의 희화(戱畫), 十七. 장란(張鸞)의 기우제(祈雨祭), 十八. 원인불명(原因不明) 괴화(怪火), 十九. 모녀(母女)의 해후(解后), 二十. 어머니의 고백(告白). 二十一. 호영아(胡永兒)의 마법(魔法), 二十二. 불사조(不死鳥)의 결혼식(結婚式), 二十三. 화려한 무도회(舞蹈會), 二十四. 미인(美人)의 투신자살(投身自殺), 二十五. 이상한 방울소리, 二十六. 유형죄수(流刑罪囚)의 행방불명(行方不明), 二十七. 무사(武士)

손창섭은 「아마튜어 작가의 변」을 통해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체호프, 스타인 벡, 이부세 마스지의 단편들과 같은 작품들을 탐독했던 경험을 회고한 적이 있다. 여기서 그는 스스로의 독서 경향에 관해 직업작가나 비평가의 '직업적인 냄새'가 아니라, '재미있는 작품'의 문제에 중점을 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70] 종합해봤을 때 적어도 흥미라는 맥락 아래 손창섭이 『평요전』을 주목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며,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으나 손창섭은 창작경향에 있어서도 이러한 면모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물론 단순한 대중적 취미로 국한시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손창섭이 귀국한 뒤 일본에서 출판된 것을 저본으로 삼아 1953년에 『평요전』을 번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학 시절의 독서체험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이는 한수영의 지적과 같이 1920~30년대에 태어난 작가들, 즉 전후 이중언어 세대와 결부된 문제이기도하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 일본에서 본격화된 세계문학전집류의 출판은 당대 일본이라는 자장에서만이 아니라 이호철, 서기원, 최일남, 박완서 등 전후문학세대 작가들의 회고가 뒷받침하고 있듯 한국에서의 그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을 정도였다.[71]

그와 동시에 손창섭을 장용학이라거나 김수영과 같이 한글과 한국어문법에 익숙하지 못했던 전후세대 작가들과는 다른 위치에서 주목해볼 수가 있다. 손창섭이 1953년에 보여준 『평요전』 축어역은 그의 한국어실력이 번역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적어도 이러한 번역작업이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유종호의 회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손창섭은 소설 원고작성에 있어 한국어문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작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72] 요컨대 『평요전』은 손창섭의 작법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73]

왕측(王則)의 등장(登場), 二十八. 반란군(叛亂軍)의 대회전(大會戰), 二十九. 동편군왕(東平郡王)의 삼일천하(三日天下)

70) 손창섭, 「아마튜어 작가의 변」, 『사상계』, 1965.7.

71) 한수영, 앞의 책, 99~142면 참조.

72) 정철훈, 앞의 책, 79면.

73) 가령 『평요전』 번역작업이 가진 의미에 관해 사카이 나오키의 『번역과 주체』와 같은 저작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카이는 번역작업이 모어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으로 기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어는 그 자체로는 코라 상태와 마찬가지라서 타자의 언어와 쌍형상화 도식을 이룰 때 비로소 자각 가능한 것이 된다. 이에 관해 사카이는 일본에서 와카의 어법이나 고전언어에 대한 연구가 서양에 대한 번역이 본격적으로 문제시된 18세기에 증폭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와 동시에 민족어의 표상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민족을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닌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논의하고 있다. 해방과 함께 일본에서 귀환한 손창섭이 유학시절 일본에서 수용한 중국의 텍스트를 한국에서 번역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다른 작가들과 달리 한국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손창섭이 번역한 『평요전』의 저본으로 『세계대중문학전집』을 지목할 수 있다면, 그가 「나의 작가수업」, 「아마튜어 작가의 변」에서 밝힌 독서체험의 맥락과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작가수업」에서 손창섭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 일본 경도서 중학 때 나는 일년 이상 우유 배달을 했다. 그 집 주인은 예비역 대위였지만 군인이나 정치가보다도 문학자를 더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그 집에는 세계문학전집을 위시해서 수백 권의 문학 서적이 있었다. 그 집에 있는 일년 반 동안에 나는 그 책을 거의 다 독파할 수 있었다.(강조 및 밑줄-인용자)** 그 많은 책 가운데에서도 도스또예프스키, 필립, 체홉의 작품들, 그 중에서도 특히 「뷰뷰. 더 몬파르나스」나 「죄와 벌」이나, 「아뉴-타」를 읽고는 흥분해서 밤을 새웠던 것이다.[74]

위와 같은 회고가 선행 연구를 통해 주목된 바 없었던 까닭은 이전까지 그 독서체험에 대한 실마리를 명확히 잡아나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평요전』을 토대로 추적해나갈 경우 손창섭이 일본에서 유학했을 당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신조사와 개조사의 '세계문학전집'의 열풍 속에 그의 독서체험을 위치시킬 수 있다.[75] 이를 토대로 그의 회고에서 불명확하게 기술되었던 세계문학에 대한 동경과 문학의 대중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손창섭이 「나의 작가수업」에서 언급한 '세계문학전집'을 위시한 수백 권의 문학 서적이란 신조사와 개조사에서 발간한 엔본 세계문학전집류를 두루 포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76] 같은 글에서 손창섭은 독서체험에 대한 단상과 더불어 루소와

문법에 능통할 수 있었던 바탕에 바로 『평요전』 번역작업에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세밀한 논의가 뒤따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역,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46~47면 참조.

74) 손창섭,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1955.9, 138면.

75) 이에 대한 예시로 손창섭이 1964년에 연재한 장편소설 『결혼의 의미』 속의 한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인옥은 다음과 같이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여자란 이런 것일까- 나는 본시 소설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학생 때, 선생님의 권고로 읽어본 일이 있는 체홉의 <귀여운 여인>이라는 단편이 머리에 떠올라 나는 이처럼 쉽사리 변화 되어가는 자신에 놀라기도 했지만 반면 이러한 자신이 우섭고 대견하기조차 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체홉의 단편소설 「귀여운 여인」은 신조사에서 출간한 『세계문학전집』 제24권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처럼 손창섭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자신이 탐독한 「귀여운 여인」의 주제를 『결혼의 의미』 속에서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손창섭, 『결혼의 의미』, 《영남일보》, 1964.6.12.

76) 1920년대 후반 일본에는 '엔본(円本)'이라고 불리는 저가 전집류 출판이 성행했고 엔본의 유행은 일본의 출판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사건으로 기록된다. 1차 38권, 2차

니체에게 강하게 경도된 경험을 토로하고 있는데, 특히 열병을 앓는 수준으로 경도의 정도가 심했음을 강조한 루소의 경우를 면밀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 글에서 밝히고 있듯 루소의 행동이 정말 자신의 삶에 내면화 할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면 신조사에서 발간한 『세계문학전집』 제 8권 『참회록』은 주된 탐독 대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나카에 초민에 의해 번역의 물고를 튼 루소의 저작들은 메이지시대로 들어서며 폭넓게 퍼져나가게 된다.[77] 신조사에서 『세계문학전집』과 함께 일종의 특집개념으로 출판을 병행한 잡지 『세계문학월보』에 실린 글을 참조했을 때 "우리의 민권자유사상은 루소의 피와 살로 다분히 자양을 빨아들인"[78] 것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일본에서 그 연원과 영향력이 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의 경우 1910년 이후 루소의 정치사상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되어 사상통제를 받게 되었고 수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79]

손창섭이 탐독했을 신조사 출판본의 『참회록』을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당대 일본에서 루소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어떤 풍토를 형성케 한 것인지 엿볼 수 있다. 『참회록』을 공동 번역한 역자 중 한 명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는 그와 마찬가지로 루소를 번역한 바 있는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다.[80] 오스기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일본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을 때 헌병에 의해 정치적 타살을 당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지닌 사상의 급진성으로 말미암아 일본 제국주의 체제와는 융화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세계문학월보』에 실린 「『懺悔錄』の最初の紹介」와 같은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참회록』을 통해 루소의 생애를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민권자유사상가의 생애를 읽어 내려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81] 즉 오스기 사카에가 번역한 루소

19권을 출판한 신조사의 『세계문학전집』은 예약판매가 58만부를 기록하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엔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조사의 성공에 힘입어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된 것과는 차별화된 작품들로 구성된 전집을 출판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앞서 살펴본 개조사의 『세계대중문학전집』이었다. 개조사는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전체 80권의 대규모로 『세계대중문학전집』을 발행하게 된다. 함동주, 앞의 글, 326-337면 참조.

77) 송태현, 「장 자크 루소의 한국적 수용 -초창기 루소 수용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2,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3, 205면 참조.

78) 柳田泉, 「『懺悔錄』の最初の紹介」, 『世界文學月報』31, 新潮社, 1929.10.30. 3면.

79) 김용민, 앞의 글, 99면.

80) 고토쿠 슈스이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하면서 해설을 붙여 『민약역해』를 출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동양의 루소라 불리기도 했다. 1910년 5월에 일어난 천황 암살 사건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11년 대역죄로 처형당했다.

81) 柳田泉, 앞의 글, 3면 참조.

의 『참회록』이 당대 일본에서 지니고 있는 권위는 비단 문학적 수기로만 국한시킬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바탕에 두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의 예로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장면을 눈여겨볼 수 있다.

> 형식은ᄌᆞ긔가 됴션에잇셔々ᄂᆞᆫ 가쟝진보ᄒᆞᆫᄉᆞ샹을가진 션각자로ᄌᆞ신ᄒᆞᆫ다 그리셔 검손ᄒᆞᆫ듯ᄒᆞᆫ 그의ᄉᆞᆷ에ᄂᆞᆫ 됴션샤회에ᄃᆡᄒᆞᆫ자랑과 교만이잇다 그ᄂᆞᆫ셔양텰학도보앗고 셔양문학도보앗다 그ᄂᆞᆫ 「룻소의」섭회록(懺悔錄)과「에밀」을 보앗고 ᄭᅰ스피어의「ᄭᅰ뎃」과 궤테의파우슷」과프로파트킨의 면포(麵麭)의 략탈(掠奪)을 보앗다 그ᄂᆞᆫ신간잡지에나ᄂᆞᆫ 졍치론과문학평론(文學評論)을보앗고 일본잡지의현샹소설에 샹도한번탓다 그ᄂᆞᆫ타골의일홈을알고 엘넨케녀ᄉᆞ의 뎐긔를 보앗다[82]

『무정』의 주인공 이형식은 조선에 있어 가장 진보한 사상을 가진 선각자를 자청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의 첫머리에 루소의 『참회록』과 『에밀』을 읽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83] 그 뒤에 언급하고 있는 크로포트킨의 저작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정황상 『참회록』의 번역자가 오스기 사카에임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는 그 급진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당대 조선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루소의 저작들을 일본에서 체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던 것이다.[84]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유학하던 손창섭의 경우 루소의 『고백』과 더불어 『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 등의 사상적 저작들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손창섭이 루소의 『참회록』에 감화를 받은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며 그에 따라 그의 생애를 탐구하는데 그쳤을지 모른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손창섭을 루소와의 관련성을 통해 조명한 사례가 극히 희소한 점만 보아도 그렇지만, 사상적 풍토 아래 손창섭을 독해한다는 것이 이른바 무의미의 문학[85]

---

82) 이광수, 『無情』70, 《매일신보》, 1917.3.31.

83) 참고로 신조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의 제 8권으로 『참회록』을 출판한 것은 1929년의 일이다. 그러나 이쿠다 쵸코(生田長江)와 오스기 사카에의 공동 작업에 따라 완역수준의 『참회록』이 출간된 것은 이미 1915년에 신조사를 통해서였다. 기존에 존재했던 출판본을 '세계문학전집'이라는 기획 아래 새로이 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4) 『에밀』로 대표되는 루소의 교육론과 철학이 당대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오현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동화와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94-101면 참조.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문제이지만 간략히 언급해둔다면 손창섭은 스스로 일본에서 교직자격을 획득했노라 회고한 바 있다. 손창섭이 일본에서 루소의 『에밀』을 읽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85) 김진기, 『손창섭 무의미 미학』, 박이정, 1999.

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손창섭에게 잘 들어맞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86] 그러나 모든 사회적 의미망들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 그 자체를 본령으로 한 손창섭의 작품세계를 루소와 니체라는 사상가들을 경유해 분석함으로써 해석상의 탄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루소와 니체에 열광한 적이 있다는 단편적인 언급에 기댄 것만은 아니다.

등단한 이래 작품발표를 쉬지 않고 이어나갔던 손창섭은 1970년 6월 『삼부녀』 연재를 마친 뒤로 왕성했던 작품 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된다. 그답지 않게 긴 공백기를 가진 손창섭은 도일한 뒤 1976년이 되어서야 『유맹』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1978년 마지막 장편소설 『봉술랑』을 완결함으로써 긴 여로에 종지부를 찍기에 이른다. 발표한 분량과 활동시기를 모두 고려했을 때 도일을 앞뒤로 한 공백기에 위치한 손창섭은 한 명의 작가로서 완숙기에 도달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도일을 앞둔 공백기에 손창섭은 『월간문학』을 통해 박태순으로부터 공개적인 서한문을 받아들게 된다. 1971년 1월 박태순이 "선생님의 작품을 열심히 읽고 사숙했던 독자" 임을 자청하면서 「後進社會와 文學의 現場」이란 글을 『월간문학』에 투고한 것이다.[87] 손창섭을 수신자로 하고 있는 이글은 "사회에서 글을 쓴답시고 하는 어리석은 청년의 답답한 심정을 선생님께 토론하고 싶은 일방적인 생각"에 작성된 것이었고, 『월간문학』 측은 곧 손창섭에게 회신을 써달라는 청탁서를 전달하게 된다.

손창섭은 『월간문학』 1971년 3월호에 「反逆 文學人의 虛勢-朴泰洵씨에게의 回信」로 박태순에게 화답하게 된다.[88] 자신의 특유한 문학론을 시니컬하게 '반역문학'이라 풀어낸 이 글에서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루쏘를 흉내내서 육체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싶다고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89] 「나의 작가수업」의 회고에 기대 자칫 일본유학 시절에 국한된 것으로 여기기 쉬운 루소 사상의 흔적을 그의 작품 중 대부분을 세상에 쏟아놓은 1971년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뒤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루소와 니체의 사상은 작품 곳곳에 짙게 채색되어 있다.[90]

---

86)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손창섭을 루소와 연관해 연구한 사례는 김진기의 작업이 유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진기, 「손창섭 소설에 미친 루소의 영향」, 『겨레어문학』50, 겨레어문학회, 2013.6.

87) 박태순, 「後進社會와 文學의 現場」, 『월간문학』, 1971.1, 참조.

88) 지면을 빌어 이 글을 통해 처음 공개된 글 「反逆 文學人의 虛勢-朴泰洵씨에게의 回信」의 제공자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안서현임을 밝혀둔다.

89) 손창섭, 「反逆 文學人의 虛勢-朴泰洵씨에게의 回信」, 『월간문학』, 1971.3, 참조.

90) 니체와 손창섭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진 절과 3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손창섭의 "육체로 돌아가자"라는 언명은 루소와 니체를 동시에 참고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니체의

손창섭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사상적 풍토에 관해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자. 우리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루소가 일본과 조선에 수용될 때 자연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송태현은 "자연 그대로, 진실의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루소의 태도가 일본과 한국에서 '자연주의'로 알려졌고, 이 이념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도 자기 자신 혹은 인간의 내면을 솔직히 드러내는 시도를 감행하게 되었다고 분석한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일제시기에 루소가 우리에게 소개될 당시 '묘향산인'과 같은 논자 또한 「近代主義의 第一人者 루소先生」과 같은 글을 통해 루소를 '자연주의의 제일인'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존중하고 인위와 기교를 배척한 것을 자연주의적 요소라고 파악하였으며, 루소의 『참회록』이야말로 그러한 요소가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적 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송태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 글의 저본인 일본의 『近代思想十六講』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루소를 자연주의자로 명명한 것은 사실상 일본 학계의 관행이었음을 참고해야만 한다.[91]

루소를 자연주의자로 명명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작으로는 역시 『인간불평등기원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작은 『사회계약론』과 함께 각각 『인간불평등기원』, 『민약론』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에서 이른 시기부터 수용된 것이다. 이른바 '자연법'이라는 핵심주제를 불평등이라는 문제와 결부시켜 논의한 『인간불평등기원론』은 '최초의 계약상태' 내지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언명을 대변하고 있다. 요컨대 이 저작은 당대 일본에서 루소의 사상이 지니고 있던 진보적 사상의 분위기를 '자연'이라는 키워드 아래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참조해야만 할 텍스트였다. 인위적인 상태에서가 아니라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법률 및 규범을 뜻하는 '자연법'을 대상으로 한 이 논문에서 루소는 다음과 같이 서문을 열고 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배후세계론자에 관하여」에서 니체는 "건강한 육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라고 외치고 있으며, 뒤에 바로 이어지는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관하여」에서는 '육체'를 하나의 큰 이성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육체를 이와 같은 관점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로서 저작에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최승자 역,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청하, 1984. 참조. 다음과 같은 언급을 겹쳐볼 수 있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라는 소박한 구호처럼 토양없는 초목이 있을 수 없고, 메마른 땅에서 초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듯이 비옥한 육체없이 거기에 뿌리박은 정신이 무성할 까닭이 있습니까." 손창섭, 위의 글, 300면.

91) 송태현, 「장 자크 루소의 한국적 수용 -초창기 루소 수용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2,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3. 210~213면 참조.

> 그리고 보다 가슴 아픈 일은 인류의 모든 진보가 원시 상태에서 인간을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모든 지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획득하는 수단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어떤 뜻에서는 인간을 많이 연구한 결과라는 것이다.[92]

루소에게 있어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인간 고유의 공동체는 분명 자연법을 기초로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루소에게 있어 자연법의 관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관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그 자체에서 법과 평등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루소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인을 모르는 한 자연인이 받아들인 법, 또는 자연인의 구성에 가장 적합한 법을 결정하려고 해도 그것은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 루소가 구상한 자연법에 관한 핵심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그래서 인간을 이미 완성된 형상으로 보는 일밖에 가르쳐 주지 않는 모든 학문상의 책과는 관계없이 인간 영혼의 최초의 가장 단순한 움직임에 대해 고찰해 보면, 나는 거기에서 이성보다 앞선 두 가지의 원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우리의 안락과 자기 보존에 대해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며, 또 하나는 모든 감성적 존재, 주로 우리의 동포가 멸망하고 또는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러운 혐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다. (중략)
>
> 타인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오로지 지혜가 주는 뒤늦은 교훈으로서만 명령되는 것이 아니다.[93]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연적 상태에 따른 두 가지의 원리란 전자의 경우 자기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며, 후자는 연민의 정을 의미한다. 이때 자기에 대한 사랑은 나쁜 사회상태에 의해 촉발되는 후천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과는 대비된다. 이를 통해 루소는 자기에 대한 사랑과 타자에 대한 사랑을 겹치고 있는 것이다.[94] 그러나 루소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법의 상

---

92) 장-자크 루소, 최석기 역,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동서문화사, 2007. 24면.
93) 위의 책, 28면.
94) 김용민에 따르면 루소에게 있어 자연적 충동으로서의 양심이란 동정심과는 달리 자기편애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적인 정의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한 개인을 그와 종류의 인간과 나아가서 인류와 관계를 맺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공동적 존재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용민, 앞의 글, 65면.

태로부터 점차 멀어진다. 이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변혁을 꾀하게 되면서부터 발생한 변화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온갖 불평등은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95]

루소는 이 저작에서 인간 사회를 냉정하고 공평한 눈으로 고찰했을 때, 강한 자의 폭력과 약한 자에 대한 압박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는 곧 "인간의 최초의 언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력적인 언어, 즉 인간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언어는 자연의 외침이다"라고 부르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예찬의 배경에는 근대의 타락한 정치나 사회 및 경제에 관한 비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루소에 열광했던 손창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아래에 인용한 글은 1953년에 단편소설 「사연기」를 통해 당선된 소감으로 쓴 「인간에의 배신」이다. 여기에서 손창섭은 스스로의 문학을 정의하며 인간의 것이 아닌 '목석'의 노래라고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 들, 나무, 염소, 개, 돼지, 두더지, 노루 것들의 어느 하나로 나는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고많은 '물건' 가운데서 어쩌자고 하필 '인간'으로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일찍이 나는 인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도 자랑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중략).
>
> 나의 문학은 목석의 노래다. 목석의 울음이다. 목석의 절규다. 목석에게도 환희와 비애가 있었고, 개탄과 절규는 있었다. 목석은 목석대로의 어쩔 수 없는 제 기쁨과 슬픔과 부르짖음을 터뜨려야만 했다.[96]

'인간에의 배신'이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손창섭은 인간 혹은 인간이 분포한 사회에 대하여 일종의 거부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아마튜어 작가의 변」에서 작가는 소설이란 작자의 인생 체험의 반영임을 긍정하는 한편, 스스로의 인생을 회고했을 때 '나' 스스로를 발견한 지점이 '육신과 정신의 고아'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창작원리를 그대로 대입시킨다면, 손창섭의 소설은 스스로 목격한 '고아정신'에서부터 반영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

---

95) 루소는 자연법으로부터 멀어진 인간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온갖 변혁 속의 불평등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법률과 소유권의 설립이 처음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위정자의 직분 설정이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권력으로부터 전제적 권력으로의 변화가 불평등을 조장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상태가 첫 시기에 용인되고, 강자와 약자의 상태가 두 번째 시기에 용인되고,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는 주인과 노예의 상태가 용인되는 것이다." 장-자크 루소, 앞의 책, 117면.

96) 손창섭, 「인간에의 배신」, 『문예』, 1953.7.

방치되듯 던져진 나 자신과 더불어 “이기와 위선에 찬 적으로써 발견되는 남”[97] 들과의 관계 안에서 손창섭은 점점 인간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반발심을 키워나간 것이다.

‘육신과 더불어 정신의 고아’가 된 손창섭에게 길러진 ‘고아정신’은 일차적으로 본받거나 이어갈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치들에 대한 거부 혹은 저항이나 반발로까지 표출된다. 이는 「아마튜어 작가의 변」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반역 문학인의 허세」에서도 “육체적 고통의 진실보다는 정신적 고민의 扮裝을 더 많이 쾌락하는 소위 지식인이니 지성인이니 문화인이니 하는 사치성 인간들”[98]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등한 차원에서 반복된다. 우리는 그의 소설에서 인간을 주체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 ·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물적인 수준으로까지 격하시켜가면서까지 환경에 노출된 상태의 것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손창섭의 소설 전반에서 짙게 채색되어 있는 외부인적 시선의 출발점이 구획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소설들로부터 손창섭이 일차적으로 소설의 목적을 인간적인 의미로써의 가치판단에 두지 않고 환경과 현실에 처한 인간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때로는 가학적인 면모까지 드러내어 파괴된 인간성을 표현해내겠다는 의미로도 통한다.[99] 즉 손창섭의 초기 단편소설세계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관념적인 표상에 머물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구현함에도 그 목표가 있지 않다. 손창섭이 “쪽 짜인 작품을 지지하지 않는다”[100]고 스스로 밝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 대부분의 딴 작품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유실몽」에 있어서도 작자가 의도한 근본적인 목표는, 의미의 분산 작용에 의한 무의미에의 가치부여에 있었음은 다름이 없다.

---

97) 손창섭, 「아마튜어 작가의 변」, 『사상계』, 1965.7, 474면.
98) 손창섭, 「반역 문학인의 허세」, 『월간문학』, 1971.3, 298면.
99) 데리다는 법의 원칙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 재긍정과 확증 속에서 이를 재발명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충분히 파괴적이거나 판단 중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면한 세상을 이기와 위선에 가득 찬 것이라 인식한 손창섭이 루소의 명제와 같이 현 사회를 회의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자연적 상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연법과 당면한 사회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고찰한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영향은 보다 섬세한 고찰이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50면 참조.
100) 손창섭, 「작업 여적」,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406면.

현대처럼 누구나가 모든 사실에서 무슨 심각한 의미를 추출해내려고 광분하는 시대도 드물 것이다. 더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즉, 인간 그 자체와 인간의 온갖 행위에서 무엇이든 그럴듯한 의미를 발굴해보려고 사정없이 파헤치는 바람에 점차고 인간의 내면에는 음산한 공동과 그 표면에는 삭막한 버럭더미만이 늘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인간이란 것이 반드시 고가한 의미만을 다량으로 매장하고 있는 광산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인산의 생활이 결코 관념적인 의미의 퇴적이나 연결로만 일관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다 더 무의미한 면의 누적임을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101]

「작업 여적」을 통해 손창섭 스스로가 그려내려 했던 '무의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인간에 대한 기성의 의미를 분산해 무의미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도덕적 관념까지도 기성의 것이라면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창조된 세계 안에서 손창섭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성의 인격 내지는 도덕적 층계로부터 빗겨나 철저히 상황에 던져진 상태 안에서 그 행동을 이루게 된다.

무의미함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태도와 "쪽 짜인 작품을 지지하지 않는" 작법상의 방향성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만약 손창섭이 나름의 도덕적 관념 혹은 지향하는 바를 뚜렷하게 정한 상태에서 소설을 썼다면 그것을 위한 구성 혹은 결말을 구상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손창섭에게는 도출해야 할 명확한 목적 혹은 선명한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지탱할 소설의 구조 또한 의도적으로 제거한다. 이런 태도는 시기와 분량을 구분하지 않고 그의 작품세계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손창섭은 작품 활동 끝 무렵에 내놓은 『유맹』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은 野生的 인간인 나의 非文化性탓인지 모르나, 아뭏든 文學作品에대한 나의 이러한 기본 자세가 「유맹」을 집필함에 있어서 一貫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가능한한, 전문가적인 냄새를 여기서는 지워보기에유념하였다.

첫째는 거짓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頂上을향해 독자의 관심을몰고 올라가는 피라밋型의 극적구성은 피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소위 立體的 구성에는 아무리 기교를 가해도 빈구멍이 뻥뻥 뚫리게 마련이다.[102]

---

101) 위의 글, 405~406면.

102) 손창섭, 「「說文學」의 眞實을 찾아서-「流氓」을 끝내고 東京에서 孫昌涉」, 《한국일보》, 1976.10.31.

손창섭이 서사미달의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일련의 비판은 이런 의미 안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의 상식과 익숙한 소설의 구조까지 거부하는 차원에서 배태된 방법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손창섭은 소설 속 인물과 사회를 방치한 상태에서 출발해 그 양태들로부터 한발 벗어나 관찰하는 태도를 자주 비친다. 숱한 연구들이 그의 작품세계를 '타자'의 관점에서 조명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손창섭의 등단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휴일」은 한국전쟁 중 발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이미지가 대폭 소거된 채 평범한 일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손창섭은 "한달에 두번씩 찾아와주는"[103] '공휴일'을 소설의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부언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은 사회적 인간으로써의 의무와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틈새 속에서 손창섭은 인간적인 의미들이 던져주는 의무와 관계로부터의 탈피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주인공 도일은 자신과 약혼이 오갔던 '아미'의 결혼 청첩장을 보면서 "공식적인 구식 문구가 가져다 주는 권태"[104]에 피곤을 느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다뤄질 결혼 청첩장이 도일에게 '사망 신고서'나 '부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정을 던져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도일은 그것을 청춘을 묻어버리는 장송문으로 여기고 있다. 더 나아가 「공휴일」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관계마저 회의하고 있다. 도일은 어머니를 향해 정말 자기를 낳은 것이 어머니가 맞느냐고 묻는다거나, 동생인 도숙을 향해 '도숙씨'라고 표현을 하는 등 가족에 대한 일련의 정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휴일의 권태와 피로 속에 벌어진 회의를 거치며 도일은 그것이 비록 사랑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인 사랑'인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이는 소설 속에서 "남편이란 아내에게 의무 이상의 사랑을 가져야하고, 아버지란 자녀에게 또한 그래야 된다면, 道一에게는 도저이 그런 자신이 없는 것"[105]이라는 토로로 이어지게 되고, 도일은 결국 "파혼을 전언할 용기"[106]를 먹기에 이르게 된다. 이때 파혼 선언을 위해 집을 나서는 등단작의 의미심장한 결말을 곱씹

103) 손창섭, 「공휴일」, 『문예』14, 1952.6, 192-193면.
104) 위의 글, 193면.
105) 위의 글, 200면.
106) 위의 글, 204면.

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파혼의 결심이란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온갖 도식적 관계를 소설을 통해 파헤쳐나가겠다는 다짐의 한 비유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일이 자신을 가진 모습을 하고 집을 나선 것은 손창섭이 스스로의 문학적 여정이 출발선상에 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공휴일」과 같은 맥락 속에서 「저어」(『사상계』, 1955.7)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고아원 출신인 주인공 '광호'는 기성의 의미에 대한 반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광호가 지닌 기성에 대한 반발은 다소 엉뚱하게도 '결혼식'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표출된다. 「공휴일」의 '도일'과 차이가 있다면 광호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결혼식의 허례허식에 있다는 점이다.[107] 더 나아가 광호는 "비단 결혼식 뿐 아니라, 장례식, 제사, 생일잔치 등에 관해서도, 극히 인습적이요, 형식적이요, 공식적인 폐풍(弊風) 내지는 악습에 지나지 않는"[108]다고 비난하고 있다.[109]

「미해결의 장」(『현대문학』, 1955.6)에서는 다양한 면모를 통해 인간에 대한 불신 혹은 동물적인 관찰의 면모를 보여준다. 주인공 지상은 "도무지 주위와 나를 어떠한 필연성 밑에 연결시키지 못하는"[110]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의 아래와 같은 서술을 주목해보자.

> 나는 오늘도 걸음을 멈추고 그 구멍으로 운동장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마침 쉬는 시간인 모양이다. 어린애들이 넓은 마당에 가득히 들끓고 있다. 나는 언제나처럼 어이없는 공상에 취해보는 것이다. 그 공상에 의하면, 나는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병리학자(病理學者)인 것이다. 난치(難治)의 피부병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덩이의 위촉을 받고 병원체의 발견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도 그 세균이 어떠한 상태로 발생, 번식해나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11]

손창섭은 지상의 시선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

---

107)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문제는 손창섭이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때 결혼식의 허례허식에 관한 거부반응 또한 소설 전반에 짙게 채색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108) 손창섭, 「저어」, 『사상계』24, 1955.7, 106면.

109) 여기에 더해 팔자에 없는 결혼의 소치로 주인공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소설 「피해자」가 보여주는 주제의식 또한 「공휴일」과 「저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110) 손창섭, 「미해결의 장」, 『현대문학』6, 1955.6, 169면 참조.

111) 위의 글, 175면.

하기보다는, 지구에 '질병'과 같은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 지상은 결국 인간이라는 병균에 침범당해 썩어 들어가는 지구덩이를 상상하며 침까지 뱉고 만다. 인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성의 누적된 '정신주의'를 벗어나 차라리 인간이라는 개체를 생리학적 관점 아래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112)]

「인간동물원초」(『문학예술』, 1955.8)는 보다 노골적으로 인간에 대한 가치절하가 표출된 작품이다. 쇠창살이 달린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감옥은 곧 동물원으로 비유되는데, 한 방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타락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쇠창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분명 그 밖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면모들로 가득 차있다. 가령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양담배'가 주사장이란 인물에게 강제로 겁탈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여자처럼 가냘픈 남자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방장과 주사장이 벌이는 갈등을 통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추악한 세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인간적인 의미들로부터 이탈해나가며 기성과 사회를 조망하는 손창섭 특유의 시선이 소설 속에서 독특한 인물구도를 형성케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단적으로 말해 손창섭의 초기 단편소설을 살펴보면 성격이 대비되는 인물들을 양립시켜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손창섭은 일관되게 그 중간에 끼인 인물을 설정해놓고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관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간자를 설정해 서사를 추동하는 전략은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즐겨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단편소설 「미해결의 장」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이라는 이상에 도취된 아버지와 가난이라는 현실에 억눌린 어머니의 사이에서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지상'의 경우를 눈여겨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창섭의 초기 단편소설에는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인물에게 서술자 내지는 관찰자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보통 성향이 극명히 갈리는 양자의 중간에서 가치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거나 행동이 상실된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은 대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손 : 하긴 지금까지의 작품에도 구질구질하고 나약한 낙오자 상대에 언제나 건설적이고 의욕적인 인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개들 괴짜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처럼 규범적인 사람도 드문 것처럼 말입니다.[113)]

---

112) 다음과 같은 니체의 경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지는,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하나의 살갗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살갗은 여러 병에 걸려 있다. 그런 병들 중의 하나는, 예를 들자면, 「인간」이라 불리운다."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172면.

「생활적」의 동주, 「사연기」에서의 주인공 동식이나 「사제한」의 서술자인 진수 등은 모두 주변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인물들이 아닐뿐더러 중간자의 역할을 짊어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외에도 「비오는 날」, 「혈서」, 「유실몽」, 「치몽」, 「침입자」 등의 작품들이 이러한 경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전 연구들이 손창섭의 초기 소설을 분석할 때 이러한 삼자의 구도를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114] 이러한 특징은 손창섭이 지닌 작법상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해결의 장」에서 지상은 '해결'이라는 말에 더할 나위 없는 도취를 느끼면서도 수동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지상을 둘러싼 해결되지 못할 고민은 "내 위치와 식구들과의 관계"[115]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이상에 경도된 아버지와, 다른 쪽으로는 철저히 생활문제에 귀속된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열뜬 아메리카니즘에 동조할 수도 없을뿐더러 빚 때문에 살림살이의 밑바탕인 재봉틀을 빼앗겼을 때 지상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겨우 몸을 팔아 살아가는 광순이에게 매달려 처절하게 돈을 구걸하는 것뿐이다. 정리하자면 정신주의와 현실주의의 간극에서 발생한 '미해결의 장'에서 지상은 '행동의 상실'을 통해 인간문제를 관조하고 있다.

손창섭은 관조의 장을 헤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 군상이 만들어내는 '집단'에 대한 허위를 지상의 시선을 통해 폭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상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이 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주"[116]고 있는 '진성회(眞誠會)'의 실체를 풍자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소설 속에서 '대장'이라 불리기도 하는 아버지의 주도로 모인 진성회는 겉으로는 "진실(眞實)하고, 성실(誠實)한 사람들 끼리 모여, 국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하다가 죽자"[117]라는 취지아래 결성된 모임이다.[118] 그러나 국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

---

113) 손창섭, 「나는 왜 신문 소설을 쓰는가」, 『세대』 대담, 1963, 210면.

114) 안용희, 손창섭 소설의 서술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유철상, 앞의 책, 참조.

115) 손창섭, 「미해결의 장」, 『현대문학』6, 1955.6, 169면.

116) 위의 글, 177면.

117) 위의 글, 177면.

118) 낭시에 따르면 공동체는 이루어야 할 과제의 영역에 속할 수 없다. 과제로서의 공동체 또는 성과물들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는 공동체적 실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믿기 쉬운 국가나 민족, 역사, 죽음 등의 관념을 사유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 사사키 아타루의 경우 민족과 죽음의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최대의 걸림돌'로 지칭되기도 하는 『존재와

죽음도 불사하자는 거창한 모토와 달리 진성회 회원들은 그 취지에 걸맞지 않은 추악한 모습들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미해결의 장」과 마찬가지로 「유실몽」(『사상계』, 1956.3)에서 손창섭은 어설픈 집단이 가지고 있는 허위적인 실체를 풍자하고 있다. '철수'의 매형은 전도유망한 회사를 설립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철수의 누이를 구타한다. 그것이 매번 반복되어 '숙달된 폭행'을 일삼는 매형과 '유창한 비명'을 질러대는 누이 사이에서 철수는 수동적 인물로서만 존재한다. 그는 옆집에 사는 춘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소설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정당한 욕망'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인물인 것이다. 술집에서 일하는 누이에게서 매번 돈을 갈취해가면서도 매형은 전도유망한 회사를 설립해내지 못하고 누이가 도망가 버림으로써 가정이라는 집단까지 붕괴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이른바 '현대식 가정스포츠'의 결말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잉여인간」(『사상계』, 1958.9)에서 중간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서만기는 이전 소설에 나타난 관찰자들과는 달리 이상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서만기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비분강개형 인물인 채익준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실의에 빠진 인물 천봉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구도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특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설의 방향 또한 자연스럽게 다른 국면으로 향해간다. 그것은 주인공이 앞장서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적 상황들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서만기가 이상적 인물로 그려졌다고 해서 그에게 닥친 문제까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손창섭에게 있어 서만기라는 이상적 인물의 구현에 소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탄식과 같은 것이 소설 전반에 강하게 채색되어 있다. 이때 '잉여인간'의 의미와 그에 대한 대상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봉우와 익준에게만 부여된 의미라기보다는 서만기마저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압제와 폭력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속하려드는 사회적인 양태들을 한발 물러난 상태에서 여실히 폭로하는 태도야 말로 손창섭이 소설을 통해 줄기

시간』 74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이데거에게 공동체는 민족의 생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사사키 아타루는 '공동생기'로부터 인간의 운명, 역사, 민족 등의 관념을 죽음과 결부시키고 있는 하이데거의 논리를 블랑쇼의 경우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의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사사키 아타루, 안천 역, 『야전과 영원 :푸코·라캉·르장드르』, 자음과모음, 2015, 221-242면 참조; 사사키 아타루, 김소운 역, 『제자리걸음을 멈추고』, 여문책, 2017, 74-125면 참조.

차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위적 질서에 편입될 수 없는 인간의 개체적 존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루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공동체라는 주제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루소에 의하면, 사회는 소통이라거나 공동체적 내밀성이 상실되거나 변질된 것으로 경험되거나 알려지며, 그에 따라 사회에 어쩔 수 없이 고독이 자리 잡게 되고, 동시에 욕망과 계획에 따라 최고주권의 자유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시민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낭시는 루소를 공동체로 향해 가려는 불안과 공동체의 파괴에 대한 의식이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체험한 선구적인 사상가라고 평가한다.[119] 인간의 불평등한 상황과 그것을 야기하는 사회적 계약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주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한 것이다.

손창섭의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 시선들은 사회가 창출해낸 '인간적 의미'들에 관한 것이지 인간 자체를 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다 넓은 방향으로 무의미함의 시선이 확장되어 나타난 소설 「생활적」(『현대공론』, 1954.11.)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주인공 '동주'는 영어도 꽤나 하고 현대적 학문을 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대하여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가 관심을 쏟는 단 한 가지는 옆집에 사는 봉수의 딸 순이가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뿐이다.

동주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도 소녀의 '죽음'이라는 원초적 문제에 들어가면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순이의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춘자'나 '봉수'를 통해 나타나는 먹고사는 문제나 남녀의 치정문제에 대한 무관심, 혹은 마을 사람들과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관계와 나에 대한 무관심과는 대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것은 "현존재 자신의 가장 고유한[남의 일이 아닌eigenste] 가능성"[120]이다. 즉 죽음은 현존재를 개별적 현존재이게끔 부추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죽음으로부터 발견하려 했다면, 이러한 죽음의 진리 앞에 블랑쇼는 의문을 던진다.[121] 그에게 죽음이란 항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은 보다 큰 세계의 사

119)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의 공동체」, 앞의 책, 36면.
120) 사사키 아타루, 안천 역, 『야전과 영원 :푸코·라캉·르장드르』, 자음과모음, 2015, 226면.
121) 위의 책, 228면.

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위치시킬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우리를 어딘가에 위치시키는 사건이며, 결코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122]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문제란 곧 인간의 공동체를 인식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블랑쇼가 논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에 관해 사사키 아타루의 해설을 참고해볼 수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죽은 자는 자기가 정말 죽었는지 여부를 모르며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완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타인"이다.[123] 블랑쇼에게 죽음은 "그 누구가 죽고", 그 누구로서 언제나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중성의 차원에서, 영원한 그라는 비인칭성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대적인 비-진리, 비-확실성은 이성이 내부로 구획할 수 없는 '바깥(le Dehors)', 즉 타자로 군림하게 된다.[124]

레비나스와 블랑쇼 등 '외부성'을 고찰한 철학자들이 근대와 이성의 사유로 군림한 '낮'의 세계에 대항하며, '밤'과 '죽음' 등 '절대타자'의 세계와의 조응을 중요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요컨대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인위적 관계망으로 묶어둘 수 없는 타자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낭시의 주장에 따르면 죽음은 주체의 형이상학의 모든 원천적 힘들을 돌이킬 수 없이 초과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공동체로 이끌고 있다.[125]

> 죽어가면서 결정적으로 멀어져 가는 타인 가까이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 타인의 죽음을 나와 관계하는 유일한 죽음으로 떠맡는 것, 그에 따라 나는 스스로를 내 자신 바깥에 놓는다. 거기에 공동체의 불가능성 가운데 나를 어떤 공동체로 열리게 만드는 유일한 분리가 있다.[126]

---

122) 모리스 블랑쇼, 이달승 역, 『문학의 공간』, 그린비, 2010, 127면.

123) 사사키 아타루, 앞의 책, 231면.

124) '바깥(le Dehors)'으로의 이행이란 블랑쇼를 계승한 푸코와 들뢰즈에게 있어 온갖 은폐의 질서로부터 이탈하기 위해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필수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개체적 관계 이전에 미리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치부하기 쉬운 모든 관념들로부터의 이탈이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로인해 가능한 '탈주'로부터 공동체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개체적 존재가 스스로의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를 통해 가능한 공동체를 사유하게끔 이끌어준다. 미셸 푸코, 김현 편역, 「바깥의 사유」,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지성사, 1989;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이진경 역,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1, 참조.

125)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앞의 책, 45면

126) 장-뤽 낭시·모리스 블랑쇼,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1, 23면.

낭시와 블랑쇼에 따르면 공동체는 죽음에 의해 질서 잡혀 있다. 이때 공동체가 타인의 죽음에 의해 드러난다면, 죽음 그 자체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기 때문이다.[127] 손창섭의 소설 속에서 타자의 모습은 때때로 죽음의 형상을 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생활적」에서 동주가 순이의 시체를 부여잡고 절규하는 모습, 「사연기」에서 동식이 성규와 정숙의 죽음을 차례대로 마주하는 것, 「잉여인간」에서 만기가 봉우의 처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주는 행위, 「포말의 의지」에서 옥화의 죽음을 마주하는 종배의 분노에 찬 시선, 「육체추」에서 마리아 여사의 죽음에 울분을 토하는 '성혜애호원' 환자들 등 그의 초기 소설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응시와 탄식의 대상이 되어왔다.

주검 내지는 죽음에 대한 관찰은 그것을 지켜본 자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모티프임에 틀림없다. 소설 속에서 관찰자에게 응시되는 죽음과 부재라는 문제는 언제나 인간적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재사유하도록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많은 단편들을 통해 죽음을 관장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손창섭은 곧 공동체와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춰나가게 된다. 즉 그에게 있어 정작 중요했던 것은 사회적 압제와 폭력들 앞에 선 인간적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응시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이는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인위적인 절차들의 허울을 폭로하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한다.

다양한 인간존재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시선이 손창섭 소설 곳곳에 드러난다는 점을 새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손창섭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에게 있어 당대의 인간들은 마치 "죄없는 형벌"[128]을 당하는 존재로 다가왔던 것 같다. 소설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강상중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롭고 순수한 행동조차도 사회적 존재로서 그 시스템의 연쇄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든 악이라는 '원죄'를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129] 손창섭은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한 '시스템으로써의 악'을 거부하는 문학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인간 개체와 그들의 관계를 주목하려 했던 것이다.

루소가 사회의 불평등한 조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조했던 두 가지 관념을

---

127) 사사키 아타루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에게 시체와 그에 따른 표상을 남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인간에게 장례라는 의례를 마주하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자들은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에 따른 표상을 통해 새로운 표상과 새로운 신체(코르푸스),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사키 아타루, 앞의 책, 236-242면 참조.

128) 손창섭, 「죄없는 형벌」, 『여원』, 1958.4.

129) 강상중, 노수경 역,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사계절, 2017, 98-108면 참조.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첫째는 자연적 상태에 따른 '자기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연민의 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손창섭을 독해하면서 투철한 자아인식을 전제로 한 '반-순응주의'와 더불어, 타자를 향한 연민의 감정과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 분리할 수 없이 얽혀있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손창섭이 내면화 한 인물인 루소에게 있어 그 두 가지 면모 모두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모리스 블랑쇼는 루소를 "문학에 항변하는 문학인"으로 지칭하면서, 『고백』의 문학적 성취는 이른바 '진실의 영역'이 아닌 '진정성'의 문제에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130] 이때 블랑쇼가 말하고 있는 진정성의 문제란 결국 진실이라는 질서 잡힌 영역으로만 다룰 수 없는 "독자적이고 개체화된 자아(자기)의 출현"[131]을 의미하는 뜻일 것이다. 이렇듯 자의식을 바탕으로 유일무이한 자아를 탐구하고자 하는 문학의 힘이야 말로 루소의 『고백』이 지니고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우정권의 경우 루소의 『고백』이 근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인간의 자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루소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현실의 삶과 사회적 공동체 속에 있는 자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송태현 또한 근대성의 주요한 요소가 자아의 발견과 자아 탐구에 있음을 적시하면서 루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32] 이에 관해 루소를 추상적 관념의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실재의 정치가라 평가한 들뢰즈의 다음과 같은 상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33]

> 우리는 위대한 작가를 오해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의 깊은 논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의 작품이 지니는 체계적인 성격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위대한 작가를 오해할 수 있다. (중략) 아울러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 작가의 희극적인 능력과 희극적인 천재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즉 그의 작품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반-순응주의적인 효과를 내게 하는 작가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위대

130) 모리스 블랑쇼, 최윤정 역, 『미래의 책』, 세계사, 1993, 75면.
131) 송태현, 앞의 글, 213면.
132) 우리는 1950년대 말에 창작된 첫 장편소설 「낙서족」과 1960년대 「신의 희작」, 산문 「아마추어 작가의 변」등과 같은 일련의 자전적 글쓰기의 한 경향을 이를 통해 새로이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가 등단한 뒤로 줄기차게 소설의 주제로 붙잡고자 했던 '가정사'와 '교육', '아동소설' 등의 문제는 루소와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24면; 송태현, 앞의 글, 212-213면 참조.
133) 들뢰즈의 루소논의와 관련해 강의록으로 남아 있는 『실재의 정치(A Politics of Things)』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 한 작가를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과 비극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카프카Kafka의 작품을 읽으면서 자주 웃지 않는다면 우리는 카프카를 제대로 찬미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그리고 이 두 규칙은 특히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게 있어서 유효하다.[134]

소수적인 문학을 중요시한 들뢰즈에게 있어 루소는 "카프카의 선구"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소수적인 문학이란 외재한 인위적 질서의 영토들로부터 탈주함을 의미하며 그로인해 필연적으로 공동체라는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이끈다. "외부와 내부를 넘어서 분자적인 동요와 춤, 어이없이 확장된 오이디푸스의 마스크를 쓰게 될 바깥(le Dehors)'과의 모든 극한적 관계"[135]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36] 예컨대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고독하고 독신적인 만큼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기계, 탈주선을 그리는 이 기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라는, 아직 그 존재 조건이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는다.[137]

『참회록』이 지니고 있는 '반-순응주의'은 분명 손창섭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한 사회의 온갖 구속들로부터 이탈하라 부르짖는 루소의 다양한 사회적 저작들의 언명이 그에게 작법 상 어떤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앞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손창섭은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양상을 띠기 쉬운 모든 인위적 관념들을 거부한 공동체를 탐구해나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과 소설의 장편화

지금까지 손창섭과 루소의 사상이 어떤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작가의 회고로부터 출발한 이 작업은 한 가지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창섭은 분명 루소와 함께 니체에게 경도된 경험을 토로하고 있으며,

---

134) 질 들뢰즈, 앞의 책, 149-150면.
135)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동문선, 2002, 33면.
136) 여기서 들뢰즈가 말하고 있는 '분자적인 동요와 춤'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위'의 운동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초월적 선험성들로부터 벗어난 실재의 관계들을 형성하게 만든다.
13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167면.

얼핏 생각하기에 과연 두 사상가를 동시에 수용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니체의 경우 루소의 자연관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사상가이기도 했다.[138]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으나 손창섭이라는 소설가에 의해 두 명의 사상가가 종합적인 문학성으로 표출될 가능성까지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손창섭의 소설 창작이 철두철미하게 사상이라는 이정표를 따라간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기성적인 학문체계로부터 먼 곳에 스스로를 위치시킨 손창섭인 만큼 두 사상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이 문학적 의미를 산출해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 저작에 대한 오독의 과정으로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작업이 종합해낸 그만의 독특한 문학성을 해독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생산적일 수 없다.

우선 손창섭이 니체를 소설을 통해 직접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다. 단편소설의 경우 「잡초의 의지」와 「포말의 의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장편소설 중에서는 『길』과 같은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니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풍의 종교적 성향을 거부하는 태도라거나, '신을 향한 저항'과 같은 일관된 태도를 그의 소설 곳곳에서 읽어나갈 수 있는 점 또한 눈길을 끈다. 이는 정식으로 등단하기 전 투고의 형식으로 발표한 「얄구진 비」에서부터 연원한 태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하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작품이 기대고 있는 니체의 텍스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파악된다. 「잡초의 의지」의 경우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139]는 니체의 경구를 그대로 빌리고 있을 뿐 아니라, 「포말의 의지」에서는 "신은 죽었다"[140]와 같은 핵심주제를 빌려오고 있다. 이때 이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성인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전자는 '잡초'와 같은 여자의 애정문제를, 후자는 인간의 물결 속에서 거품처럼 떠다니며 불안에 휩싸인 '포말'과 같은 남자의 애정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다.

---

138) 안철택, 「니체의 문화비판」, 『독일어문학』12(1), 한국독일어문학회, 2004.3, 참조.

139) "「온갖 인간 행위의 제약된 의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중략) 「니첸가가 고독속에 피하라구 했지만, 나는 불행하게두 나의 전신을 숨길 수 있는 무성한 고독의 숲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된 이 현실의 위협 앞에 피할 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손창섭, 「잡초의 의지」, 『신태양』71, 1958.8. 300-301면. "달아나거라, 나의 친구여, 너의 고독 속으로! 나는 네가 위인(偉人)들의 소음으로 귀먹고 소인(小人)들의 침(針)에 찔리는 것을 본다. (중략) 너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거라. 너는 소인배들과 가련한 자들과 너무 가까이서 살고 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보복으로부터 달아나거라. 너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91-92면.

140) 손창섭, 「포말의 의지」, 『현대문학』59, 1959.11, 51면.

요컨대 애정문제의 풍파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발견하는 것이 연작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작관계에 있는 두 작품 중 나중에 발표된 「포말의 의지」는 니체주의적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설에서 주인공 종배는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 옥화와 깊이 관계하게 되는데, 예배당을 늘 동경하면서 죄인의 미소를 짓는 것이 일상화된 옥화를 바라보면서 종배는 내적갈등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만으로 깊은 종교적 감화를 느끼고 있는 "밤의 여인과 예배당의 관계"[141]가 잘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 속 종배의 생각에 따르면 "'신앙'에는 인간을 실소케 하는 난센스"[142]가 있다. 예배당을 찾아가 죽으리라는 옥화의 말은 종배로 하여금 굴욕에 가까운 고독을 느끼게 한다.

종배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극명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종배는 옥화에게 스스로를 '죄악의 씨'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를 이와 같이 멸시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종배의 모친이 몸을 팔면서까지 학비를 대어 생활을 책임졌던 이모다. 이모와 이모부는 교회에 헌신하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으며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모친 아래 태어난 종배를 '악마의 새끼'라고 부르며 적대시한다. 그들은 종배를 '맹수'라 부르면서 선과 악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다.

이모와 이모부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르상티망'과 선악의 이분법은 확실히 니체적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기독교라는 우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배의 시선은 확실히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니체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

> 하기는 종배 또한 냉소와 조소와 체념이 뒤섞인 미묘한 웃음으로 그들에게 그저 순하게 대했을 뿐, 굳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밖에 나가보았자, 이모부 내외와 비슷한 '인간'들의 세계였기 때문이다.[143]

선과 악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기독교적 집단에게 있어 종배와 같은 사람은 '맹수'와 다를 바 없다. 니체가 그의 저작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려했던 대상도 '축군본능'에 따라 규합된 근대적이고 기독교적인 인간집단의 논리였다. 「포말의 의지」에서 종배의 눈에 비친 이모와 이모부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축군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들에 불과한 것이다.

---

141) 위의 글, 50면.
142) 위의 글, 52면.
143) 위의 글, 58면.

니체에게 원한ressentiment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도덕상의 노예반란으로 이해된다. 집단과 무리를 이루고자 하는 축군본능을 지니고 있는 노예도덕은 “처음부터 <외부적>인 것, <다른> 것,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부정”[144]한다. 이것이 니체에게 있어 원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예도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시 우선적으로 하나의 적대적인 외부세계를 필요로 한다. 적대적 외부세계란 달리 이야기하자면 결국 내부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원한의 본질이란 내부성을 원리로 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니체의 논의를 더 따라가 보자. 르상티망으로 인해 “<원한>의 인간이 생각하는 적”으로서‘사악한 적’, 즉 ‘악인’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며, “그것의 반대, 대조되는 상으로서 <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게 되는데, 이 선인이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니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집단의식은 “<십자가 위의 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역설”을 배태하게 된다.[145] 다음과 같은 손창섭의 날카로운 인식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그의 무딘 눈에는, 제단 저쪽의 아득히 먼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제상에만 맘을 두고, 그 앞에 몰려든 대식가들의 무리만이 보일 뿐이었다.[146]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준 종배 모친의 헌신을 뿌리치고 종배의 이모는 종배를 ‘악의 씨’, ‘맹수’라고 명명함으로써 철저하게 배격한다. 종배는 결국 교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로 표상되고 있는 기독교적인 집단을 ‘인간의 세계’라 명명하고, 그 자신은 옥화와의 관계에만 치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배는 옥화와 만나는 판잣집 방을 “동물적인 표정, 동물적인 대화, 동물적인 행동만이 반복되어온 동굴. 정신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과 동물의 완충 지대”[147]라고 말한 것이다. 종배가 소설의 초두에 신의 죽음을, 즉 니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종배가 모색하고 있던 가능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설에서 드러나듯 타인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개체를 소외시키는 사회적 가치들로부터 철저히 배격을 당한 인물과의 만남 속에서 종배는 오히려

---

144) 프리드리히 니체, 김태현 역, 『도덕의 계보』, 청하, 1987, 43면.
145) 위의 책, 42~46면 참조.
146) 손창섭, 앞의 글, 58면.
147) 위의 글, 50면.

진실한 인간관계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 그는 이러한 자신에 놀랐다. 일찍이 남에게 이렇듯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본 일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보람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것에 틀림없었다. 그것은 어떠한 보람이라도 좋았다. 삶에 대한 보람이 아니면, 죽음에 대한 보람이라도 좋은 것이다.[148]

사회·정치·경제·종교 등 인간을 소외상태로 몰아넣는 모든 원리들을 소설을 통해 비판적으로 그려내면서도 손창섭은 그 속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면모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니체적 관점아래 창작한 「포말의 의지」의 중요한 전제임과 동시에 루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주된 작품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손창섭이 니체에 열광했던 이유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그의 사상이 인간적인 집단의 폭력성을 비판할 수 있는 강렬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손창섭이 니체와 루소에 동시에 빠져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서 사회적 억압과 폭력을 겨냥한 전위적 힘을 발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을 구속하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결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은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 등의 저작에서 항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루소의 기본적 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9]

「포말의 의지」에서 니체의 불온성을 이어받은 종배의 마지막 행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이 결말을 향해 치달아갈 때,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배격당한 인물인 옥화가 예배당 앞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그리고 옥화의 죽음을 전해 듣고 분노에 찬 종배가 교회로 뛰어 들어가 애도의 종을 울리는 것으로 소설은 마치고 있다. 이때 광기에 가까운 태도로 교회의 종을 울려대는 장면의 의미를 곱씹어보아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현대사회에 만연한 타락한 인간성을 향해 경종을 때리는 작가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손창섭은 종교적 논리와 대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니체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창출해내는 '민족'과 국가라는 관

---

148) 위의 글, 56면.

149) 일관된 문제의식 아래 비교적 후기에 창작된 손창섭의 장편소설 『길』에서 니체의 잠언이 재등장하고 있다. 『길』에서 주인공 성칠의 정신적 지주로 등장하고 있는 신명약국 주인은 "적게 소유한 자는 그만큼 덜 소유당한다" 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소설의 핵심주제를 성칠에게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손창섭, 『길』, 《동아일보》, 1969.4.25; 프리드리히 니체, 최승자 역,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청하, 1984, 90면.

념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쏟아낸 철학자다.[150] 여기서 니체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손창섭 또한 소설을 통해 국가나 민족이라는 인간이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담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상계』를 통해 첫 장편소설 『낙서족』을 세상에 내놓으며 국가와 민족의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151] 인간의 실존을 와해시키는 '시스템으로써의 악'을 파헤치기 위한 작업은 민족과 국가라는 거대 담론들을 응시하게 만든 것이다.

『낙서족』은 이전까지 자전적 소설이라는 주제아래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도현'이 보여주는 인생경로는 실제로 작가 손창섭의 경험과 많은 부분 상통하며, 특히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중편소설 「신의 희작」과의 관련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낙서족』이라는 텍스트에서 저자가 지니고 있는 자전적 권위를 추려내는 작업에 있다기보다, 선학들이 누적한 성과들 속에서 작가의 일관된 테마를 종합하는 쪽에 있을 것이다.

손창섭의 초기 단편소설에 주로 나타나는 전략은 주인공 내지 서술자를 '피해자'로 형상화하는 것이었다.[152] 말하자면 수동적인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사회의 부정적 실체를 관조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153] 그러나 손창섭은 점차

---

150) 다음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향한 니체의 냉철한 평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란 모든 냉혹한 괴물들 중에서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것은 또한 냉혹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은 그 입으로부터 살살 새어나온다, 「나, 곧 국가가 민족이다」라는 거짓말이." 위의 책, 88면.

151) 김건우에 따르면 『사상계』는 장편 편집방침에 따라 1959년 3월호에 손창섭의 『낙서족』 한 작품만을 수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많은 논란이 뒤따랐고 9월에 이르게 되면 단편 중심의 편집방침으로 복귀하기에 이른다. 『낙서족』은 손창섭에게 있어 첫 장편소설일 뿐만 아니라, 『사상계』가 선택한 첫 장편소설인 것이다. 다음과 같이 『사상계』 1959년 3월호 「편집후기」에 실린 『낙서족』에 대한 상찬을 확인할 수 있다. "예고한바 있는 長篇全載를 이달부터 斷行했다. 六七○枚에 달하는 作品의 校正을 보며 지리함을 몰랐다. 實로 興味津津하다. 빈틈 없는 構想에, 緻密한 描寫, 九○面 誌面에 그 무게와 密度가 뻑뻑한 力作이다." 김진기의 경우 손창섭이 당대 공론의 장을 주도했던 『사상계』와 영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적인 방향의 소설들이 가능했을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256면 참조; 편집위원회, 「編輯後記」, 『사상계』, 1959.3, 442면; 김진기,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84, 한국언어문학회, 2013, 337-341면 참조.

152) 「피해자」의 주인공 병준은 팔자에 없는 결혼의 소치로 가장으로서의 생활과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병준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가족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의사나 생활을 전적으로 무시당하고, 의무라는 이름 아래 따라붙는 온갖 요구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커다란 과오로만 같이 여겨지는 그는 결국 착취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손창섭, 「피해자」, 『신태양』31, 1955.3, 참조.

153) 「사연기」, 「비 오는 날」, 「생활적」, 「혈서」, 「미해결의 장」, 「인간동물원초」, 「유실몽」, 「광야」 등의 작품들에 빠짐없이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신이 창조한 소설 속의 인물들을 깊숙이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위치시키려 한다. 단적으로 『낙서족』의 주인공 '도현'의 경우, 국가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길항하며 양자 어느 쪽에도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없는 문제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154]

「잉여인간」과 비교해 이상적 인물로 그려진 서만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볼 여지마저 없는 상황에서 결말에 다다르는 반면, 『낙서족』의 주인공 도현은 사건을 관조하는 관찰자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겪어 나가야만 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의 구도 또한 명확히 분리된다. 『낙서족』에 등장하는 두 여인, 상희와 노리코는 도현을 구심점으로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일방적 시선에 노출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입장으로 도현을 응시하고 있다. 이 소설에 이르게 되면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적 원리는 더 이상 관찰하는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거꾸로 도현을 응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을 구속하는 원리가 입체적으로 주인공에게 육박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낙서족』은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잉여인간」과 그 문제의식이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도현이 느끼는 독립투사 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은 전쟁이 휩쓸고 간 음울한 생활상과는 성격이 다른 차원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도현은 서만기의 경우와 달리 '넌센스'를 부여받게 된다. 상희에게 경이와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큰 의미가 부여된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상징이 주인공 도현에게는 커다란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이다. 아래와 같이 「문학과 생활」의 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여기에 물질적 생활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있다. 그들은 한결 같이 정신적인 면에서 인간의 본연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신이 물질에 못지 않게 - 도리어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
> 문학은 그러한 정신 작업의 일 분야다. 그러므로 문학을 하려는 강렬한 의욕은 상업이나 회사원을 지망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직업과는 스스로 구별되어야 한다. 문학은 좀 더 인간의 근원적인데 뿌리를 박고, 구경적인 문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
> 그러나 여기에 숙명적인 인간 조건이 있다. 머리는 하늘을 우러르고 있어

154)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참조.

도 발은 땅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근본적이요 구경적인 심오한 정신에 얽매어 있다 해도, 결국 인간 자체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생식해야 한다는 동물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155]

도현이 짊어지고 있는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고한 정신이라 여길 수도 있다. 상희가 고학생 도현에게 마음을 연 것 또한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자의식 때문이었다. 상희는 조국과 기독교적 정신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당국의 통제와 자의식에 예속되어 고통 받는 도현이 상희에게 반한 이유 또한 그녀가 거룩한 정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손창섭은 인간의 숙명적인 조건으로 자연 상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생식'해야 하는 조건을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도현에게 부가된 민족적인 정체성이 '부채의식'의 차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그는 민족이라는 근원적인 곳에 뿌리를 박고 구경적인 문제를 지향할 수 없는 인물로 형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56]

정리하자면 손창섭은 『낙서족』을 통해 가치판단의 유보 대신 관찰자와 가치판단의 문제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판단이 전작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민족과 국가적 차원의 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품 속에서 '민족'이라는 상징은 일본 당국의 철두철미한 감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주인공 도현에게 현실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다. 형사가 도현에게 날리는 조소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국의 통제는 그가 "독립 투사의 아드님"[157]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숙을 몇 차례 옮기고 편지를 변성명 · 변주소로 주고받는 것으로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

이때, 도현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순간조차 그를 옥죄고 있는 일경의 감시와 그 의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셸 푸코는 일망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판옵티콘의 도식에 관해 전체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의

155) 손창섭, 「문학과 생활」, 『신문예』, 1959.3, 304~305면.

156) '인간에의 배신'을 주창하면서 문단에 등장했던 이력에 더해, 『낙서족』과 같은 달에 발표한 「문학과 생활」은 손창섭의 정체성에 대한 지침표가 되고 있다. 도현이 내면화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의미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그로부터 이탈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작가 손창섭이 말하고 있는 자연적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회복'을 위해선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들이 창출해낸 결속의 원리들로부터 한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작가의 제언이기도 하다.

157) 손창섭, 「낙서족」, 『사상계』, 1959.3, 424면.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158]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전체로 확산된 일망 감시라는 체제는 권력의 의미를 보다 신속하고 경쾌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기능적 장치이고, 미래의 사회를 위한 교묘한 강제권으로 여겨진다.[159]

당국의 눈을 교묘히 피해보기 위해 조선을 등지고 일본으로 밀항해 온 애초의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적당한 학교에 적을 두면 무마가 되리라 생각했던 도현의 기대는 형사들이 갑작스레 들이닥침으로써 산산이 깨지게 된다. 제국주의 국가체제 아래 숨어들 곳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감시자가 감시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의 불안감이 소설의 곳곳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낙서족』의 도현을 통해 국가적 권력에 의한 규율 메커니즘에 압도되어 있는 개체적 인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푸코는 판옵티콘의 일망 감시체계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1978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에서 권력메커니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는 애초에 상정했던 규율 메커니즘의 분석에서 '안전장치'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논지를 이어나간다. 이때 권력 메커니즘이란 모든 관계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인 순환관계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때 권력이란 규율 메커니즘에서 다뤄지듯 상부에서 하부를 향한 자기발생적인 성격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파악이 불가능한 '절차의 총체'로 여겨진다.[160] 이때 '안전장치' 혹은 '안전기술' 개념은 특유의 정상화 형식으로 권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시되는 개념이 바로 '인구'라는 개념의 출현이다.[161]

『낙서족』에서 일경은 도현을 감시망 아래에 둔 채 끊임없이 압박하고 그를 여러 차례 유치장에 잡아넣기도 한다. 그러나 그를 결코 판옵티콘적 규율 체계의 최종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구속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푸코의 관점을 계속 따라가 보자면 규율은 개인

---

158)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321면.

159) 위의 책, 323면. 여기에 사사키 아타루의 논의를 더할 수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18세기의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서 상충을 발견했다. 전달되는 수준에서 자연상태의 투쟁을 기피하는, 원시계약에 의한, 사회계약에 의한 주권을, 사회체socius(=사회적 신체)를 건설하는 꿈이 있다. 한편 규율권력의 기술자들은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전술과 병참선, 시각성과 감시의 권력을 창조했다.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원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끝없는 강제이고,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무한히 발전하는 조련이며, 일반의지가 아니라 자동적인 복종인 것이다. 사사키 아타루, 김소운 역, 『제자리걸음을, 멈추고』, 여문책, 2017, 202-203면.

160) 미셸 푸코, 오트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18~19면 참조.

161) 위의 책, 31면. 권력과 인구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저작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159면 참조.

의 신체에 행사되지만, '안전'이라는 개념은 '인구 전체'에 행사된다. 즉 일경의 입장에서 감시를 통해 개인을 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정상화의 범주로 도현을 포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순사가 쓸데없는 걱정의 말까지 던져가면서 도현에게 '호구조사'[162]를 하고 간 장면은 눈여겨볼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렇게 '안전장치'의 영역에서 '인구'의 차원으로 도현을 포섭하려는 일경의 논리가 도현에게 '육체'로 인식되고 있는 노리코를 통해 환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리코가 표상하고 있는 '육체'와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도현을 기준으로 다른 편에 위치한 '상희'의 경우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낙서족』에서는 도현을 감시와 안전의 체계로 끌어들이려는 일제의 국가적 논리가 존재하는 한편으로, 그와는 또 다른 갈등이 도현에게 도사리고 있다.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는 "막연한 관념이 발하는 내적 명령"[163]이 그에게 끊임없이 민족성을 강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누구는 동경해 마지않는 포지션이 도현에게는 과중한 정신적인 부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논리에 뿌리를 박고 있는 정신주의를 형상화한 인물이 바로 상희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리코가 '일본-국가'와 '육체'의 논리로 구축된 여성이라면, 상희는 '조선-민족'과 '정신'의 논리로 구축된 여성인 것이다. 외부로부터 옥죄어 오는 사회적 압박감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부채의식의 틈에 끼인 채 도현은 해결의 모색을 강구하게 된다. 손창섭은 바로 이 지점에서 "눈물겨운 넌센스"[164]가 연출된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이 버틸 수 없는 과도한 압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조선인이라는 민족주의는 도현이 짊어질 수 없는 짐에 불과하다.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식민지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란 온통 감옥들의 세계였던 것이다.

> 여기서 다시 우리는 외로운 주인공이 고정된 사회학적 풍경 사이를 이동하면서 소설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를 융합시키는 것에서 '민족적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 병원들, 감옥들, 멀리 떨어진 마을들, 사원들, 인디언들, 흑인들을 전전하는 악한의 수평적 여행은 상류사회로의 여행은 아니다. 수평선은 분명히 경계가 있다. 그것은 식민지 멕시코라는 경계선이다. 일련

162) 손창섭, 앞의 글, 367~368면 참조.
163) 위의 글, 366면.
164) 위의 글, 366면.

의 복수들보다 더 사회학적 견고성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는 특별한 중요성이 없으며, 모두(동시적이고 분리된 존재를 통하여) 이 식민지의 억압을 대표하는 비교될 만한 감옥들이 가득 찬 사회적 공간을 상상시켜 주기 때문이다.[165]

베네딕트 앤더슨의 지적과 같이 피식민자인 이상,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희망 하나만으로 선택한 동경행은 '악한의 수평적 여행'의 비극으로 치닫는다.[166] 문제는 소설 속 도현이 식민자 일본과 피식민자 조선의 경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민족적 상상력을 감내하지 못하고 두 개의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항한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캡을 눌러쓰고 레인코트를 입은 수상한 사내를 발견했을 때, 감시의 시선 아래 "정신적 핍색"[167]을 느낀 도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터로 숨어들어 소변을 통한 '배설의 쾌감'을 느끼는 것 정도밖엔 없다.[168] 한편 수상한 사내가 다녀간 며칠 뒤 순사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조국을 다시 찾으려고 싸우고 있는 독립투사요!"[169]라고 쏘아주지 못한 일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 또한 도현이다.

『낙서족』에서 도현은 끊임없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가 경찰이나 학교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조차 그러한 행동이 정신적인 고양으로 인한 의식적 행동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다. 도현은 예외 없이 욱하는 성미로 압박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가 '배설의 쾌감'과 '생식'하는 조건들로 빠져든다는 점이 그의 방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소설 초반에 도현은 옆방에서 벌어지는 상혁과 여급의 정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아홉의 나이에 눈뜨게 된 자신의

165) 베네딕트 앤더슨, 앞의 책, 55면. 베네딕트 앤더슨의 통찰과 관련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의 제국적 질서를 대변하고 있는 '창씨개명'이라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일제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모두에게 일본국민이라는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했지만, 식민통치의 기술로 활용했던 민적 제도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함으로써 국민 간의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가령 조선인과 대만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들 '외지 일본인'들은 '조선민적', '대만민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지 일본인'들과의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105-109면 참조.

166) 방민호, 『이상 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옥, 2015, 139-192면 참조.

167) 손창섭, 앞의 글, 366면.

168)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낙서족』에서부터 발견되는 오줌과 관련된 정신적 핍색의 증상은 「신의 희작」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그려지고 있다. 이 증상은 타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넌센스의 결과물이며, 핍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결여의 원리는 곧 공동체적 성찰로 이어진다. 또한 「반역 문학인의 허세」에서 손창섭이 스스로의 문학을 일컬어 '배설문학'이라 지칭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69) 위의 글, 368면.

남성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작가는 도현이 그 '괴물'에게 얼마 안 가 자주 굴복당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인 상희가 될 수 없었다. 상희에게서 육체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현이 그녀의 정신성에 경도, 혹은 압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눈떠버린 남성성은 노리코를 향하게 된다. 노리코를 유린한 도현은 일본경찰과 일본전체에 대한 복수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차마 상희에게서 얻어낼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던 '육체'가 노리코에게서 엿보였기 때문이다. 상희로 대표되는 정신주의를 관철시켜나갈 수 없는 도현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육체 위에서 기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170] 허위를 연출하기에 이른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배설의 쾌감'과 '육체'를 향한 폭력에 기대는 것으로 일말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설 후반에 이르면 노리코는 자신이 모 권력기관의 사람에게 수배되었음을 고백하고 나선다. 이는 결정적으로 도현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노리코의 욕망이 그를 국민의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형사의 심사와 통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여자'를 강간한 '조선인' 도현이 너무나도 간편하게 경찰서에서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리코와 형사가 구상하고 있는 욕망이 공모관계를 이루고 있던 까닭이다.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각자 도현이 일본에서 소박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라고 끊임없이 권하고 있다.

물론 상희는 상희대로 도현에게 '민족'이 요구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다. 그녀는 도현의 견해는 묻지도 않고 일본에서 의대나 법대를 졸업해 번듯한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조선사람 된 의무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담론 아래 당당한 일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적 논리가 상희에게는 내포되어 있다.[171] 그러나 '욱 하는 성미'를 지니고 있는 도현은 두 여성의 포섭과 무관하게 비밀결사대를 구성해 경찰서에 불을 지르거나 테러를 가해 천황을 죽이는 것을 꿈꾸게 된다. 작품 내에서 도현을 중심으로 급조된 비밀결사대의 행동과 투쟁은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서 망상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실험에 착수하는 것 정도이다.

『낙서족』의 결말에 이르게 되면 도현은 일본에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보겠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중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는 한쪽으로는 '일본-국가'와 육체를 상징하는 노리코, 다른 한쪽으로는

170) 위의 글, 396면.
171) 상희의 정신주의에는 식민지 치하 제국에서 수직이동이 차단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배네딕트 앤더슨, 앞의 책, 148면 참조.

‘조선-민족’과 정신을 상징하는 상희와의 갈림길에서 정착할 수 없었던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상희와 같은 정신적 고양의 차원이나 아버지와 같은 구체적 행동의 갈림길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인물이기도 했다. 스스로를 “에트랑제 Étranger”[172]라 외치는 도현은 일본을 떠나 막연한 미래를 상정하며 서사 밖으로 퇴장하는 것만이 허용될 뿐이다.

이때부터 손창섭의 소설은 단편에서 장편으로 분량상의 전환을 보인다는 양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관조에서부터 가치평가의 문제를 서사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질적인 태도변화까지를 함께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잉여인간」의 중간자 서만기가 지고 있는 관찰자로서의 짐은 파탄 난 사회상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낙서족』에서 도현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국가체제의 실체적 폭력이며,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정신적 압박으로 나타난다.

들뢰즈에 따르면 루소의 항구적인 논제들 중의 하나가 곧 “필요는 (인간들 간의) 접근의 동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즉 필요는 인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 각자를 고립시킨다는 것이다.[173] 『낙서족』에서 도현은 초기 소설에서부터 줄곧 문제시되었던 사회적 압제의 원리를 관찰하는 관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압제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을 전작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민호는 고향상실이라는 문제를 통해 월남문학을 세 유형으로 준별한 바 있다.[174] 이때 월남문학인들은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며 고향 회귀열, 적응욕망, 이탈 또는 초월이라는 게 가지 갈래를 친 문학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 각각의 경향은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을 들 수가 있다.[175] 이러한 분석을 『낙서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주인공 도현은 ‘본질로의 회귀’라는 열망과 ‘적응욕망’ 사이에서 압도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구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희와 노리코라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된다.

『낙서족』에서 정식적 · 육체적 압제의 원리는 관찰자에게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

172) 손창섭의 독서체험을 당대의 맥락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1950년대에 카뮈의 「이방인」은 폭넓게 읽혔기 때문이다. 그는 실존주의 수용이라는 문맥과는 무관하게 이 작품을 받아들였으며, 이때 그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면모는 ‘이방인’이라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욱, 『한국 현대문학과 경계의 상상력』, 역락, 2012, 313-337면 참조,

173) 질 들뢰즈, 앞의 책, 150면.

174)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7집2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5, 참조. 이 논문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탈존 Ex-sistenz’라는 개념은 낭시와 블랑쇼의 공동체 담론에서의 ‘외존’과 번역 상의 차이가 있을 뿐 타자와의 관계에서 실존의 원리를 구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용어이다.

175) 방민호, 「데가주망의 논리 -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 『미네르바』2016봄, 연인M&B, 2016, 164면.

실체이며 그를 관찰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따라서 도현의 이탈은 결국 예정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소설을 개인을 결속하고자 하는 원리 앞에서 정착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표명한 작품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손창섭이 『낙서족』을 통해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은 제3의 길밖에 없었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최인훈이 『회색인』을 통해 보여줬던 데가주망[176]의 논리와 도현이 보여준 수동적 성향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루소가 표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구속의 원리들로부터 언제나 멀리 벗어난 문학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손창섭의 문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가 병자의 수준에서 인간 이하와 모멸의 문학성만을 탐색했노라 지적한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모멸의 문학성을 강조했던 유종호가 당대에 손창섭의 문학에서 일종의 '자연'적 상태를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다.[177]

루소의 원리에 따라 손창섭은 인간을 구속하는 원리들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써내려 갔다고 파악해볼 수 있다. 그것은 루소가 그랬듯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지향성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루소에게 최초의 상태, 즉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해체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초의 계약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제에서 잘 드러난다. 낭시가 그에게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간취하고 있는 것 또한 루소가 사회적 구속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형성할 수 있는 공동의 관계를 긍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손창섭은 문학 활동 초기에 단편소설들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는 조건들을 폭로하는 데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1950년대 말에 제출된 장편소설 『낙서족』은 손창섭이 구획하던 서술방식을 날카롭게 다듬어 인간의 구속원리를 극명하게 대비시킨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발판으로 손창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며 제3의 길을 모색해나갈 새로운 방향을 탐구하기에 이른다.

---

176) 위의 글, 참조.
177) 유종호, 앞의 글, 참조.

3. 대중성의 이면과 공동체 재구성이라는 실험

3.1. 1960년대 소설의 연속성과 난센스의 차별화

손창섭의 작품을 1950년대의 것과 1960년대 이후의 것으로 구분하며 그에 대한 격차를 전제로 탐구한 연구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이때 1950년대에 창작된 단편소설을 일컬어 '순문학'으로, 1960년대 이후에 창작된 신문연재소설을 '통속소설'로 설명하는 틀은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 손창섭 소설에 따라붙는 '대중성'이란 꼬리표를 비단 신문연재소설로 국한시킬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손창섭의 문학성에 대한 일종의 이분법적 단절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작가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동아에 『부부』를 쓴 후 주위에서 들리는 말이 '손창섭 타락했다'는 것이더군요. 그렇지만 나 자신이 의외로 느끼는 것은 그 무대(신문)에서의 기술 고려가 좀 부족했지만 결코 통속 소설을 쓰노라고 하진 않았어요. 문학지에 연재했어도 난 그렇게 밖에 못 썼을 겁니다. 신문 소설이 작가로서 외도하는 것이며 타락한 것이라는 말을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문 소설이야말로 작가의 좋은 도량이라고 봅니다. (중략) 나는 또 순수 문학의 귀족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질색입니다.[178]

위와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정은 간단치 않다. 여기에 더해 손창섭이 1950년대부터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현의 경우 인기소설가의 계보를 들며 일제 하 이효석, 1950년대 손창섭, 1960년대 김승옥을 꼽은 적이 있을 정도였다.[179] 또한 1950년대에 손창섭 소설이 지니고 있던 파급력에 대해서는 조두영의 회고를 참고할 수도 있다.[180] 여기에 더해 손창섭의 소설은 '문예영화붐'[181]을 타고 다수가 영화화되거나 연극으로

178) 손창섭 외, 「나는 왜 신문 소설을 쓰는가 -『부부』의 작가 손창섭 씨는 말한다」, 『세대』3, 1963.8, 참조.

179) 김현, 「대중문화 속의 한국문학」, 『세대』, 1978.5, 238면 참조.

180) "내가 대학에 입학한 것이 6.25 동란 직후인 1955년으로, 당시에는 요즈음처럼 여가를 즐길 오락이 없었고 취미생활도 별 것이 없었다. 등산이나 독서가 유일한 것이었는데, (중략) 손창섭은 그 시기 우리들의 영웅이었다. 구질구질한 분위기와 못나고 약한 단편의 주인공이 우리가 사는 것과 비슷해서 쉽게 공감이 갔기에 우리는 그의 단편이 나올 때마다 화제에 올렸다." 조두영, 앞의 책, iii면.

상연되었고, 이로써 그는 당시의 대중에게 친밀한 자각로 인식되어가고 있었다.[182]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비석이 1949년에 발표한『소설작법』이 1960년대 이후의 신문연재소설 창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손창섭에게 덧씌워진 통념에 대한 반례이기도 하다.[183] 손창섭의 경우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전제의 형태로 단편소설을 발표하던 시기부터 이미 일정한 분량에 따라 자신의 작품을 분절해가며 소설적 긴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작가였기 때문이다. 정비석이 제시한 신문소설에 대한 작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러한 분절적인 경향은 1955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후에 발표한 단편들 중에선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수적으로는 단연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184] 1955년에 작성된 다음과 같은 산

---

181)「文藝映畵붐」,《동아일보》, 1967.02.14., 5면 참조.

182) 손창섭의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로 제작된 작품들은 현재 시나리오만 남은 상태로 5편이 확인된다. 가장 먼저 영화화된 소설은《동아일보》에 연재된『부부』이다. 신문에 연재된 이듬해인 1963년에 영화 ≪부부조약≫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해인 1964년에는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잉여인간≫이 영화화되었고, 1967년에는「포말의 의지」를 원작으로 한 영화 ≪이방인≫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영화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작품이 196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애수의 언덕≫이다. ≪이방인≫과 ≪애수의 언덕≫은 똑같이「포말의 의지」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제작사가 다를 뿐 감독과 각본가가 똑같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큰 변별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두 작품 모두 영화 필름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이방인≫이 실제로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내 이름은 여자』를 원작으로 한 ≪당신은 여자≫(1970)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63년 극단 山河는 창립공연의 레퍼토리를 손창섭의 단편소설「잉여인간」으로 결정해 국립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극단 <신세계>는 2015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간동물원초>를 각색해 공연한 바 있다.「『剩餘人間』아름답게 昇華시킨 悲劇」,《경향신문》, 1964.04.18. 8면 참조;“孫昌涉의「泡沫의 意志」가「異邦人」으로 개제되어 팔리었고”「文藝映畵붐」,《동아일보》, 1967.02.14. 5면 참조;「異常夫婦의 이야기『夫婦條約』」,《동아일보》, 1963.07.22. 7면 참조;“이날 밤 극장 안은 3백50여명의 관객이「당신은 여자」라는 영화를 관람 중이었는데”「滿員극장에서 불騷動」,《경향신문》, 1970.11.11. 7면 참조; 각 영화의 시나리오는 한국영상자료원 참조;「意慾의『볼륨』드높여 두 劇團의「리허설」한창」,《동아일보》, 1963.11.01. 7면 참조; 김건표,「김건표 교수의 연극이야기 -불편함의 진실, 김수정 연출‘인간동물원초’」,《국민일보》, 2015.7.23.

183) 김지혜의 경우 정비석이 1949년에 발표한『소설작법』에서 밝힌 소설 창작법이 1960-70년대 신문 연재소설 창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고 있다. 정비석은 신문소설의 주제는 현실을 예리하게 반영하여 독자들에게 신선감을 주어야 하며, 8-9매 정도의 매회 매수 제한을 고려하여 1회분으로서도 긴장미를 잃지 않는 사건 진전, 장면 전환 등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문장의 경우는 대중이 편안하게 읽도록 평이한 문장으로 템포를 빠르게 전개해야 함을 강조한다. 김지혜,「이청준의『원무』에 나타난 신문 연재소설의 서사 문법과 작가의 비판 의식」,『현대소설연구』4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참조.

184) 김진기와 안용희의 경우 공통적으로 1955년을 손창섭 단편문학세계에 대한 중요한

문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마감 期日이 임박해서 밤을 새울적마다 좀 더 속 시원하게 주울 줄 내려가 주지 않는 무딘 붓 끝을 나는 늘 恨嘆해 온 것이다. 남들처럼 앉은 자리에서 몇 십장씩 제꺽제꺽 써내는 才能과 精力은 바라지 못할망정, 그대로 노상 作家 行勢를 한답시고 주척대는 주제에, 雜詩社나 新聞社에서 好意를 가지고 原稿를 請託해줄 때, 성큼 應할 수 있어야 할게 아니겠는가. (중략)
>
> 그래서 나는 平素부터 좋은 意味에서건 나쁜 意味에서건 제대로 作家 구실을 하려면 아마츄어의 ○城을 벗어나 반드시 職業化 되어야 한다고 固執해온 것이다. 職業作家가 되려면 우선 質도 質이려니와 어느 程度의 生産能力을 保有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요지음 나는 每日 一定한 時間을 定해 놓고 原稿쓰는 習慣을 가져 보려고 努力하고 있지만, 이것도 亦是 氣質의 탓인지, 才能이나 精力의 不足에서인지 별반 신통한 成果를 거둘 것 같지 않다.[185]

이렇듯 가독성을 고려한 분절의 경향은 일찍이 그가 등단한 직후에 벌써 실험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86] 더군다나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63년 장편소설 『부부』의 신문연재를 끝마칠 무렵, 손창섭은 "순수문학지나 고급종합지에 써야만 질이 높고, 신문에 쓰면 질이 낮아진다고 할 수 없"[187]을 것이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문지면으로 발표의 통로를 전환하는 것은 작품 활동에 본질 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같은 지면을 통해 소위 고급 독자보다도 일반 대중에게 더 친근감을 품고 있노라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188]

가령 《중앙일보》에 실린 「모자도」라거나 《서울신문》에 수록된 「미스테이크」는 단편소설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예외적으로 신문지면을 통해 연재형식으로 발표된 작품들이라 눈길을 끈다. 더욱이 잡지에 전재 형태로 실린 장편소설 『낙서족』과 중편소설 「신의 희작」 또한 분절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작품들은 분량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손창섭의 장편소설들과 뗄

굴절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서술특징 상의 변모지점, 『사상계』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다. 안용희, 앞의 글; 김진기,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84, 한국언어문학회, 2013, 참조.

185) 손창섭, 「餘談」, 『문학예술』, 1955.11.

186) 앞 장에서 한차례 언급한 것처럼 손창섭이 『평요전』을 번역할 때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회목명을 붙여나간 전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87) 손창섭, 「나는 왜 新聞小說을 쓰는가」, 『세대』, 1963.8, 208면.

188) 위의 글, 208면 참조.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89]

약간의 우회로를 경유함으로써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연속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손창섭이 도일하기 직전 한국에 남겨놓고 간 『손창섭 대표작전집』의 기획을 엿보는 것이다. 『손창섭 대표작전집』은 지금까지 시도된 처음이자 마지막 '손창섭 전집'일 뿐만 아니라,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전집기획에 손창섭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190] 전집의 목차를 살펴봤을 때 '신의 희작', '포말의 의지'와같이 작품 이름을 소분류 제목으로 명명한 경우만이 아니라, '초기단편집', '공포의 기록', '장편집(掌篇集)' '소년소설집'과 같은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준거로 손창섭의 테마, 혹은 작가의식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작업 또한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제1권의 목차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분류	소분류	수록 작품 및 목차
孫昌涉 代表作全集 Ⅰ	낙서족(落書族)	제1부
		제2부
	신의 희작(神의 戱作)	신의 희작(神의 戱作)
		잉여인간(剩余人間)
		미해결의 장(未解決의 章)
		가부녀(假父女)
		반역아(反逆兒)
		사제한(師弟恨)
		환관(宦官)
		청사(靑史)에 빛나리
		치몽(稚夢)

189) 또한 주제의 측면에서 '1960년대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남녀의 치정문제들을 전후시기에 지속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1950년대와 이후의 글쓰기에 대한 격차를 상정하는 태도는 무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등단작 「공휴일」에서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활적」, 「피해자」, 「미해결의 장」, 「저어」, 「유실몽」, 「치몽」과 그 속편인 「침입자」, 「잉여인간」 등 모든 작품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다.

190) "멀지않아 모출판사에서 『孫昌涉全集』(전5권)을 내리라는 그는 오직 거기에 기대를 걸뿐" 손창섭, 「별난 人生 별난 作家 孫昌涉」, 『주간한국』, 1970.3.22. 손창섭이 직접 『손창섭 대표작전집』 기획에 참여한 단적인 예로 『저마다 가슴 속에』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이 대표작전집에 수록되면서 『통속의 벽』으로 이름을 바꿔달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각각의 소분류에서 확인되는 작품들의 면면은 작가의 개입 없이는 분류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다. 또한 '대표작전집'이라는 기획에 걸맞지 않은 작품군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작가의 개입 없이 '대표작' 전집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차례 단편선집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바 있던 「비오는 날」과 「생활적」, 「혈서」, 「피해자」 등이 '초기단편집'이라는 이름 아래 소략하게 묶여 있다는 점 또한 대표작전집이라는 기획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소(微笑)
		층계(層階)의 위치(位置)
		공휴일(公休日)

손창섭이 발표한 다수의 단편소설이 '신의 희작'이라는 분류 아래 포섭되어 있는 형식임을 주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성은 '낙서족'과 '신의 희작'의 친연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으며, 목차에서 확인되는 작품들의 주된 테마가 '난센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초기 단편소설이 지속적으로 암시하고 있듯 개개인이 사회적 결속과 압제의 원리를 무릅쓰고 공동체를 구성해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를 보다 치밀하게 조명한 장편소설 『낙서족』이 1950년대 말에 제출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가 196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신문연재에 뛰어들기 전에 한차례 자신의 작품세계를 정리한 작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건 1961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신의 희작」을 주목하게 만든다. 물론 1965년에 발표된 자전적 소설론 「아마튜어 작가의 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때 '희작'이 불러일으키게 될 효과를 통해 손창섭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손창섭은 1970년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神의 戱作」을 꼽았다.[191] 이때 손창섭과 대면한 기자는 독자들의 충격과 반향이 컸다는 점을 전제로 깔면서 「신의 희작」을 읽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궁금해 할 법한 질문을 던진다. 작품으로서의 평가 외에도 그 내용 자체가 손창섭 스스로의 것인지 사실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손창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화상이 자서전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던 「신의 희작」의 문제에 관해 손창섭이 직접 해명한 유일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192]

> 자화상이란 자서전과는 다릅니다. 육안과똑같이보이는 것이 사진이라면 화가의 자화상이란 「心眼」에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하나 없고 귀가

191) 이 인터뷰는 이전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포착된 적이 없던 까닭에 본고에서 처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지면을 빌어 자료를 제공해준 이가 서울대학교 박사수료생 이경민임을 밝혀둔다.

192) 「신의 희작」과 작가의 관계에 대해 손창섭의 아내 우에노 지즈코 여사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녀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었다. 지즈코 여사의 증언은 정철훈, 앞의 책, 참조.

크게 강조된 그림도 자화상일수 있지않습니까? 줄거리가 나의 생활과비슷하다해도 디테일은 완전한 픽션입니다. 과거·현재·미래의 나 자신을 가능성위주로 그린거죠. 앞으로 나에대한 작품은 더 필요없도록 말예요.[193]

손창섭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의 삶을 내면화할 정도로 루소에게 열광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루소의 『고백』이 지니고 있는 문학성을 '사실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 자전적 고백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신의 희작」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194] 들뢰즈는 루소의 『고백』을 독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작가의 희극적인 능력과 희극적인 천재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즉 그의 작품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반-순응주의적인 효과를 내게 하는 작가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위대한 작가를 오해할 수 있다"[195]라며 일종의 오독을 경계한 적이 있다. 즉 '고백'의 내용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는 저자가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까지 표방해야만 할 반-순응주의가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신의 희작」의 서술자 "삼류 작가 손창섭 씨"는 작품의 서두를 열면서부터 "자기 자신에게 숙명적인 유머를 발견하"[196]고 있노라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난센스라는 효과를 인간모멸이라는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만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전적 고백에서 발휘되고 있는 「신의 희작」이 지닌 희극성, 즉 '숙명적 유머'는 손창섭의 반-순응주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법 상의 전략으로 독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를 가능성을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심상'이라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손창섭의 문학이 보여주고 있는 특이성을 작가의 괴벽한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괴짜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기시감, 혹은 주변의 변호와는 사뭇 결을 달리하고 있다.[197] 문제는 이러한 상반된 평가

193) 손창섭, 앞의 글, 18면.
194) 모리스 블랑쇼, 앞의 책, 참조.
195) 질 들뢰즈, 앞의 책, 149면.
196) 손창섭, 「신의 희작」, 『현대문학』, 1961.5, 12면.
197) '괴짜'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손창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손창섭, 「괴짜의 辯」, 『현대문학』, 1956.4, 137면; "나를 대개들 괴짜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처럼 규범적인 사람도 드문 것처럼 말입니다." 손창섭, 「나는 왜 신문 소설을 쓰는가」, 『세대』 대담, 1963, 210면; 한편 다음과 같은 토막글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를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면 누가나 다 동감일테지만 그의 외모가 주는 인상은 지극히 수집고 겸손하고 또한 말이 적다. (중략)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곧다 곧다 보면 결국은 좀 괴짜의 자세로 몰아가이만 하는 것처럼, 그도 이 인생을 너무 곧게 살아

를 일일이 지적하고 따지는 일이 결국 작가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을 만치 지난한 작업으로 치달을 수밖에는 없다는 점에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손창섭이 스스로의 특이성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얼마나 의식적으로 창조하려 했느냐를 밝혀내는데 있을 것이다. 「신의 희작」에서 아래와 같은 서술자의 인식은 주목을 요한다.

> 그것은 의식 세계의 단적 표현인, 그의 소설이란 것을 읽어보면 족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속에는 첫 줄 첫마디에서부터, 끝줄 끝마디까지 음산한 신음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작중 인물들을 유심히 뜯어보면, 결코 모두들 앓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정신적 지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도대체가 앓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줄곧 신음 소리를 연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참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 (중략)
>
> 아마도 그가 격에 맞지 않는 문학을 스스로 필생의 업으로 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이러한 비극적인 유머의 정체를 기어이 밝혀보자는 절실한 욕구에서인지 모른다.[198]

「신의 희작」의 서술자 '삼류 작가 손창섭 씨'가 서사로 뛰어들기도 전에 전작의 모든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까지 대변하고 있듯,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작가의 분신들은 이미 '정신적 지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199] 그들은 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음을 이어나간다. 서술자가 토로하듯 스스로에게 부과된 비극적 유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선 어이가 없을 정도로까지 희극성을 밀고나가는 수밖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손창섭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로부터 예외 없이 터져 나오는 '신음'이란 신경증적 소산이 아니라, 방법론적이고 의식적인 표현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역할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표현을 빌려 도착적인 미끄러짐에 할애되어 있으며, 이를 다분히 '카프카적'이라 부를 만하다. 즉 손창섭의 자전적 소설을 대표하고 있는 두 작품 『낙서족』

가려는 치밀한 의욕 때문에 소설속에서나마 사욕을 벗어나 자유로운 자기대로의 세계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젊은世代의 彫像」, 『여원』, 1956.6, 60-61면.

198) 손창섭, 「신의 희작」, 『현대문학』, 1961.5, 13면.

199) 손창섭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작가의 테마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執筆에만 더딘 편이 아니다. 얼추 構成이 된 뒤에도, 실지 펜을 들기 까지는 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된다. 그것은 作品에 나오는 人物들이 나와 親熟해 져서 하나하나 머리 속에 또렷이 살아 오르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손창섭, 「여담」, 『문학예술』, 1955.11.

과 「신의 희작」이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고아 의식'은 모범과 그에 따른 준거를 넘어선 지점을 응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200]

> 카프카가 말했듯이 문제는 자유가 아니라 출구다. 아버지의 문제 역시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오이디푸스적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서 아버지가 찾지 못했던 길을 찾아낼 것인가다. 아버지와 아들에 공통된 무죄, 공통된 고뇌의 가설이야말로 최악의 것이다. (중략) 요컨대 오이디푸스가 신경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경증이, 다시 말해 이미 복종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복종을 소통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오이디푸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신경증의 대가(代價)다. 역으로 오이디푸스의 확대와 확장, 그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 혹은 그것의 도착적 내지 편집증적 사용은 이미 복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고개를 드는 것이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던 것-욕망, 막다른 골목과 출구, 복종과 정정(訂正) 등에 대한 모든 미시정치학-을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보는 것이다. 막다른 골목을 통과하고 그 봉쇄를 넘는 것. 오이디푸스를 탈영토화하는 것. 그런데 이를 위해 오이디푸스를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과장하며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써야 했던 것이다. (중략) "아버지에 대한 반항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다."[201]

한편 「신의 희작」에서 자전적 기술의 희극성은 『낙서족』의 반복이자 차별화로 기능한다. 혹은 그 반대로 말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낙서족』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 작품이 작가의 자전적 요소를 차용하는 수준에서 출발해 사회적 결속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서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인공 도현이 민족과 국가라는 관념 사이에서 길항하며 난센스가 증폭되어 감에 따라 희극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신의 희작」의 주인공 'S'는 이미 난센스를 내면화한 상태에서부터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손창섭은 더 이상 스스로에 대한 작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의 희작」을 창작했노라 밝히고 있다. 이 발언은 '고백'의 원리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 손창섭은 『낙서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의 희작」을 통해 '고백'이

---

200) 손창섭이 문단에 갓 발을 들였을 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도저히 나는 무엇으로나 모범적일 수는 없었다. 인간도, 작품도 그랬다. 왼갖 모범적인 요소를 차라리 나는 경계해온 편이다. 모범적인 인간이나 행위 이외에서, 도리어 모범적인 것 이상의 어떤 진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무한한 가능성에 나는 도취해왔다. 그 어떤 진가라는 것을, 가령 '본질적 가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손창섭, 「괴짜의 변」, 『현대문학』, 1956.4, 137면.

201)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29-32면.

던져주는 난센스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이를 통해 단편소설 속에서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던 '반-순응주의'라는 불온함의 강렬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희작」은 『낙서족』에서 도현의 탈주를 통해 암시했던 제3의 길에 대한 방향성을 직접 표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의 희작」의 주인공 S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전 단편소설의 인물형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작가의 분신 S는 "신을 실소케 하리만큼, 어떤 절대적인 음모에 도전하"[202] 듯이 저항의 강렬도를 높여나간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부모두 형제두 집두 돈두 고향두 조국두 아무것두 없는 놈"[203]으로 규정하면서 "적을 향해서, 아니 세상을 향해서, 혹은 하늘을 향해" 저항한다. 「신의 희작」의 서사는 1950년대에 창작한 소설들의 경우에서처럼 타인을 '침입자'[204]로 설정하고, 초점인물을 '피해자'로 그리던 구도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205]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불온함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 S는 영어수업 시간에 '필생의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 'Life work'가 잘못된 단어라며 교사에게 반항을 한다. 그의 지적을 웃어넘기려는 영어교사에게 S는 그 단어가 'Work life'가 잘못 인쇄된 것이라면서 마치 '전인류'에게 항거하듯이 필사적으로 대들기에 이른다. 이 단편적인 장면에는 전도를 향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S는 영어시험에 '라이프 워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워버리고는 '워크 라이프'라고 역전시킨 뒤 백지로 시험지를 제출해버린 것이다.

결국 교무실로 불려간 S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이냐는 영어 선생의 다그침 앞에 "아닙니다. 영어에 반항하는 겁니다. 그리구 돼먹지 않은 영어의 노예가 된 인간을 경멸하는 겁니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S의 눈에 비친 인간의 생리란 'Life work'를 뒤집은 'Work life'에 불과해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의 희작」에서 S는 인간을 노예상태로 옥죄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 전도의 욕망으로써 반발한다.[206]

---

202) 손창섭, 「신의 희작」, 『현대문학』, 1961.5. 17면.
203) 위의 글, 37면.
204) 손창섭, 「침입자」, 『사상계』, 1958.3.
205) 더불어 우리는 신과 세상을 향한 S의 저항 속에서 니체와 루소가 교묘하게 종합되고 있는 국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206) 그것이 비록 폭력성을 동반한 것일지라도 소설 속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자살시도, 싸움, 동맹 휴학, 강간 좌익계에서의 활동 등은 개인을 옥죄는 조건들에 대한 대응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S의 저항은 『낙서족』에

이제 「신의 희작」에서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한 장면, 그러나 분명히 S의 강렬한 희극성과 반-순응주의가 그려나간 선분 중의 한 지점에 대해 눈여겨보아야만 할 차례다. 그곳에는 급격한 반전을 향한 어떤 접속이, 혹은 어떤 의미에선 S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내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서술자는 주인공 'S'의 희극적 면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야뇨증이 발발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논란의 여지없이 『낙서족』의 주인공 도현이 정신적 핍색에 배설의 쾌감으로 대응한 장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항의 강렬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신의 희작」에서 주인공 S는 스스로의 희극성을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긍정을 발견하게 된다.

> 그는 너무나 비참한 자기의 표정을 의식하며 필사적인 노력으로 지즈꼬의 얼굴을 보았다. 지즈꼬는 그의 얼굴을 본체도 안 했다.
> 『당신 냉기가 있군요』
> 그러고는 젖은 요를 개켜서 한 구석에 치워 놓고 새로 잠 자리를 만들었다. 너무나 태연한 표정이요 동작이었다.
> 『허리를 늘 덥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 지즈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정하게 웃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 그를 이북 속으로 밀어 넣었다.
> 『난 영 형편 없는 인간야. 그래서 늘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 『그런 쓸데 없는 말씀 하시는거 아녜요』
> 가볍게 나무라듯 하고, 지즈꼬도 다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 왔다.
> 그러한 지즈꼬에게 그는 무척 감동했다. 처음으로 온전한 인간의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할머니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오히려 더 가깝고 따뜻한 혈육의 정 같은 것을 벅차도록 맛보는 것이었다.[207]

손창섭의 초기소설 중 위의 경우에서처럼 인간관계를 긍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낙서족』의 도현과는 달리 S는 따듯한 손길을 내미는 일본인 여자 앞에서 가족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정을 느끼고 있다.[208] 『낙서족』과 같은 테마를 반복하면서 손창섭은 인간관계의 가능성이라는

서 도현이 보여준 무매개적이고 아나키적인 저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술자는 S에 대해 "그 악착함과 잔인함은 우습게도 일종의 의협심에 뒷받침되어" 있다고 변을 달고 있기도 하다. 손창섭, 앞의 글, 25면.

207) 손창섭, 위의 글, 22면.

208) 한편으로는 「신의 희작」의 주인공 S에게서 나타나는 야뇨증이라는 질병과 관련해 루소가 『고백』에서 줄곧 요폐증으로 인한 고통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질병은 오줌의 조절과 관련해 정반대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중요한 차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 말로 「괴짜의 변」에서 그가 발견하고자 했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내지는 '본질적 가치'일지도 모른다.[209]

이 문제를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낙서족』과 「신의 희작」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배뇨작용'이 난센스의 부산물 정도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금 정신주의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거부감을 과장된 문체로 써내려간 손창섭의 문학론 「반역 문학인의 허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스스로의 문학관을 쏟아내고는 있으나 그 핵심을 간취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 이를테면 문학에 더욱 집착하게 되든, 집어치우게 되든, 나의 경우는 貴兄처럼 思辨的 고민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필연과 현실적 욕구에 따라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문학에 손을 대게 된 동기 자체가, 시큰둥하게 무슨 기여의식이나 사명감 같은 것에서가 아니요, 단순한 취미로, 또는 外道로서, 달리 말하면 일종의 정신적 배설작용으로서, 처음부터 독자를 성정할 필요가 없는 작업 행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 같은 사람에겐 글 쓰는 일을 집어치울 필요도 집어치우지 않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취미니 外道니 배설이니 하는 비속한 말을 거듭해 썼읍니다만, 그 語意의 비천성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얕잡아 보아선 안 될 것입니다. 취미없는 인생을 사막에 비길 수도 있고, 正道보다도 오히려 外道에 운명을 거는 說俗居士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배설작용이란,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나의 문학작업이란 사회를 향해 扮射되는 광선이 아니고, 역으로 사회에서 방산되어 오는 塵埃層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
> 객관에 대한 주관적 작용이 아니라 주관에 의한 객관적 운동인 것입니다.[210]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손창섭은 이 글을 통해 문학 작업이 일종의 정신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인간적 개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써 육체를 주목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도문학', '반역문학'

루소가 테레즈에게 평생 보살핌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희작」에서 S는 지즈코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루소가 『고백』에서 테레즈에게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듯 S 또한 마찬가지로 지즈코에게 진솔한 감탄의 표현을 보내고 있다.

209) 손창섭, 「괴짜의 변」, 『현대문학』, 1956.4, 137면.

210) 손창섭, 「반역 문학인의 허세」, 『월간문학』, 1971.3, 299면.

이란 말에 더해, 자신의 문학이 경험적 필연과 현실적 욕구에 따른 것임을 천명하면서 '배설문학'이라 명명한 것이다. 그의 견해를 계속 따라가자면 '배설작용'이라는 것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면으로 바라보아야만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손창섭에게 있어 문학이란 그 자체가 이미 배설작용과 같다.

이런 관점아래 『낙서족』에서 도현이 보인 '배설의 쾌감'과 「신의 희작」의 S가 드러내는 '야뇨증'이라는 증상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손창섭은 『낙서족』을 통해 정신적 핍색 앞에선 인간은 결국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배설작용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핍색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그것은 「신의 희작」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질환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두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배설'과 관련된 표현의 형식들은 가학적 쾌감 내지는 질병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명명한 바 있는 '배설문학'[211] 그 자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그가 자전적 소설에서 배설작용을 주된 소재로 활용한 것은 자신의 문학관을 소설의 한 형식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손창섭의 개인적인 작업 자체가 문학이라는 이름 아래, 그에게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바로 그 사회와 마주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학 작업이 사회에서 방산되어 오는, 그리고 그것이 퇴적한 결과임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신의 희작」에서 S가 보여주고 있는 전도를 향한 욕망과 희극성이 비록 작가의 개인적인 작업으로 출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주관에 의한 객관적 운동'인 이상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공동체를 표현케 한다.

> 소수적인 문학에서는 각각의 작가가 말한 것이 이미 하나의 공동 행동이고, 그가 말하거나 행한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집합적 내지 민족적 의식이 쇠퇴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문학이 이러한 집합적 내지 심지어 혁명적인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이다.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연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
> 비록 작가는 주변에, 혹은 그의 취약한 공동체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지

211) 장편소설 『결혼의 의미』에서 주인공 인옥을 달래는 최동철의 다음과 같은 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사람이 동물보다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울 수 있다는 조건일지 몰라요. 눈물이란 충분히 카타르시스의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이젠 속이 좀 풀리셨죠." 손창섭, 『결혼의 의미』, 《영남일보》, 1964.4.29.

만, 바로 이러한 상황이 그런 만큼 다른 잠재적 공동체를 표현케 하며, 다른 의식과 다른 감수성의 수단을 벼리게 한다.[212]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야뇨증을 보듬어주고 있는 지즈코에 대한 S의 벅찬 감동을 다시금 상기할 수가 있다. 손창섭은 「아마튜어 작가의 변」을 통해 「신의 희작」에서 S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의 인간상을 육신과 정신의 고아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동시에 그는 이 글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진리)'만으로는 살 수 없는 '동물'이기도 했다." 라고 언급하는 한편, "나에게는 '떡(돈)'이, 인정이, 고향이, 집이, 휴식이,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지도가 아울러 필요했" 노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213]

인간을 구속하듯 엄습해오는 사회의 제반현상들 앞에서도 손창섭은 일말의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소설을 통해 사회의 구속원리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을 표출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초기소설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는 모든 행동을 유예하다시피 소극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다보니 그러한 주제가 적극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손창섭의 소설 중 가학적인 강렬도가 가장 높은 「신의 희작」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제 「신의 희작」과 초기 단편소설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변별점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소설이 비교적 "나와의 공존과 공감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 기성사회, 기성권위"에 대한 폭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억압된 나의 인간의 자기 발산"을 본격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신의 희작」의 경우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열망까지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즈코의 보살핌에서 S가 느꼈던 온전한 인간의 대우에 대한 감동적인 서술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내지는, 더 나아가 남녀의 애정문제를 긍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난센스의 의미에 관해 조금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난센스가 기본적으로 결여를 원리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개인을 압도하는 사회구석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난센스의 강도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여는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가 개인에게 박탁해버린 인간적 의미들에 관해 성찰하게 만든다. 이러한 결여의 원리에 대해 블랑

212)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46면.
213) 손창섭, 「아마튜어 작가의 변」, 『사상계』, 1965.7.

쇼는 바타유의 언명을 주목하면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바타유에 따르면 "모든 인간 존재의 근본에 어떤 결핍의 원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단수적 존재인 개인은 곧 타인과의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인간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는 타자를 향해 나아간다. 그 결과 인간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즉 자기ipse 또는 분리된 개인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상실의 체험 속에서만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바로 그 불가능성에 대한 의식에 인간 존재의 의식의 기원이 있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자신을 항상 미리 주어진 외재성(外在性)extériorité으로, 여기저기 갈라진 실존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인간 존재는 과격하지만 은밀하고 조용한 끝없는 자신의 와해와 다르지 않은 자신의 구성 가운데 아마 실존하게 될 것이다.[214]

「신의 희작」 말미에 이르게 되면 S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난센스, 즉 결여의 원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할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성을 박탈하는 사회의 구속 원리에 대한 투철한 전도의 욕망을 드러낸 한편, 박탈된 인간성의 회복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독할 수 있다.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블랑쇼의 논의와 같이 상실의 체험 속에 인간은 외재성으로, 즉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구성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블랑쇼는 이를 '부정의 공동체'라 명명한 바 있다.[215]

1961년에 발표한 「신의 희작」에서 손창섭이 남녀 사이의 정에 따른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과 동시에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남녀 사이의 치정문제와 가정사를 줄기차게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는 표현 양식의 차원에서든 내용의 차원에서든 전작들과의 연속성을 고려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의 희작」을 발표한 1961년 5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손창섭은 이미 한 편의 전재 장편소설과 두 편의 연재 장편소설을 세상에 내놓은 상태였고, 동시에 한 편의 장편소설을 연재하는 중이었다. 말하자면 「신의 희작」은 이전의 작품세계를 정리하는 소실인 동시에 전환기에 내놓은 선언서와도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 중에 가장 논쟁적인 작품 「신의 희작」을 다음과 같이 매듭짓고 있다.

---

214) 모리스 블랑쇼 외,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1, 18면.
215) 위의 책, 11~49면 참조.

> 이러한 그의 비현대성, 비문화성, 비일반성은, 그의 정신과 육체의 기본적 형성 요소인 기형성과 불구성에서 돋아난 가지로서, 그의 생활과 문학에 비극과 희극을 동시에 투영해온 근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러한 희비를 연출하기 위한 의미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신은 이 세상 만물 중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없다고 하니 말이다. 여기서 S는 너무나 저주스럽고 짓궂은 신의 의도와 미소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결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난센스인 도전을.[216]

위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그의 대결은 끝나지 않는다. 진정 "장편소설이 끝날 수 없으며 완결될 수 없는 단편소설"[217]이라면, 그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 신문연재소설은 초기 단편소설들과 『낙서족』, 「신의 희작」이 암시하고 있는 두 경향을 정면으로 돌파해나간 작품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사회를 조망하며 사회구속과 압제의 원리를 파헤치는 한편, 그로 말미암아 맞닥뜨리게 되는 결여의 원리 앞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실험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소설을 통해 사회적 문제들과 공동체를 동시에 사유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강상중의 경우 소세키의 『그 후』를 분석하면서 '시스템으로서의 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간'이라는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논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악이라는 관념이 사실은 몹시 진부한 인간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서는 미처 내다보지 못하고 또 예견할 수도 없는, 타자와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살아가야만 한다. 즉 개인의 자유롭고 순수한 행동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행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강상중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악순환을 타자와 자신을 살리는 연쇄로 바꿔나가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예컨대 소세키가 관심을 쏟았던 '세간' 속에는 혁명투사나 가부장적인 폭군과는 거리가 먼 가족이나 친구관계, 혹

---

216) 손창섭, 「신의 희작」, 『현대문학』, 1961.5. 48면.

217) "단편 소설은 그 문학적 성과가 무엇이든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실제로 단편 소설이 완전하고 완결적인 것이 되는 것인데, 그 경우 그것은 자체적으로 폐쇄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방되는 것인데, 오직 장편 소설-이는 그 자체가 끝날 수 없는 것인데-에서만 제대로 전개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개방되는 것이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88-93면 참조.

은 달리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얽매임이나 애증의 인간관계가 녹아들어가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도덕은 세간 바깥에는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소세키가 문학이라는 생업을 통해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도덕의 연쇄였다. 만약 거기에 있는 것이 에고이즘, 인간 불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아수라장이라 하더라도 그 어딘가에서 사람의 정을 느끼고 그것이 도덕의 연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악이 관계를 결여한 병이라고 할 때, 이 관계성의 결여를 철칙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세간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218]

손창섭이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인간이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로 뛰어들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목을 요한다. 루소는『사회계약론』에서 "모든 사회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적인 사회는 가족 사회"[219]라고 적시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루소는 자녀의 경우 자기 보존을 위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동안만 아버지에게 결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고백』에서도 루소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성찰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일화를 통해 이후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옮겨지는 '도덕상의 대원칙'[220]을 얻게 된다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면모는 다분히 "부부 이외의 가족이란 임시 가족일 뿐"[221]이라는 손창섭의 인식과 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손창섭의 신문연재소설에서 남녀 간의 치정 문제와 가정비화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인간의 결합 상태에 대한 양태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양식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단편소설에서 풀어냈던 테마를 보다 치밀하고 광막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가령 1960년 6월부터 1961년 1월까지 연재한『저마다 가슴 속에』를 예로 들 수 있다.『손창섭 대표작전집』에서는『통속의 벽』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기도 한『저마다 가슴 속에』는「잉여인간」의 문제의식을 장편으로 풀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인공의 이름이 '천봉우'라는 사실에서부터 어렵지 않게 두 작품 사이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실의에 빠진 인물에 불과했던 '천봉우'가「잉여인간」의 주인공 서만기의 면모를 갖추고『저마다 가슴 속에』에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218) 강상중, 앞의 책, 101-175면 참조.
219) 장-자크 루소, 박호성 역,『사회계약론』, 책세상, 2015, 22면.
220) 장-자크 루소, 박아르마 역,『고백1』, 책세상, 2015, 85면.
221) 손창섭,『삼부녀』, 예옥, 2010, 139면.

연작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손창섭의 문제의식이 비교적 일관된 흐름 속에서 서사의 지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작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가정을 가진 「잉여인간」의 서만기와 달리, 『저마다 가슴 속에』에서 천봉우는 결혼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손창섭은 이와 같은 인물설정의 전환을 통해 남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치정의 문제를 보다 다채롭게 구성해나갈 수 있게 된다.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남녀 관계의 치정문제를 본격화하면서 사회와 세태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이 교묘하게 겹쳐지는 국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료 교사들을 기회주의자 내지는 무사주의자라며 하나같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봉우는 한미경 선생에게만큼은 동료의 정을 느끼고 인간적인 교류를 지속해나간다. 정직하고 강직한 인물 천봉우에게 매료된 한미경 선생은 그가 자신을 여자로 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청혼하는 순정을 보여주는데, 천봉우는 한 선생뿐만 아니라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급의 제자 안성태의 모친으로부터 구애를 받게 된다. 더욱이 성태의 모친 우신애 여사는 매혹적인 자태로 천봉우에게 다가서며 그에게 많은 혼란을 안겨주기도 한다.

한편 천봉우 스스로는 성태와 마찬가지로 제자로 가르치고 있는 박인택의 누나이자 20살 전후 미모의 처녀 박인숙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222] 이 정도만 해도 상황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지방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 가르쳤던 소녀 명순까지 가세하면서 천봉우의 번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간다. 기묘하게 얽혀 들어가는 이들의 관계는 소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요술주머니'와도 같을 지경이다.

> 복잡하고 우울한 사념에 잠겨, 묵묵히 걷고 있는 천선생 머리 속에 남녀 관계란 요술 주머니라고 한, 한 선생의 말이 자꾸만 새롭게 떠올랐다.
>
> 「정말 그럴지두 몰라.」
>
> 그는 입 밖에까지 내서 그렇게 중얼거리었다.
>
> 철이 들어 갈수록 천선생은 사람 살기가 왜 이다지도 어려운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 살기 어려움이란 것이 결국은 대인 관계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한 대인 관계 가운데서도 특히 남녀 관계처럼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 없음을 그도 요즘 와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것이다.[223]

---

222) 『저마다 가슴 속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성연구』가 세 명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이성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연구』 후기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언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作品에서는 평범한 젊은 세 여성이, 結婚을 통해서 異性이란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시켜 나가는 科程을 그려 보려 하였다." 「사족」, 『이성연구』, 동방서원. 1967. 360면.

초기소설부터 꾸준히 문제시되었고 「신의 희작」에서 비로소 하나의 가능성으로까지 표상된 남녀 사이의 정이라는 문제는 '통속의 벽'에 갇힌 천봉우에게 쉽사리 자신의 진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복잡 미묘함이야말로 손창섭이 줄기차게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신의 희작」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것이 비록 실마리를 내비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손창섭은 섣불리 이상적인 가정 내지는 남녀 관계를 그려나가는 것으로 소설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창섭은 왜 남녀 관계를 안정된 상태로 그려내지 않고 치열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가 서사를 통해 완성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작법 상의 근본적인 태도 때문일 것이다.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집단의 논리에 쉽게 빠져들 위험이 있고, 공동체라는 것은 원리상 "어떤 집단적 일체 속에서의 융합의 완성"[224]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이상적인 이성관계를 그려내는 순간 그것을 완성해야만 한다는 당위의 문제로 수렴되기 쉬운 것이다. 손창섭의 신문연재소설이 '막장드라마'[225]라고 불릴 정도로 치열한 치정문제의 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블랑쇼는 바타유가 시험하려 했던 "연인들의 진정한 세계"라는 개념을 검토하면서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소설 『죽음을 가져오는 병』을 분석한 바 있다. 그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계약적 관계가 결국엔 완성할 수 없는 상태의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블랑쇼에 따르면 이성이라는 타자는 "양도할 수 없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보존함으로써 애초에 '나'라는 주체에게 포섭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결과 감정과 사랑의 '결핍'이 바로 죽음을, 즉 한 사람은 이유 없이 걸려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걸려 있지 않은 치명적인 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뒤라스의 소설 제목 '죽음을 가져오는 병'이 지니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226]

결국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병과 싸우고 있으며, 이성이 서로에게 드러내는 반대칭성에 대한 탐색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때 블랑쇼는 레비나스를 참조하면서 이성이 드러내는 이러한 반대칭성을 윤리적 관계와 결부시키고 있다. 이성이라는 타자는 외부를 사유하도록 단수적 존재인 개인을 종용하

---

223) 손창섭, 『통속의 벽』, 『손창섭 대표작전집』4, 예문관, 1970, 190면.
224) 모리스 블랑쇼, 앞의 책, 20면.
225) 방민호, 「'막장드라마'의 이면-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 『삼부녀』, 예옥, 2010.
2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랑쇼가 '연인들의 공동체'를 일종의 결핍의 원리, 즉 '부정의 공동체'라는 주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사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흔들기 때문이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분출하는 정념은 곧 “서로를 서로에게 낯선 자로 만드는 내밀성 가운데”에서, 각자 스스로에게 낯선 자가 되는 기이한 상황으로 이끌리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무한한 주목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타자와의 관계를 사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랑의 시도는 분명히 공동체적인 주제이다.[227]

『저마다 가슴 속에』의 주인공 천봉우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그는 한민경 선생, 우신애 여사, 박인숙 세 여자와 복잡한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도 끝내 안주처를 찾아내지 못한다. 우리는 소설에서 사랑의 정념 가운데 방황하는 그의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소설의 종장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인관관계에 대한 매듭도 확인할 수 없다. 다사다난했던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부임지인 청주로 이탈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종장의 제목이 ‘불안한 출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손창섭이 구가한 전략은 서사에 대한 ‘매듭짓기’에 있다기보다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한발이라도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작업,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마다 가슴 속에』에서 천봉우는 그가 대면하고 있는 ‘이성이라는 타자’들과 각각 접속하게 됨으로써 다종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문제들을 두루 성찰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손창섭이 신문연재활동을 통해 지지부진한 ‘세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배태되어 있는 것이지도 모른다.

3.2. 이성이라는 타자로의 투신과 공동체의 실험

‘이성연구’라는 문제는 손창섭에게 있어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핵심적인 통행로로 기능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성이라는 타자’에 대한 성찰만큼 손창섭에게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실체를 마주하게 하는 방법도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멀다고 생각했던 것의 인접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연속된 것의 힘(puissance)을 복원하고 수립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성이라는 ‘접속구’[228]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229] 손창섭이 ‘이성연구’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27) 모리스 블랑쇼, 「연인들의 공동체」, 앞의 책, 50~90면 참조.
228)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51면 참조.
229) 『저마다 가슴 속에』의 경우를 들자면 천봉우는 한미경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계의 타락상을, 우미애 여사를 통해서는 성풍속의 문제를, 고정란을 통해서는 정치 및 경제계의 타락상을, 박인숙을 통해서는 가난이라는 문제를, 최명순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성문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이 “한없이 재밌는 동물”[230]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녀가 이를 직시하지 않는 이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결혼의 차질’[231]을 불러일으킬 수밖에는 없고, 결국엔 그들이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잉여적 존재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232] 그것이 비록 좌절을 담보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시도’ 속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작업은 언제나 가능하다.[233]

『이성연구』의 주인공 신미는 “간단히 촌탁할 수 없는 남자”[234] 배현구와 결혼하게 되면서부터 한국 사회의 온갖 욕망들과 접속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소년사업’이란 명분 아래 ‘팔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배현구는 자신의 사회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신미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종횡무진 활동하며 그녀를 불안에 떨게 만든다. 그는 자선사업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도 인간관계의 약점을 잡아 기부를 강요하는 등 자신의 성공과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다.

그리고 배현구는 이성 관계에 있어 신미의 친구인 계숙과 선주 등의 여자들과 접촉해나가는 한편, 신미의 동생인 신애와 모종의 관계를 형성해나갈 정도로 무분별함을 보여준다. 이때 배현구가 자신의 탕아적 기질을 사업상의 이용가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장면은 성공과 방탕함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던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통찰을 드러낸다.[235]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화 타락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창가를 경유하게 된다. 이렇듯 온갖 이성들과 엮이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 당대 한국의 사회적 타락상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230) 손창섭, 『이성연구』, 동방서원, 1967, 275면.

231) 손창섭, 『부부』, 《동아일보》, 1962.10.24.

232) 손창섭, 『결혼의 의미』, 《영남일보》, 1964.3.16.

233) ‘연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블랑쇼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두 인간 존재들은 오직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 (어떤 점에서는 찬양하기 위해) 결합되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실패는 그들의 완벽한 결합이 가져온 진실이며,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항상 이루어지는 이 결합에서의 착각을 드러낸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동체와 같은 어떤 것을 형성하는가?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근접성은 모든 종류의 공허의 내밀성을 거쳐 나온 것이다. 그에 따라 그들은 근접해 잇지만 ‘융합과 연합을 위한’ 공모에서 비롯되는 희극을 연출하지 않는다. 감옥과도 같은 공동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동의 하에 조직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사랑의 시도이다. 이 무(無)를 위한 사랑의 시도 자체.” 모리스 블랑쇼,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79-80면.

234) 손창섭, 『이성연구』, 동방서원, 1967, 103면.

235) “현재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나 여성의 이용 가치가 남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자를 잘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에나 쉽사리 출세도 성공도 못하는 거요. 가까운 예로, 자유당 시절의 정객이나 사업가들을 봐요. 그때 출세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호주댁이나 마리아를 움직인 사람들이오. 그런 권력 있는 여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숱한 무명 여성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돼요.” 손창섭, 위의 글, 193면.

“낯가죽이 두껍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조국, 대한민국의 사회적 욕망들을 신미에게 투사하는 인물로 기능하고 있다.

> 뱃심 좋고 유들유들 헌건 나의 천성인 동시에 이상이니까 헐수 있소. 반평생을 그런 태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요. 낯가죽이 두껍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유갑스럽게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요. 봐요. 정계나 관계 사업에는 말 할 것도 없이, 교육계, 종교계, 예술계 할 것 없이 제노라고 주척대는 사람들은 모두 낯가죽이 쇠가죽 같은 친구들 뿐요.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선. 나의 이 낯가죽 철학 앞에, 차 인성씨나 박 박사가 돈을 내놓고야 배길 테니, 여러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요. 자 어서 옷 갈아 입고 같이 나갑시다.[236]

배현구라는 인간상에 집약된 허와 실은 단연 ‘팔기사업회’의 문제로 수렴된다. 소설 속에서 팔기사업회 필사의 사업으로 그려진 간척공사 완수를 기념한 준공식은 “불우한 소년들의 수 년간에 걸친 피땀 어린 노력”[237]이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미사여구가 적혀있는 초청장의 허례허식 그 이상이 될 수 없다.[238] 이 준공식에서 ‘초대받지 못한 손님’ 신미는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배현구의 위선을 성토하고 나서게 되는데, 이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주길 요구했던 그의 영토화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거친 어조로 쏟아져 나오는 신미의 항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목석’일 수는 없다고 강렬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239] 이는 일찍이 손창섭이 문단에 나설 때 “차라리 나는 목석이노라”[240]라고 선언했던 문제의식의 연장이자 차별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236) 위의 글, 181면.

237) 위의 글, 223면.

238) 소설 속에서 팔기사업회 간척공사 준공식의 초청장은 결혼 청첩장을 떠오르게 할만치 고급지에 인쇄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배현구는 앞서 신미와 결혼식 문제를 상의할 때 정·관·재계 인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노라면서 격에 맞지 않는 초호화판 결혼식을 제안한 바 있다. 손창섭의 등단작 「공휴일」에서 화두로 떠오른 ‘청첩장’과 단편소설 「저어」에서 문제시되었던 결혼식-혹은 온갖 의례들-의 허례허식은 장편소설에서 이성과의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손창섭이 장편소설들 속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청사진을 그려보는 작업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의례’는 인간과 사회적 관계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손창섭에게 있어 항구적인 소재로 되풀이된다. 즉 그것은 손창섭에게 일정한 표현의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239) “주인은 엄숙한 낯으로 나는 나무랐읍니다. 『미치게도 됐죠. 미치게도 됐단 말예요. 이런 꼴을 당하고도 미치지 않는다면, 난 뭐 목석이랍디까? 목석인줄 아느냐 말요! 날 이렇게 미치게 만든게 누구요? 도대체 누구야!』” 손창섭, 앞의 글, 223면.

그의 문학 여정은 우리가 결국 인간인 이상 이런저런 관계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아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소외'를 외면할 수 없다는 성토에 할애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소박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손창섭은 이성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성연구』 속에서 신미의 친구 선주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순결을 빼앗겼다는 약점으로 인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착취되어온 선주는 그녀의 과거를 허물할 수 없다 말하는 남자 권호진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표면 아래 잠겨 있던 사정을 모두 들은 권호진은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선주보다도 오히려 더 분개하기에 이른다. 그는 의부와 직접 담판을 지음으로써 소설 속 최고의 '이성연구가' 계숙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정도의 남자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후 선주와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해나감으로써 신미의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단락에서 손창섭이 한국 사회에서 '성'의 문제가 담론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이에 부단히 반발해온 작가였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241] 결론적으로 말해 손창섭은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한국의 성 담론과 대결하며 그 사이에 균열을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점쳐지는 온갖 사회적 그물망 사이에서 잠재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엿보는 작업을 신문연재활동을 통해 본격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장편소설에서 줄곧 화두로 떠오른 주제인 '순결주의'를 들 수가 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순결'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장애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도적으로 인간관계를 펼쳐나갈 수 없게 만드는 구속의 담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바로 이러한 '순결'과 '결혼'의 문제에 관해 손창섭이 전면적인 돌파를 시도한 장편소설 『결혼의 의미』가 주목되는 이유다. 재미있는 점은 『이성연구』에 등장하는 신미와 선주라는 두 인물의 욕망이 『결혼의 의미』의 주인공 장인옥에게서 일정한 통접을 이루고 있다

240) 손창섭, 「인간에의 배신」, 『문예』, 1953.7.

241)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참조. 부연하자면 손창섭은 한국 사회가 형성한 성 담론 속에서 주로 피해를 받는 쪽이 '여성'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성연구』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은 여자』, 『결혼의 의미』 속에 등장하는 여성화자 주인공들의 시선을 쫓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작품들은 결혼을 향해가는 여성(『결혼의 의미』), 이혼을 향해가는 여성(『이성연구』), 이혼한 여성(『내 이름은 여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각기 한국 사회 성 담론의 문제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직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연재 1화의 삽화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순결과 결혼을 강요당하는 '올드미스' 인옥은 지은 죄도 없이 사회적 질타 앞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다.

<그림 2>

242)

우리는 앞서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으로서의 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원죄'라는 관념을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짚어

242) 남녀의 '원죄'와 '선악과'라는 심상이 『이성연구』에서 배현구의 입을 통해 한 차례 환기된 적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소설에서 배현구는 신미의 육체를 탐닉하기 위해 그녀를 설득하면서 인간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남녀 결합의 원시상태'에 있을 것이라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현구가 한국의 적나라한 사회적 욕망을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인물인 이상 그의 논리는 궤변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그가 신미에게 육체관계만을 요구할 뿐, 정신적 부부관계에 있어선 소홀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정신과 육체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 인간적 관계란 손창섭에게 있어 심각한 오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든 '원죄'라는 것이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로 주어지고 있음을 손창섭은 예민하게 캐치했던 것 같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본시 벌거벗고 살았대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던 것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부터 자신들의 알몸이 부끄러워져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지 않소.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은 몸을 가리지 않고는 못살아 온거요. 그러나 선악의 혼란과 죄의식의 구렁 속에서 인간으로하여금 한 가닥 숨을 돌릴 수 있게 신의 허락해 준 것이 결혼이라는 남녀 결합의 원시상태가 아닐까. 내겐 그럴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아담과 이브로 돌아가야 해요. 그것을 부끄러워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의 불구자이기 때문일거요." 손창섭, 『이성연구』, 동방서원, 1967, 60-61면.

나간 바 있다. 손창섭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 담론이 죄 없는 여성 '인옥'을 옥죄어 들어가는 상황들을 냉철하게 그려나간다. '결혼'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인옥의 과정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그녀는 진실로 두 가지 의미에서 죄가 없는데, 첫째로 그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사회적 당위의 풍토 때문에 '올드미스'를 향한 선입견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결혼과 관련된 담론이 여성의 '순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인옥의 육체적 순결여부를 문제시하고 압박한다는 것이다.[243] 인옥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하다 하혈을 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던 탓에 산부인과에서 '처녀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오빠와 이봉근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순결증명' 여부는 그것이 여성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옥을 가차 없이 몰아세운다.

우리는 이때 인옥의 혼담을 주선한 둘째 오빠와, 결혼의 조건으로 '순결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봉근 사이에서 어떤 악마적인 계약과 연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삼류대학의 강사로 나가고 있는 둘째 오빠는 일류대학의 이사장을 백부로 두고 있는 이봉근과 동생을 결혼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출세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혼담을 주선하며 거침없이 "난 인간의 본질을 논하자는 게 아냐.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말하는 거지"[244]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오빠의 음험한 내막을 모르고 선자리에 나선 인옥 또한 '올드미스'라는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하며 "선을 본다는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을 출품한 것"[245]이라는 막연한 한탄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한편 둘째 오빠를 통해 만나게 된 이봉근은 인옥에게 적극적으로 혼담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결혼에 대한 조건으로 산부인과에서 발부한 '처녀증명'을 요구하고 나서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즉 인간 개개인을 평가하는 문제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연쇄 속에서 찾으려는 것이 둘째 오빠와 이봉근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인옥의 다음과 같은 탄식은 한국 사회의 성 담론체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 그렇다면 딴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 어머니가 말씀 하셨듯이 남자란 족속은 대개가 결혼 전에 이미 된짓 안된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서도, 여자에게

---

243) "부부중심의 가족이 성생활을 독점하고, 성생활을 철저하게 생식기능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 성을 중심으로 침묵이 감돈다. 부부는 합법적이고 생식력이 있기 때문에 지배자처럼 군림한다. 즉, 본보기로 인정받고, 규범을 돋보이게 하고, 진실을 보유하고, 비밀 엄수를 전제로 말할 권리를 갖는다." 미셸 푸코, 앞의 책, 10면.

244) 손창섭, 『결혼의 의미』, 《영남일보》, 1964.2.17.

245) 위의 글, 1964.2.21.

만은 아내로 맞이할 여자에게만은 완전무결한 순결을 요구하는 악습이 있다.

이것은 단연 배격하고 시정해야 할 남자만의 폐풍이요, 독선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중략)

도대체가 처녀성이란 대체 무엇이냐. 총각성이란 말은 없는데 처녀성이란 말만이 지나치게 여성을 묶어 두어야 할 이유는 어디있느냐.[246]

'결혼'을 향해 가는 서사 속에서 인옥은 끊임없이 외부적 조건들로 인해 흔들리고 인간적 소외를 경험한다. 그렇지만 그녀가 소설 속에서 인종하는 태도만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이성연구』에서 선주가 권호진과 만나면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해나갔던 것처럼, 『결혼의 의미』에서 인옥은 최동철의 소개로 수의사 한주림과 만나게 되면서 결혼에 안착하게 된다.[247] 한주림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인옥을 향한 위로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타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결혼문제에 있어서 처녀성 즉 동정 여부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인순결보다는 정신적인순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달리 말하면 저는 정숙하지 못한 처녀 보다는 정숙한 비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젊은 여자에게 대해 마치 굶주린 이리떼 같은 남성이 득실거리는 요즘 세상에서 한 여자가 육체적인 순결을 보전하기란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남자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서 혹은 무지한폭력에 눌려서 정조를 잃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런여자의 경우 비록 육체적으로는 순결을잃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고민과 회한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욱 빛나고 고귀한 정신적 순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수있을거얘요.

(중략)

도대체가 동정인육체가 외부 혹은 상대방에 끼치는 작용으로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겁니까. 육체자체로서의 기능은 꼭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다만 행동적으로 판이한 결과를 나타낼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순결 여부에만 달려있는 겁니다.[248]

---

246) 위의 글, 1964.3.7.

247) 두 사람의 결혼식은 고리타분한 풍습에 속박되지 않고 소박하게 치러진다. "다행히 그이나 나나 고리타분하게 궁합이니 사주니 택일이니 하는 구습에 구애받지 않고 애초부터 그런 무의미한 인습을 일체 도외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혼담진행도 빨랐거니와", "우리는 결혼식을 치르는데 있어서도 쓸데없는 풍습이나 형식에 속박 받지 말고 우리의 주관대로 간편하게 거행하기로 완전 합의를 보았다." 위의 글, 1964.24.

248) 위의 글, 1964.6.21.

손창섭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주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신과 육체 모두에서 순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육체적 향락주의자들의 신경과민에서 오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과 결혼 이후 한주림과 인옥 사이에 우여곡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를 쌓아가게 된다. 그리고 인옥은 한주림과 함께 귀농한 뒤 그토록 원하던 첫 아이를 순산하면서 가정공동체의 꿈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손창섭은 그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면서도 정신적, 육체적 조화를 결국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바로 그것이 손창섭이 확인코자 했던 '결혼의 의미'인 것이다.

그의 작품들 중 '결혼'한 이성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형상화한 소설로 『부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저마다 가슴 속에』와 『결혼의 의미』가 결혼을 향해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부부』는 결혼한 남자 차성일의 입장에서 아내와 벌이는 애정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이성 사이의 정신과 육체적 관계의 조화라는 공통적인 테마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결혼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결혼을 한 지 십년이 넘는데다가 두 아이를 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차성일의 아내는 육체적 관계를 극렬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내 인숙은 부부의 성생활이라는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서 청교도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부부』 속 차성일이라는 인물이 손창섭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혈연관계 같은 애정"을 느낄 정도로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249] 평양에서 만주를 거쳐 일본에 갔다가 해방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온 삶의 여정은 손창섭과 차성일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다. 『부부』의 서술자 차성일은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다.

> 이러한 나의 성장기의 불행한 이야기만도 자세히 적자면 한이 없고, 그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소설이 한 책 될지 모르지만, 이 글에서는 그 얘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전개될 아내와 나와의 해괴한 관계-해괴하다고 하면 좀 지나칠지 모르나 아뭏든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독자가 필요한 정도로 우선 이만큼 적어놓고 넘어가기로 하겠읍니다.[250]

---

249) 대담의 한 소제목에서 "『부부』의 차성일은 내 분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창섭, 「나는 왜 신문 소설을 쓰는가」, 『세대』, 1963. 참조.

위의 서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적어도 이 시기에 들에는 손창섭이 자신의 과거사를 되묻는 작업을 소설의 과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차성일의 입을 통해 다소간의 너스레를 떨고는 있으나 소설 밖의 작가 손창섭은 『낙서족』과 「신의 희작」을 통해 이미 불행한 성장기를 소설로 풀어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에서 차성일이 표명하고 있는 바는 전작들과는 달리 부부관계라는 '이성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성'으로부터 촉발된 '타자를 향한 관심'이야말로 손창섭 소설의 일관된 주제의식이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차성일과 작가를 겹쳐보는 작업을 통 주목하게 되는 특징을 하나 더 들 수 있다. 그것은 작중 서술자로 자리하고 있는 차성일이 독자에게 존칭을 쓰면서 직접 말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성일의 언급은 매우 특이한 것이라 주목할 여지가 있다.

> 물론 솔직히 말한다면 여기에는 지나치게 아내에게 도취되어 있는 나의 심리적인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도대체 그런 기가 막힌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독자 가운데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아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251]

이와 같은 서술을 서사에 녹아든 전제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를 작가의 교묘한 편집으로 받아들일 여지 또한 충분하다. 손창섭은 여기서 분명히 독자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면에서든 서술자 차성일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소설의 핵심 주제를 넌지시 던져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소설 속 등장인물인 차성일이 독자에게 아내를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독자와 소설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어떠한 단절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곧 아내 서인숙이라는 여성을 재현의 대상 정도로 머물지 않게 만든다는 뜻으로도 통한다.

『부부』에서 서인숙은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완벽한 육체미를 지닌 이성으로 군림하고 있다. 즉 그녀는 표상에 머물지 않는다. 손창섭은 서인숙을 서술할 때 독자가 소설 속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상상하기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이 어떤 절대적인 잉여를 남겨두고 있다. 말하자면 독자는 차성일과 함께 불가능성을 넘어서려는 시도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서인숙은 블랑쇼의 표현을 빌려 '절대적 여

250) 손창섭, 『부부』, 《동아일보》, 1962.7.8.
251) 위의 글, 1962.8.30.

성'[252]이라고 칭해도 좋을 만큼 차성일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인간은 목석일 수 없다는 토로는 남성의 몫이 된다. 부부의 다면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내에게 차성일은 "건강한 남자가 목석"[253]처럼 지내는 것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차성일은 아내가 표방하고 있는 "정신적인 신성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는 슬로간"에 대해 "통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억압된 감정이 누적되어 부지불식간에 그 통제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일 것이라며 탄식하고 있다.[254] 그는 아내에게 부부생활이 덮어놓고 이상적이기만 하면 어쩌냐는 식으로 항변해보지만 아내는 일방적으로 성일의 견해를 묵살한다. 아내 인숙은 결국 정신과 육체 면에서 도달할 수 없는 잉여분을 끊임없이 차성일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성이라는 이름의 타자로 남는 것이다.

이때 표상 불가능할 정도의 것으로 그려지는 인숙의 육체미는 '반대칭성의 원리'를 생각하게 만든다.[255] 『부부』에서 아내 서인숙은 정신주의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철두철미한 육체를 지닌 여자로 그려지고 있다. 서인숙에게 깃든 이 두 성질은 그 자체로 이미 반대칭적이지만, 그것이 남편 차성일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반대칭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담론의 차원에서 봤을 때 부부의 성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속박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부부』에서의 손창섭은 부부의 성이라는 문제를 '이성이라는 타자'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256] 이때 불거지는 반대칭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인 주제가 된다.[257]

『부부』에서 손창섭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남녀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사항으로 치부되기 십상인 성생활마저 재성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한 부부가 일종의 '계약'에 근거한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252) 모리스 블랑쇼, 앞의 책, 81면.
253) 손창섭, 앞의 글, 1962.7.4.
254) 손창섭, 『부부』, 《동아일보》, 1962.7.14.
255) "우리는 더 나아가 상호성이란 개념 자체를 의문에 부친다. 만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이상 동일자와 동일자의 〔상호적〕 관계가 아니게 되고, 타자가 자신의 자기 동일성과 그를 고려하는 자와의 반대칭성dissymétrie으로 인해 어디에도 귀속시킬 수 없는 자로 나타난다면, 완전히 다른 관계가 주어질 것이다. 또한 이 완전히 다른 관계는 우리가 거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을 완전히 다른 사회를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사유에서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것이 존재했든지 아니든지 결국 항상 공동체의 부재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자문하면서 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회를 '공동체'라고 부를 것이다." 모리스 블랑쇼, 앞의 책, 14면.
256) 미셸 푸코, 앞의 책, 47면.
257) 모리스 블랑쇼, 앞의 책, 65-68면 참조.

문제적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 계약은 갱신을 담보로 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성관계의 완성으로 여기기 쉬운 사회적 계약 '결혼'이라는 관념은 사실, 개개의 연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미시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손창섭이 그 관계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령 소설 중반에 인숙은 아래와 같이 차성일에게 지독히 불리한 부부조약을 강요하고 있다.

> 받아보니 <부부 조약>이라는 표지 밑에,
> 一, 우리 부부는 월 일회 이상 동침치 않으며 지나친 동작을 엄금한다.
> 二, 우리 부부는 합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애무하지 못한다.
> 三, 우리 부부는 피차의 사회활동(봉사회 관계등)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 四, 우리 부부는 사업상의 이성 교제에 대하여 오해 또는 간섭하지 않는다.
> 五, 우리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의 모욕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별칙=이상 한 조목이라도 위반한 쪽은 위반당한 쪽의 어떤 요구에도 무조건 순응해야 하며 불연이면 아내 또는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58]

위의 경우에서처럼 인숙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이면 아래 새로운 조약을 강요하게 된 데에는 사실 인숙의 봉사회 활동과 관련된 사건이 배경에 깔려있다. 차성일은 서인숙이 처녀 시절부터 흠모했던 한 박사와 '보건계몽봉사회'에서 긴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지인들의 종용에 휘둘려 아내에게 폭력이라는 '제처권'을 행사하고만 것이다. 소설 속에서 제처권이란 사회적으로 누구나 고려하고 있는, 필요한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정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금만 뜯어본다면 제처권이라는 것이 사실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적 성 담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자연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처권이 그것에 위배된다는 점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한 쪽에 집중된 권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이성관 속에서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부부』에서 차성일을 통해 행사된 제처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희극적 상황들은 부부관계를 권력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조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당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성 중심적 부부관에 대한 회의로 받아들여진다.

결혼은 통념상 사회적으로 합의된 계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부부』를 통해 손창섭은 부부 사이의 기묘한 계약관계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문제시하고

258) 손창섭, 앞의 글, 1962.9.1.

시험하려 든다. 루소가 “언제나 최초의 계약으로 돌아가야 한다”[259]고 강조했듯이 가족관계를 근원적인 측면에서부터 새롭게 회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손창섭은 어쩌면 이 소설을 통해 ‘계약’의 본래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 담론이 배태한 사회적 문제들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억압하는 도덕률을 허무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푸코가 지적한 것처럼 ‘성’은 법이라는 담론, 그리고 권력의 표상과 함께 작용한다. 성을 담보로 벌어지는 도덕률이라는 규범의 심급, 권력관계는 인간인 이상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도처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단연 압도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다.[260] 우리는 이에 대한 인식들을 손창섭의 소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성관계의 양상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푸코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쉼 없이 도주함으로써, 매순간 국지적으로 가능한 저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261]

>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권력에 대해 결코 외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중략) 권력관계는 다수의 저항지점에 따라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저항지점은 권력관계에서 반대자, 표적, 버팀목, 공략해야 할 돌출부의 구실을 한다. 이러한 저항지점은 권력망의 도처에 있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커다란 거부의 ‘한’장소, 가령 반항의 정신, 모든 반란의 중신, 순수한 혁명가의 권위는 없다. (중략) 정의상 이러한 저항은 전략적 권력관계의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262]

전작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손창섭은 애초부터 자신의 작품을 통해 권력과 대립되는 혁명적 욕망을 꿈꾸지 않는다.[263] 그는 대신 자신의 소설을 통한 대결을 멈추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그러한 대결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균열들을

---

259) 장-자크 루소, 앞의 책, 30면.

260) 권력관계는 다른 유형의 관계(경제 과정, 지인(知人) 관계, 육체 관계)에 대해 외재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관계에 내재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분할, 불평등, 불균형의 직접적 결과이고, 역으로 이러한 차별화의 내부적 조건이고, 단순한 금지나 추방의 역할에 힘입어 상부구조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적 역할을 맡는다. 미셸 푸코, 앞의 책, 110면.

261) 사사키 아타루, 안천 역, 『야전과 영원: 푸코·라캉·르장드르』, 자음과모음, 2015, 626면.

262) 미셸 푸코, 앞의 책, 111-112면.

263) 권력과 대립되는, 권력의 기계와 대립되는 혁명적 욕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39면.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고, 그 문제의식을 작품 활동을 통해 확장해나간 작가임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손창섭은 사회적 담론과 대항하기 위해 그것에 뛰어듦으로써,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수행해나간 작가라고 할 수 있다.[264]

그는 더 나아가 사회적 압제의 원리들, 담론들에 선행하는 조건들로부터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색하기에 이른다.[265]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회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약관계를 창출해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탈주와 전도인 이상 매우 괴기해보일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손창섭이 선택한 방법이란 자신의 글쓰기를 더욱 치열한 치정의 장 속에 위치시킴으로서 한국 사회의 도덕률을 허무는 시도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인습적인 가족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임과 동시에 잠재적이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에 대한 단초를 『인간교실』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266] 『인간교실』의 주인공 주인갑은 6.10 화폐개혁 이후부터 옆방을 세놓기 시작한다.[267] 주인갑이 옆방을 세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주인공이 경제와 사회 문제로 말미암아 군색한 형편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사정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때 그를 군색한 형편으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불가능성의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인갑은 "4.19 이후에는 엉뚱하게도 혁신적인 어느 정당에 가담했다가 5.16 때 서리를 맞은 이래, 한결같이 자숙해 오면서

---

264) 요컨대 성에 대해 행사되는 아주 미세한 온갖 폭력, 성을 수상쩍은 듯이 바라보는 시선, 성의 가능한 인식이 말소되는 모든 은닉 장소를 광범위한 권력의 독특한 형태와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에 관한 담론의 풍부한 생산을 다양하고 유동적인 권력관계의 장(場)속에 잠그는 것이 중요하다. 미셸 푸코, 앞의 책, 114면.

265) 가속화된 선분의 연쇄를 끊어버리는 공식적 혁명을 고려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러한 가속화를 더 진전시킬 문학 기계에 대해, '악마적 세력들'이 아마리카주의·파시즘·관료주의로 확실히 자리잡기 전에 그것을 피하게 해줄 문학 기계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거울보다는 앞질러 가는 시계가 되는 것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42면.

266)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인간교실』의 서사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소설의 모티프가 이전에 라디오방송을 통해 발표했던 극히 짧은 분량의 방송소설 「비둘기 한쌍」에서 연원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손창섭, 「비둘기 한쌍」, 『방송』, 1958.4. 참조.

267) 참고할 만한 사실은 손창섭이 화폐개혁이 실행되던 당시 연재하고 있던 『부부』에서도 이 문제를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당대의 사회·정치문제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서사 속에 그것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인간교실』에서 화폐개혁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는 방민호, 「몰래카메라의 의미-1960년대 한국 사회 만화경으로 들여다보기」, 『인간교실』, 예옥, 2008, 467-469면 참조.

실직 상태"[268]에 내몰렸던 것이다. 이를테면 정치 비판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사회활동을 억제당한 것이다.

그는 방을 내놓은 이후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들과 엮이면서 온갖 치정파문에 휩싸이게 된다.[269] 무능력하고 방탕한 남편의 폭행과 회포를 견디지 못하고 젊은 정부와 달아난 황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270] 그는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매력을 풍기는 황 여인에게 매료되어 그녀와 가까이 지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인갑은 황 여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정주부가 젊은 정부와 치정극을 벌였다고 해서 덮어 놓고 그녀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변호를 하고 나선다.

여기에서 약간의 비약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갑은 황 여인을 변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남편은 만판으로 오입질을 일삼아도 아내만은 끝까지 부도를 지켜야 한다"[271]는 식의 사회적 관념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정부와 애정도피를 자행하게 된 황 여인의 선택은 한국 사회와 정치 문제를 준거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와 가정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그의 논리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선명하게 제시된다.

> 완전 독재의 공포정치 하에서는 무력한 국민이란 사리의 여하를 막론하고 꼼짝할 수 없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다. 도대체 황 여인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황 여인과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주인갑 씨 자신 여자로서 황 여인의 처지에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할 때 씨는 황 여인에게 동정 이상의 친근감과 애정조차 느끼는 것이다.[272]

표면적으로 이 장면은 황 여인에 대한 주인갑 개인의 변호 내지는 그녀의 환심

---

268) 손창섭, 『인간교실』, 《경향신문》, 1963.4.22.

269) 단적으로 셋방에 들어온 여대생 윤명주와 조선영은 셋방에서 매춘을 단행할 정도이다. 그녀들은 사회적 명사들만 골라잡아 매춘을 단행하면서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돈을 갈취하려 든다. 주인갑은 의도치 않게 이들 때문에 사회적 명사들과 직접 엮이기도 하는 등 사회적 타락상을 생활 현장 속에서 맞이하기에 이른다.

270) 참고할 만한 사실은 손창섭이 화폐개혁이 실행되던 당시 연재하고 있던 『부부』에서도 이 문제를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당대의 사회·정치문제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서사 속에 그것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인간교실』에서 화폐개혁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는 방민호, 「몰래카메라의 의미-1960년대 한국 사회 만화경으로 들여다보기」, 『인간교실』, 예옥, 2008, 467-469면 참조.

271) 손창섭, 『인간교실』, 《경향신문》, 1963.7.29.

272) 위의 글.

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 독재의 공포정치라는 당대의 문제를 대담하게 소설 속에서 녹여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남녀의 치정 문제는 그들을 정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회구속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갑의 '방탕론'은 대담하게도 "남편들이 계집질을 했으면 마누라들의 서방질을 묵인해"[273]야 할 것 아니냐는 식의 성토로까지 이어진다. 같은 연재분에서 주인갑은 "지아비 부 자의 부도는 어디 두고, 며느리 부 자의 부도만을 내세우"고 있느냐며 한국 사회 윤리잣대의 편향성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런 세태를 "소위 남성 측의 그리고 독선과 위선자들의 에고이즘"이라고 힐난하고 있다.[274]

분명 주인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들은 '순결'에 대한 다른 작품들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교실』에서 인간의 관계성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고민이 새로운 방법상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주인갑의 목소리를 인용한 연재분은 '방탕론'이라는 장에 포섭되어 있는데, 이 장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주인갑은 '이성 간의 부분 계약'이나 '절제 있는 건전한 방탕'을 내세우고 있을 정도이다. 그는 더욱이 "이상적인 방탕은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유익"함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는 그것이 "깨끗한 파인플레이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275]

『인간교실』이 복합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온갖 사회·정치·경제·치정 문제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손창섭이 비교적 명랑한 분위기로 이 소설을 마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방탕론' 속에서 손창섭은 이성이라는 타자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가능성과 단서를 확인했고, 그것을 소설의 말미에 은연중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란 것은 물론 사회적 구속 원리들 앞에 위치시킬 수 있는 '페어플레이'라는 이름 아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주제가 손창섭이 한국 사회의 치정 문제를 다룬 마지막 신문연재작 『삼부녀』에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예컨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부녀』 속 한 구절은 『인간교실』과 큰 격차가 없는 서술을 보여주

---

273) 위의 글, 1963.8.9.

274) 위의 글, 1963.8.9. 이와 같은 주인갑의 인식은 황 여인 이후 셋방에 들어와 그곳에서 매춘사업을 벌이는 윤명주를 변호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 "육체를 파는 사람보다 오히려 정신을, 즉 의리나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것들이 더 한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정치가에도 교육자에도 종교가나 사업가에도 우글우글하잖아요? 그러고서도 소위 명사요, 인물예요? 온 기가 막혀서. 그렇지만 미스 윤은 그들의 희생물이 된 끝에 몸을 팔망정 아직 정신을 팔아먹은 적은 없거든요." 손창섭, 『인간교실』, 《경향신문》, 1963.7.16.

275) 위의 글, 1963.8.15.

고 있다.

> 인구 씨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완고하거나 엄격한 편이 아니다. 도리어 아내의 탈선을 책할 자격을 갖춘 남편이 세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면서, 남편족과 동등한 선에서의 아내족의 개방을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276]

이처럼 도일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장편소설에서 손창섭은 서사의 중요한 전제로 방탕론을 깔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강인구는 인용한 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바람기가 다분한 아내 영실에게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가령 영실이 장녀 보경을 임신했을 때 강인구는 그녀에게 속아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영실과 결혼하게 되는데, 강인구는 뒤에 보경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아내를 크게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보경을 친딸처럼 기르기도 한다. "결백한 남편만이 아내의 부정을 탓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277]고 말하는 강인구의 논리에는 분명 주인갑의 그림자가 짙게 채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손창섭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도덕상의 방법 '방탕론'이 무절제한 남녀관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교실』에서 절제된 방탕, 페어플레이를 통한 방탕을 제안했듯이 『삼부녀』에서 방탕론이란 지켜야할 정도가 있으며 언제나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예컨대 인구의 아내 영실은 무절제한 방탕을 일삼았던 탓에 강인구와 이혼하기에 이른다. 영실은 자신의 동생, 즉 인구의 처제인 영애의 남편과 간통하는 탈선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에 관해 강인구는 "바람을 피우는 데도 한계가 있고 외도에도 모럴이 있는 것"[278]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즉 손창섭에게 있어 자유로운 이성관계가 곧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실은 이혼한 뒤에도 강인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을 지속적으로 안겨준다. 그녀는 강인구와의 재결합을 원한다는 명목 아래 접근해 인구와 두 딸 사이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강인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의 해산이라는 해결책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 이 상태대로 질질 끌어가게 되면 서로 부당한 자극과 피로와 불만불신만

276) 손창섭, 『삼부녀』, 예옥, 2010, 67면.
277) 위의 글, 165면.
278) 위의 글, 123면.

을 더해주게 되며 보연이 같은 선의의 가족에게 억울한 피해만을 끼치게 할 뿐이다. 그럴 바에는 결연히 가정을 해산해버리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한집에 모여 삶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을 때는 비록 부부요 부자요 형제라 할지라도 모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279]

이것은 이전까지 연재소설을 통해 남녀 사이의 애정문제와 가정의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치열하게 서사화했던 손창섭의 논조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소 길지도 모르지만 앞서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루소의 '도덕상의 대원칙'에 관한 서술을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애정 표시를 했지만 나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그리 크게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애정과 미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런 행동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심사숙고해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성찰 덕분에 건전한 마음을 지니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도덕상의 대원칙을 얻었는데, 그것은 실생활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무와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 타인의 불행에서 우리의 행복을 얻어내는 상황을 피하라는 것이다. (중략)

이 원칙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비록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 나의 모든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나는 이 원칙들 중 하나로 인해 대중들에게, 특히 내 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별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중략)

내 생각으로는 바로 이것이 훌륭한 철학이며 인간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철학이다.[280]

어머니를 일찍 여읜 루소는 청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재혼한 아버지가 부자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된다. 『사회계약론』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의무에서 벗어난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에서 벗어난 아버지는 서로 똑같이 독립하게 된다."[281]라는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경험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의무와 이익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자신의 행복을 취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비록 가정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해야만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손창섭은 『삼부녀』에서 강인구를 통해 의무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

279) 위의 글, 129면.
280) 장-자크 루소, 박아르마 역, 『고백1』, 책세상, 2015, 85면.
281) 장-자크 루소, 박호성 역, 『사회계약론』, 책세상, 2015, 22면.

운 인간관계를 찾아 나서게 만든다. 이는 곧 가족관계를 이탈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을 향해 나가고 있는 태도라고 할만하다. 결론적으로 강인구는 안경희라는 이성과 마주함으로써 자신만의 건강한 방탕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강인구가 이혼한 뒤 홀로 늙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한 친구 계명호는 처녀장가를 들라면서 멋진 여대생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계명호의 말에 따르면 여대생은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정식부부 사이처럼 한 남자에게 정절을 지켜준다고 한다. 딸들에게 점잖은 아버지이고 싶어 그동안 여자와의 관계를 꺼려온 강인구였지만 계명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계 사장의 주선으로 안경희와 만나 계약연애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강인구와 만난 안경희는 "① 교제 기간, ② 데이트 횟수와 장소, ③ 외면상의 호칭과 태도, ④ 연락 방법, ⑤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문제를 상의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때 강인구는 안경희의 처지를 존중해 연애관계를 이타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부』에서 차성일의 아내 인숙이 자신의 일방적인 견해만으로 '부부조약'을 체결해 청교도적인 이상주의로 이성관계를 규정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강인구와 안경희 사이에 합의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 교제 기간은 오늘부터 육 개월로 한다. 단 기한 만효 후 쌍방에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육 개월 연장된다. 이, 데이트 횟수는 주 일 회로 한다. 삼, 교제 기간 중 남자는 여자에게 매달 사만 원씩의 생활비를 선불하고, 별도로 학교의 등록금을 부담한다. 이상 틀림없죠?」
> 「틀림없음!」
> 인구 씨도 일부러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하고 나서,
> 「도장이라고 찍을까?」
> 「그러실 필요까진 없어요. 신사협정이니까요.」
> 경희도 웃으면서 수첩을 간수했다.[282]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삼부녀』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보았을 때 지탄받아 마땅해 보이는 원조교제라는 관계를 '신사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법적제도 내지는 사회제도의 관계망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구두로 진행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견해를 반대쪽에서 수긍해야 하는 폭력적인 관계로 그려지지 않는다.

---

282) 손창섭, 앞의 소설, 93면.

이는 전작에서 끈질기게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계약'[283]의 본래적인 의미를 돌이켜보게 만든다. 강인구와 안경희의 '신사협정'은 분명 계약의 일종이지만 국가나 민족이라는 관념, 혹은 사회·정치·경제의 제문제들이 강요하는 구속의 원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성욕을 인간이 지닌 자연적이고도 기초적인 욕구라고 할 때 손창섭은 그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관계망이 강요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관계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삼부녀』에서 손창섭은 남녀 사이에 가능한 새로운 합의과정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284]

더 나아가 계약연애가 곧 계약가족으로 발전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소설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부부 관계의 파탄과 부녀 사이의 갈라섬이라는 파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녀 보경은 아내 영실의 편을 들며 그녀 집으로 가출해버렸고, 차녀 보연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치정파문의 실체를 알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친척집으로 떠나버린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소설은 분명 가정의 붕괴를 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창섭은 『삼부녀』에서 강인구와 여대생 안경희, 친구의 유언에 따라 수양딸처럼 거두어들인 경미까지 세 사람이 뭉친 가정적 풍경을 긍정어린 시선 아래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제목 『삼부녀』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결속된 인구, 보경, 보연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필연적 관계도 없었던 인구, 경희, 경미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친부녀 사이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아끼며 화목하게 같이 산다. 1970년 2월 25일 강인구 안경희 김경미 (중략)
> 이런 장난 같은 짓이라도 그들에게는, 특히 경미에게는 새로운 삶의 자세

---

283) "계약contact은 그 자체와 다른 것을 가정한다." 계약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계약에 자신을 내어줄 것과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를 가정한다. 이 역학(力學)은 신뢰confiance를, 요컨대 타자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뢰는 함께 갖는 믿음foi이다. 즉 신뢰는 계약이 그 이념 자체와 계약의 유용성과 힘이라는 이념 내에서 미리 가정하고 있는 충실성fidélité 또는 신용fiduciarité이다. 계약이 미리 가정하고 있는 '다른 것'은 믿음의 질서 내에 있다. (중략) 내맡김fiance은 공동의 내맡김con-fiance인데, 왜냐하면 내맡김은 공-실존(共-實存)co-existence의 공(共)co-에 내맡김이기 때문이다. 또는 공은 공에 내맡김으로써만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공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정확히 이러한 신뢰confiance의 행위자체인 것이다.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마주한 공동체」, 『밝힐 수 없는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134면.

284) 한편 주인공 강인구와 원조교제 관계를 형성하게 된 여대생 경희의 입장을 통해 그녀가 이 기묘한 연애관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회가 그렇게 하도록 내몰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소설 속에서 부단히 강조된다. 어지러운 사회상은 꿈을 지니고 있는 한 여대생의 희망을 짓밟았고, 그녀는 강인구와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나의 돌파구로 마련하며 자신의 꿈에 한발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를 가누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구 씨에게도 경희에게도 다행한 일이었다. 남남끼리 맺어지는 가족적 유대감이란, 혈육 간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리하여 그들 계약가족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된 것이다.

친족 보경과 보연이 떠난 집에 경희와 경미가 들어오며 풍기는 가족적 분위기를 친부녀와 같은 장면이라고 소설 속에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계약 공동체에 관한 지극히 긍정정인 작가의 인식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있다.

> 시일이 흐름에 따라 강인구를 중심으로 한 안경희와 김경미의 유례없는 공동생활은 차츰 자리가 잡혀간다. 이들 세 사람의 계약가족은 단순히 혈통적이요 인습적이기만 했던 재래의 가족사에 도전하여, 적어도 새로운 가족제도의 가능성을 혹은 개연성을 제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략) 비록 연고 없는 남남끼리라도 뜻이 같으면 생사를 더불어 할 수 있는 공동운명체로 결속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인 것이다.[285]

『삼부녀』에서 그려지고 있는 공동운명체는 방탕론이라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담론적 체계들과 인간소외의 기제들에 저항하기 위해 이성이라는 타자들과 조응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치정 문제들 속으로 집요하게 파고듦으로써 가능했을 이러한 문학적 요로는 분명 공동체적인 주제가 일정한 계열을 형성하고 증식해간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손창섭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의 압제가 존재함을 발견했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담론 체계 안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작업을 문학 기계라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 잠재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가늠하게 만들어준다.[286]

1960년대에 창작된 신문연재소설 속 치정의 서사들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혈통적이고 인습적인 도덕률들을 허무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히 공동체적

---

285) 위의 글, 214면.

286) 고독하고 독신적인 만큼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기계, 탈주선을 그리는 이 기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라는, 아직 그 존재 조건이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개인적인 문제'라곤 없는 소수적인 문학의 현실적 조건으로 소급되는 표현 기계의 객관적 정의다. 사회적 신체 안에서 강렬도적 양의 생산, 계열들의 증식과 가속화, 독신자가 야기하는 다의적이고 집합적인 접속들, 이것 이외에 〔표현 기계에 대한〕 다른 정의는 없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67면.

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손창섭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매듭지으며 『삼부녀』를 내놓고 떠났다는 점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가 이성이라는 타자와 관계하면서 단초를 짚어갔던 새로운 공동운명체에 대한 가능성과 개연성의 마지막 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손창섭의 신문연재소설을 설명함에 있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는 것만 같다. 소설 분석이 치정 문제에 집중된 탓에 인간 소외와 그에 대한 해방이라는 문제의식이 돌출적으로 구성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직까지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이 한국 사회의 타락상과 충돌한 것 이상의 결과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성찰이 저변에 깔려있음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즉 그의 문학이 정치적인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 가슴 속에』 속 한 장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장편소설은 그가 남긴 작품들 중 정치적 비판의식이 가장 가감 없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마다 가슴 속에』의 주인공 선봉우 선생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상적 인간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잉여인간」의 주인공 치과의사 서만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저마다 가슴 속에』에서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면 천봉우 선생의 경우 서만기와는 달리 「잉여인간」의 비분강개형 인물 채익준을 떠올릴게 만들 정도로 행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정직하고 강직한 인품을 지닌 교사로 그려지고 있으며, 촌지를 거부한다거나 이전까지 학교 내에서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리들에 대항하며 교감과의 언쟁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손창섭은 천봉우의 입을 빌려 그와 대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모회' 사모님 족과 이 교감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당대의 사회나 정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천봉우는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세태들을 마주하며 그것을 개인의 비리나 일탈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치 문제 혹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옛 제자였던 명순이 서울에 상경해 사창가에서 몸을 판다는 것을 알았을 때 터져 나오는 봉우의 울분에서 잘 드러난다.

> 내가 왜 명순일 업신여겨. 명순이가 뭘 잘못했다구. 명순이가 나쁜 건 하나도 없어. 명순이 네가 왜 나빠. 널 이렇게 만든 세상과 어른들이 나쁜 거야. 사회제도가 정치가 나쁘단 말이다. 정치가니, 사회명사니, 교육자니, 목사니 하는 놈들이 죄다 나쁜 거야. 그놈들 주둥아리룬 이 세상을 혼자 바루잡구, 구해 낼 듯이 떠들어대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배때기만 채우려 못하는 짓이 없는 놈들 아냐. 그놈들이 나쁜 거다. 그놈들이 너나 여기 딴 색시들을 다 이렇게 만든 거다.[287]

『저마다 가슴 속에』의 연재가 시작된 시기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뒤였으며, 완결은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 정치적 비판의식을 소설을 통해 가감 없이 표출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다소 노골적인 태도로 정부와 정치계, 특히 여당을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소설 속에서 4.19 혁명 이후의 풍경이 지속적으로 삽화처럼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소설의 종장 「불안한 출발」에서 손창섭은 천봉우의 입을 빌려 3.15 부정선거를 폭력선거로 규정하고 날선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천봉우의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아동잡지 『새벗』을 통해 연재된 소년소설 『싸우는 아이』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 "사람은 자유다, 자유다."
> 그렇게 외치면서 집을 향하여 한길을 마라톤 선수처럼 뛰었읍니다.
> 그러한 찬수에게는 사월 혁명 때, 자유를 어쩌라고 막 외치며 용감하게 데모를 하던 대학생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 올랐고, 자기 자신도 갑자기 훌륭해 지는 것 같았읍니다.[288]

『싸우는 아이』의 주인공 찬수는 인구네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만 당하고 사는 영실을 안타까워하며 위의 장면처럼 "사람은 자유다"를 외치며 거리를 뛰어다닌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19 혁명의 분위기가 찬수의 의식 속에 짙게 채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소설을 겹쳐볼 때 1960년 혁명 이후의 손창섭이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치와 사회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저마다 가슴 속에』에서 천봉우가 사창가에 예속된 명순을 해방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듯이, 『싸우는 아이』 속 찬수는 부당한 대우에 처한 영실을 해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287) 손창섭, 『통속의 벽』, 『손창섭 대표작전집』4, 예문관, 1970. 19 117면. 한편 『저마다 가슴 속에』의 최명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난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창가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명순'이란 인물형은 취재를 통해 가능했다. "배설하듯 작품을 쓴다지만 가장 성실한 작품을 쓰는 작가이기도하다. 10여년전 모실문에 창녀를 모델로하는 연재소설을 쓰기위해 경찰서와 묵계하고 창녀촌에 며칠 들앉은일이있다. 이렇게 성실하게 취재해서 소설을 썼지만 아차「花代」에 착오가 생기고 말았지만." 손창섭, 「별난 人生 별난 作家 孫昌涉」, 『주간한국』, 1970.3.22. 참조.

288) 손창섭, 「싸우는 아이」, 『새벗』, 1961.3, 108면.

『저마다 가슴 속에』에 등장하는 천봉우의 경우처럼 노골적인 수준으로 정치와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장면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작품 뒤로 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정치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손창섭이 자신의 소설을 통해 이성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투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또한 이와 같은 배경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한국 사회에서 인간 해방이라는 길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탐구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며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해 뼈아픈 성찰과 나름의 해답을 구하고 있는 장편소설 『길』을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289] 우선 앞서 살펴본 두 편의 소설에서 부각된 문제는 『길』이라는 장편소설의 서사를 통해 한층 섬세하게 구축되고 있다. 돈을 벌어 성공하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주인공 최성칠의 바람은 소설 속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부패와 부정이 집약된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의 바람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손창섭이 최성칠이라는 소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바는 인간의 순수한 갈망이 쉽게 성취될 수 없게끔 만드는 한국의 타락한 현실에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하는 "『길』이라는 소설은 분명히 세태풍속의 실감나는 묘사라는 목적 이외의 좀 더 진지한 주제의식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290]

소설의 제목에서처럼 주인공은 서울에 상경하면서 다양한 삶의 길을 두루 거닐게 된다.[291] 이 소설의 제목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두루 살펴보는 여로형 소설로서의 의미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이 따라야할 '길'을 부단히 모색하는 과정 그 자체를 암시하고 있다. 충청남도 서천 장항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온 열여섯 살 소년 최성칠의 생활은 '성공이라는 길'에 관한 탐구로 자리매김해 있는 것이다. 현실 문제와 직접 부딪치기 전부터 성공을 열망하고 있는 최성칠의 막연한 태도는

---

289) 한편 손창섭은 1972년에 출판된 아동소설 선집 『싸우는 아이』 속 「머리말」을 통해 "그 동안 몇몇 잡지와 신문에 발표해 온 어린이 소설로 장편이 둘, 단편이 십여 편"되노라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장편소설 두 편이란 선집에 실린 『싸우는 아이』와 최성칠의 성장기를 그린 장편소설 『길』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손창섭, 『싸우는 아이』, 대한기독교서회, 1972, 3면.

290) 이동하, 「손창섭의 『길』에 대한 한 고찰』, 『작가연구』창간호, 1996, 107면.

291) 일본 니가타에는 손창섭 작가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무덤에 가면 석판에 오로지 '道'라는 글자 하나만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무덤주인의 정보를 가리키는 글귀는 단 한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다. 손도숙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무덤을 만들면서 생전 손창섭 작가가 가장 사랑한 글자를 이름 대신 새겨준 것이라고 한다. 유족의 이와 같은 발언을 고려했을 때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문제가 손창섭에게 있어 평생의 화두였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소설 속에서 아래와 같이 잘 요약되어 나타난다.

> 「너 정말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냐?」
> 「그러믄요. 세상에서 돈이 젤 아닙니까.」
> (중략) 그가 지금가지 듣고, 읽고, 생각해온 바에 의하면 사람이 성공하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첫째는 부자가 되는 길, 둘째는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것이 되어서 권세를 잡는 길, 셋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길이다.
> 이 중에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부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였다.[292]

소꿉친구인 봉순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취직하게 된 진옥여관에서부터, 자성공업사를 거쳐 화류계 여성들의 남자식모 노릇을 하고, 정치인 강인혁의 딸 강남주와 동거하게 된 성칠은 그녀와 헤어진 뒤에 과일 장수까지 시도하는 등 온갖 사회경험을 누적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여로는 성공을 향한 강한 열망을 지닌 최성칠에게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싱살을 낱낱이 체험하게 만든다. 어떤 면에서는 지리멸렬한 작업이 될 수 있으나 우선 서사의 줄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진옥여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최성칠은 당대 사회의 성의 문란함이라는 문제에 관해 성찰하게 된다. 여행을 위해 하루 묵어가는 것 정도로 여관을 생각했던 성칠은 떳떳하지 않은 남녀들의 관계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봄으로써 남녀관계에서 지켜야만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진옥여관 여주인을 바라보며 성공한 여성이라고 생각해 동경해 마지않던 애초의 존경심은 차차 회의로 변해간다. 이는 차관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진 강인혁 이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거물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작된 감정이 여주인과 강인혁 이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켜보게 되면서 곧 비판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점과, 여관 일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성칠은 곧 '자성공업사'라는 공장에 취직해 들어가게 된다. 여관에서 일하면 친하게 지내던 복덕방 부소장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지만 그곳은 기술을 배워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성칠의 다짐과는 거리가 먼 곳임이 곧 드러난다. 자성공업사의 사장은 엿장수에서 시작해 떳떳한 공업사와 함께 엄청난 현금을 보유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자성'이라는 의미가 무색

292) 손창섭, 『길』, 《동아일보》, 1968.8.29.

하도록 사장은 도둑지로가 다름없는 비열한 짓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임이 곧 밝혀진다. 당대 공업 발전의 한 단면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장과 정면충돌한 성칠은 결국 공장을 그만두게 된다. 공장을 떠난 직후 여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화류계 여성들과 동거하게 되면서 성칠은 구두닦이를 전전하게 되고 장사를 배워 성공하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에 이른다. 성의 문제에 관해 자유분방한 화류계 여성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성칠은 많은 유혹을 견뎌야만 한다. 그런데 화류계 여성들에게 육체적인 유혹을 견뎌내던 성칠은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강남주의 제안에 덜컥 새로운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강인혁 이사의 딸 남주의 계략에 본의 아니게 동참하게 되면서 성칠은 정치의 타락상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손창섭은 이를 통해 강자의 권력이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부정과 부패로 물들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최성칠은 진옥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강인혁 이사를 거대한 존재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딸 강남주와 동거하게 되면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분명 존경할 만한 위치에 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체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부정만을 드러낼 뿐이다. 강인혁 이사와 강남주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던 성칠은 결국 동거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른다. 화류계 여성의 집으로 돌아가 구두닦이를 전전하던 성칠은 봉순의 친척이 제안한 대로 대금업으로 돈을 벌어보기로 결심한다. 이때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등 경제 영역에 손을 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행로는 당대 사회 속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미비한 상거래의 한 단면을 들춰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서사의 줄기를 따라가면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길』은 각 장소를 배경으로 한 사회의 문제적 단면들을 비교적 차근차근 회의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옥여관의 타락상은 사회의 문학한 성생활에 관한 비판적 시선을, 자성공업사에서의 생활은 당대 주목받았던 공업계의 타락상을, 남주와의 동거 생활에서 정치의 타락상을 조목조목 짚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성칠은 서울에 상경할 때 품었던 성공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시골에서 상경한 한 소년을 통해 서울을 순회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여로를 통해 사회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성공적인 여로형 소설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93]

---

293) 이는 『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소설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접속함으로써 사회상을 마주하게 만드는 전략에서 한발 나아간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령 『아들들』을 예시로 보았을 때, 주인공 종수는 첫째 형을 통해 지독한 가난의 문제를, 둘째 형을 통해서는 물질지상주의라는 문제를, 셋째 형을 통해 관계에서의 출세주의를, 넷째 형을 통해서는 방탕한 치정문제 등을 마주하고 있다. 가족이

성칠의 여로가 사회문제들에 치중되어 있다고 해서 『길』이 탈출구조차 없는 암울한 전망만을 흩뿌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모친의 부고를 받고 귀향할 때 성칠은 스스로가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음을 느낀다. 주인공 성칠의 귀향은 실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나가던 도중 성공의 길을 짚어나간 것에 불과하며, 이미 온갖 실패의 여로 속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훌륭하게 성찰해내고 있다. 예컨대 서사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최성칠의 인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은사 정지수 선생, 강인혁 이사의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는 딸 강남주, 정부와 여당 및 사회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자신을 '욕당'이라 자청하는 신명약국 주인과의 만남 등은 최성칠이 성공에 관한 인식을 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신명약국 주인의 입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적게 소유한 자는 보다 적게 지배받는다"[294]와 같은 니체의 경구는 의미심장하다. 성칠의 서울 상경이 강이사가 점유하고 있는 권력이든, 진옥여관 여주인나 자성공업사 사장등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든, 덮어놓고 많이만 소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는 여정으로 종합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성칠의 인식은 사람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 한마디로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의 정의와 의미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것의 어려움과, 그것은 주위 환경과 심지어는 혈육과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투쟁이라는 것 등을 명확하게가 아니라 어렴풋이나마 성칠은 느낄 수가 있었다.
>
> 그러면 세속적인 이해를 초월하고서도 사람은 왜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자연 요구되었다.
>
> 성칠은 거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할 능력을 없었다. 그렇지만 사람은 개나 돼지가 아니니까, 참되고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야 하리라는 것만은 인식하고 있었다.
>
> 정지수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그 선생님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일이 있었다.
>
> 집도 없이 거지처럼 거다란 통 속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인이 하루는 등불을 켜 들고 대낮의 거리를 헤매었다는 것이다.
>
> 그러나 행인인가 아는 사람인가가,
>
> 「당신은 이런 대낮에 왜 등불을 켜 들고 돌아다니십니까?」
>
> 하고 물었더니, 「디오게네스」의 대답이 참으로 신기했다.

라는 관계 속에서 사회 문제의 양태들을 엿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94) 손창섭, 앞의 글, 1969.4.25.

「나는 사람을 찾아다니오!」
했다는 것이다.[295]

다소 길게 인용한 위와 같은 문장을 준거로 1960년대 말에 연재한 장편소설 『길』에서 손창섭에 의해 니체와 루소가 교묘하게 종합되고 있는 국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견유학파로 널리 알려져 있는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는 참다운 인간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인간불평등기원론』 결론 부분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체는 손창섭의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호출되는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의 경구가 『길』에서 재호명되고 있다는 점은 니체에 대한 경도가 초기의 인간관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루소의 사상 또한 손창섭의 인간학에 지속적인 화두의 대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디오게네스와 관련된 일화는 손창섭의 루소 독해가 꼼꼼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게 만든다.

> 인간을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끌어왔을 것임에 틀림없는 잊혀지고 잃어버린 행로를 이렇게 발견하고 추적하면, 또 내가 지금 나타낸 중간의 모든 상태와 함께 내가 생략했든가 아니면 나의 상상이 시사해 주지 않았던 모든 상태를 회복하면, 주의 깊은 독자라면 누구나 이 자연과 사회의 양쪽 상태를 떼어놓는 광대한 공간에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완만한 사물의 계기 속에서야말로, 독자는 철학자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도덕과 정치적인 무수한 문제의 해답을 볼 것이다. 또 어떤 시대의 인류는 다른 시대의 인류가 아니므로, 왜 디오게네스가 인간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느냐의 이유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인간을 디오게네스가 자기와 동시대의 인간 속에서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독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296]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 따르면 루소에게 있어 인간이 사회적 구속 내지는 불평등의 관계로 내몰리게 된 원인은 '사유', 즉 소유의 독점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297]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대사회에서 성공의 원리로 귀결되고 있는 소유의 문제에 관해 성찰하게 만든다. 루소는 사적소유로 인해 모든 악덕과 사회적 구속이 배태된 것으로 보고, 위에 인용한 것과 같이

295) 위의 글, 1968.11.08.
296) 장-자크 루소, 최석기 역,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동서문화사, 2007, 121면.
297) 다음과 같은 언급을 주목해볼 수 있다,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다" 선언하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찾아낸 최초의 사람은 정치사회(국가)의 창립자였다." 위의 책, 94면.

자연상태와 사회상태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것이다.

이제 최성칠이 서울에 상경한 뒤 숱한 여로를 경유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탐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확해진다. 성칠에게 서울이라는 공간은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것의 어려움과, 그것은 주위 환경과 심지어는 혈육과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투쟁이라는 것 등"을 인식하게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시 속에서는 시골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인간관계를 통해 당대 사회의 세태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는 없었다. 리처드 세넷은 도시 공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도시 공간을 교외화하고 기능적으로 구획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도시 사람들에게 자의적으로 강요된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적인 욕망, 고통과 무질서로부터 숨고 싶다는 욕망에 부응한 과정이다. '사람들'이 '체제'에 맞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하며, 사람들은 성장 과정의 두려움과 비겁함이라는 이 모든 어두운 요소들을 덮어줄 것을 요구한다. 더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과 체제는 서로 공모해서 익숙하게 아는 것과 틀에 박힌 삶에 대한 편안한 노예 상태를 확립한다.
>
> 더욱이 도시 생활에서 풍요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쉽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298]

리처드 세넷에게 있어 도시 사회는 순수한 공동체라는 신화를 근거로 존립해 있다. 그에게 있어 도시에 만연한 순수한 공동체란 다만 상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성년의 상태의 청년들은 질서 잡힌 도시계획 상의 이념 아래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편입시키면서 순수한 공동체라는 신화를 창출하는 것에 일조한다. 이때 세넷이 신화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경험해본 적 없는 미지의 공동체적 세계를 관념 속에서 미리 상상해 그려낸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매개는 도시 상활에서의 경험해본 적 없는 풍요이고, 이는 곧 다양한 형태로 욕망을 작동시킨다. 세넷의 관점에서 본다면 권력과 애욕, 돈과 출세 등등 인간이 짚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욕망의 길들 속에서 헤매고 있는 미성년의 상태야 말로 『길』에서의 주인공 성칠이 처한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상상을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순수한 공동체가 그를 올바른 성장상태로 이끌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은 결국 소유를 향한 갈망과 사회적 결속의 원리들이 판을 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적게 소유할수록 적게 지배당한다는 니체의 잠언이

---

298) 리처드 세넷, 유강은 역, 『무질서의 효용-개인의 정체성과 도시 생활』, 다시봄, 2014, 214면.

요청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참된 인간성을 모색하기 위해 디오게네스가 그랬던 것처럼 구속의 원리들로 점철된 사회 상태를 비판적으로 꼬집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곧 주인공 스스로 고민하고 있듯 그것은 "세속적인 이해를 초월하고도 사람은 왜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합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지수의 인간학과 루소의 인간학을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 사람다운 진짜 사람이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나쁜 생각을 품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은 책임 있게 열심히 하고, 나보다 약하고 불쌍한 사람은 힘 자라는 껏 도와주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일 것입니다.[299]

> 연민은 자연의 감정이며, 그것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애의 활동을 조절하고 종 전체의 상호보존에 협력한다. 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이 연민 때문이다. 또 자연 상태에 있어 법률, 풍속, 미덕을 대신하는 것도 이것이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 (중략) 한 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교육상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에 느끼는 혐오의 원인은 교묘한 논거 속에서보다도 이 자연의 감정 속에서 구해야 한다.[300]

정지수가 타인을 향한 연민의 감정을 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루소가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자연적 상태의 미덕에 대한 예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손창섭은 정지수 선생의 입을 빌려 사회적 관계 속에 침윤되지 않는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반대로 서울에서 치열하게 부정과 타락상을 만나게 만드는 것은 반대급부로 이러한 참된 인간상을 성찰하게끔 만들려 했던 손창섭의 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친의 부고라는 장치를 통해 소설의 결말에 성칠이 귀향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관점 아래 주목해볼 수 있다. 전작들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 서울에서부터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세태적 타락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01] 서울을 벗어나 귀

---

299) 손창섭, 앞의 글, 1968.11.09.
300) 장-자크 루소, 앞의 책, 58면.
301) 손창섭 소설에서 '귀농'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참고해볼 수 있

향하는 기차 안에서 성칠은 “진실한 의미에서의 출세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새로운 의문”[302]을 느끼고 있다. 『길』의 마지막 장 제목처럼 성칠이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이처럼 『길』의 결말은 각박한 현실의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작가의 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칠의 귀향이 비관적이지만 않은 이유는 서울에서의 여로가 이러한 성찰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귀향이 그 자체로 그가 마주해야 했던 세태 문제와의 결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길』이 여로형 소설임과 동시에 성장소설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술랑』과의 관련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바로 사는 길이란, 그리구 성공에의 길이란 험하구 먼 거야. 다만 어디 가서 무얼 하든 취미와 성격에 맞는 직업을 골라, 끈기있게 한 우물을 파. 지금의 나로선 네게 이 한 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303]와 신명약국 주인의 충고는 『봉술랑』의 주인공 백산화를 통해 완성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손창섭의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보여준 문학 여적이 ‘세속적인 이해를 초월한’ 인간관계의 모색에 있었던 것임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때 개개인을 구속하는 사회적 여건들을 철두철미하게 비판해나가는 작가의 일관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그 자체로 이미 공동체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향한 연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손창섭의 기본적인 테마는 새로운 공동체를 벼리고 있는 까닭이다. 이제 이 대목에서 지적할 것은 비록 1973년 도일을 전후로 한 긴 공백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의 문학적 여로가 아직 끝나지 않는다는 점뿐이다.[304]

을 것이다. 방민호, 「몰래카메라의 의미-1960년대 한국 사회 만화경으로 들여다보기」, 『인간교실』, 예옥, 2008, 475면. 이외에도 강유진, 앞의 글, 115면; 한명환, 「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1960년대 사회적 인습과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신문소설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4; 김문정,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젠더 표상-『부부』와 『인간교실』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65, 동악어문학회, 2015.8, 참조.

302) 손창섭, 앞의 글, 1969.5.22.

303) 위의 글, 1969.5.21.

304) 하나 내가 문학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수입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의 하나이긴 하나 그 밖에 偏頗的이고 조잡한 나의 재능과 기질이 직업작가로는 적합지 않기도 하고, 또 문학도 일종의 인기 직업인데, 나는 그런 인기놀음을 본시 달가와 하지 않는 탓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문학작업의 본령이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에 적응한 外道文學, 배설 문학인 이상, 혼자만의 작업만은 부단히 계속될 것입니다.(강조-인용자)** 손창섭, 「반역 문학인의 허세」, 『월간문학』, 1971.3, 300면.

4. 역사소설과 공동체의 시공간적 경계 넘어서기

4.1. 역사를 통해 환기하는 사회비판의식과 민족의 재사유

손창섭은 1970년 한국에서 『삼부녀』 연재를 끝낸 뒤 1973년이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리고 1976년이 되어 《한국일보》에 『유맹』 연재를 시작할 때까지 그의 작품 활동 중에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도일을 기점으로 작품 세계에 대한 분절을 상정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남긴 『유맹』과 『봉술랑』이 전 작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손창섭이 1971년 박태순에게 남긴 공개서한을 참고한다면 6년 동안 작품 발표가 없었을 뿐, 그 동안 스스로의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305]

도일을 전후로 한 긴 공백기를 이어줄 매개는 '역사'라는 주제 속에 있다. 손창섭은 초기 단편소설에서 주로 당대 한국 사회의 단상들을 다루다가 첫 장편소설 『낙서족』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바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후기의 단편 소설들에서도 이렇게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1968년에 발표된 「청사에 빛나리」를 비롯해 「환관」, 「흑야」 세 편의 단편소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역사적 배경을 선택하여 당대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손창섭의 단편 소설세계는 역사를 소재로 한 세 편의 작품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으며, 1977년에서부터 1978년까지 연재한 신문연재 장편이자 손창섭의 마지막 소설이기도 한 『봉술랑』 또한 원나라 치하 고려시대를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처럼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모두를 매듭짓는 '역사'라는 문맥은 손창섭의 후기 소설세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도일한 뒤 창작한 장편소설 『유맹』이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번갈아 오가면서 과거의 한 축을 통해 민족서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손창섭에게 역사가 지니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일한 뒤 발표한 몇 안 되는 산문 「史學家의 責任」을 주목해야만 한다.[306] 이 글을

305) 손창섭, 위의 글.
306) 지면을 빌어 이 글에서 처음 공개하고 있는 산문 「사학가의 책임」의 제공자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안서현임을 밝혀둔다.

살펴보면 손창섭이 역사와 자기 자신의 인연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작품 활동 후기에 집중했던 '역사'라는 문맥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이 글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상세히 파악되지 않았던 손창섭에 대한 이력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아래는「史學家의 責任」중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 이웃 섬나라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史書를 뒤적이는 일이 많아졌다. 주로 우리나라에 관한 역사서다. 그렇다고 격에 없이 무슨 연구심에서는 아니다. 나이 탓일 것이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故事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일까. 어쩌면 나날이 퇴색해가는 두뇌의 생리적 욕구에서인지도 모른다. 또는 外國 거주자의 민족적 고독감 같은 것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 하기는 역사와 인연이 아주 없는 자신도 아니다. 倭政末期의 지리.역사과 중등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겨우 자격증을 땄을뿐, 그만한 실력이 隨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엉터리 자격자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在北時는 국어 교사의 자격까지 겸하고 있었으므로 실지로 교편을 잡을 때는 역사보다 오히려 국어를 담당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307]

지금까지 손창섭이 교사 생활에 뛰어든 시기는 해방공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고향인 평양에서 영위한 이 짧은 이력은 그동안 구체적인 배경이나 정황이 알려진 바가 없다시피 했다. 공산 치하에서 체제비판적인 내용을 수업시간에 이야기했다가 도망치듯 월남한 일화 정도가 회고를 통해 알려졌을 뿐이다. 과연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교사라는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인지, 어떤 과목을 가르쳤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제자 중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 국어과목을 맡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손창섭 스스로 밝힌 내력은 아니었던 것이다.[308]

위에서 인용한 글에 따르면 손창섭은 '왜정 말기' 지리와 역사과 중등교사 자격을 갖게 되었노라 회고하고 있다. 그가 해방 직후 귀국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고학생으로 지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회고대로 중등교사 자격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취득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손창섭이 글을 쓰고 있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역사 계통에 대한

---

307) 손창섭,「史學家의 責任」,『자유』63, 자유사, 1977.8, 190면.
308) 정철훈, 앞의 책, 128면.

관심만은 잃지 않고 지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 동창생이 경영하는 교재위주의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거들 수 있었노라 자신의 이력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309]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산문에서 대국의 "간섭과 침략과 탄압"을 받아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에 개탄하면서, "상식화된 正史의 굵은 줄거리보다도 각 시대와 시대, 사건과 사건 사이에 깊숙이 묻혀버린 민간사, 생활사"에 자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기성과 상식이라는 의미에 끊임없이 반발해온 그의 소설세계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취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같은 취미를 가지게 된 도일 이전부터 이미 정사의 틀로 국한시킬 수 없는 영역을 대상으로 단편소설을 써왔다는 점이다.

손창섭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역사인식은 루소에게서도 동일한 차원 아래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루소는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 분명 역사가는 아니다. 그의 저작 중 가장 역사서술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간불평등기원론』조차도 루소 자신은 전체 사실, 곧 성서에 따른 사실을 버린 추측에 의한 정치사라고 했다. 그의 역사관은 연역적 논리와 직관 등을 통해 기술된다.[310] 정사를 구축하기 위한 방식의 역사관과는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에밀』의 역사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창섭의 역사인식과 비교할 만하다.

> 우리가 너무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망해가는 국민의 역사이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는 국민의 역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번영하고 있는 국민은, 역사가 그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행복하고 슬기롭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사람들은 가장 적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일만 알게 될 뿐이며, 좋은 일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일은 거의 없다. 악명 높은 악인들만 있을 뿐, 선량한 사람들은 잊혀지거나 우스꽝스러운 인간들로 치부된다. 이것이 역사가 철학과 마찬가지로 왜 끊임없이 인류를 중상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유이다.[311]

역사서술 속에서 굴욕의 역사만을 읽어 내려가는 손창섭의 심사와 매우 유사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역사를 소설이나 우화와 같은 선상에 놓고 문학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루소의 사고방식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테

309) 손창섭, 앞의 글, 190~191면.
310) 마에가와 테이지로, 「루소와 역사」, 박호성 편역, 『루소 사상의 이해』, 인간사랑, 2009, 41-43면 참조.
311) 장-자크 루소, 『에밀』, 동서문화사, 2007, 425면.

이지로의 지적과 같이 이와 같은 루소의 역사관은『에밀』에 집약되어 나타나게 되며, 독자들에게 역사가의 판단으로 채색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 유용성이 지니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 역사를 기술한 텍스트는 흥미롭고 교훈적이면서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역사야말로 루소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역사이다. 즉 정사를 벗어나 있으면서도 역사라는 주제를 소설로 제시하는 태도는 루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312]

손창섭이 동시대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시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해 소설을 쓴 작품은 1968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환관」이 처음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에 왕성하게 단편소설을 창작하던 손창섭은 1960년대부터는 장편소설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이후 1961년에 「육체추」를 발표한 뒤로 1965년에 발표한 「공포」를 제외한 단편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실질적으로 결별 상태에 있던 단편작품을 다시 창작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역사에 대한 작가의 관심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을지, 그의 작품세계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세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환관」은 '전기(前記)'·'할세(割勢)'·'후기(後記)'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편소설이다. 이 중에서 전기와 후기는 현재의 시점으로 다방에서 중년 남자 셋이 곰팡내 나는 고서 「엄인속전閹人俗傳」을 흥미롭게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설에서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장인 '할세'는 거세한 사람, 즉 '엄인'에 대한 역사적 픽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이 소설은 일종의 액자형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를 배경으로 역사적 문맥을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할세'의 첫구절이다.

> 고려 충선왕 2년에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 황실에 봉사하고 있던 환관 중 여럿을 군에 봉작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가 친족까지도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
>
>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원의 궁중에 봉직하고 있는 고려 출신의 閹人들은, 원래 貢女와 더불어 대부분이 고려에서 진공한 인물들로서, 원나라 황제의 친총을 입어 그 세도가 보통이 아니었다.[313]

『고려사』에 따르면 충렬왕의 환관 파견이 도화선이 되어 고려는 공녀와 더불어

312) 마에가와 테이지로, 앞의 글, 44-48면 참조.
313) 손창섭, 「환관」, 『신동아』41, 1968.1, 444면.

계속 환관을 바쳐야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히 충선왕대에 가장 많이 환관과 공녀를 바친 기록이 나타난다고 한다.[314] 또한 소설에서 환관들이 군에 봉작되었다고 언급한 것 또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관이 원에서 출세하게 되면 그 가족도 고려에서 관리가 되니 이를 부러워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형은 아우를 고자로 만드는 풍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의 열전 중에서도 '환자宦者'의 서문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315]

이때 지적해야 할 부분은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사화가 1969년에 발표한 단편 「흑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마지막 소설 『봉술랑』을 통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봉술랑』은 「환관」이라거나 「흑야」와 같은 단편소설과 달라서 방대한 분량을 통해 폭넓게 『고려사』를 참조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지점은 손창섭이 그것을 정사로 마주하고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산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사의 굵은 줄거리'와는 별개의 존재로 역사소설의 서사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그가 정사를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아래와 같은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역사책을 뒤적일 때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는 회의가 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해서다. 무릇 어떠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도 필자의 사상과 주관에 따라, 혹은 취재의 방법과 확실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그보다는 각도에 따라 판이한 표현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교통과 정보의 수단이 극도로 발달된 現今에 있어서도 그렇거늘 하물며 그러한 기능이 殆無했던 고대에 있어서

---

314) 이정신, 「원 간섭기 환관의 행적」, 『한국사학보』57, 고려사학회, 2014.11, 참조.

315) "제국공주(齊國公主)가 일찍이 원 세조(世祖)에게 〈환관〉 몇 명을 바쳤는데, 이들은 궁궐 내에서 시중드는 일과 궁궐의 재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매우 잘하였다. 〈원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사신으로 와서는 자기 집안사람들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시키고, 자기의 일족에게 관직을 주는 등 은총이 매우 후하였다. 이에 잔인하면서도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돌아가며 서로 이를 선망하고 따라 배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고환을 제거하고 형은 자기 동생의 고환을 제거하였다. 또한 난폭한 자는 조금이라도 분하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스스로 거세하였으므로,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거세한 무리들이 매우 많아졌다. 원의 정치가 점차 문란해지면서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이 무리들 중에 혹은 관직이 대사도(大司徒)에 이른 자도 있고 〈원에 있으면서〉 멀리 〈고려의〉 평장정사(平章政事)에 임명된 자도 있었다. (중략) 〈환관들이〉 포진하여 묘당(廟堂)에 앉아 국정을 의논하게 되었으니, 고려의 사직이 또한 오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환자전(宦者傳)」을 짓는다." 『고려사』, 권122, 열전 환자 서문 참조.

략.

가까운 예로서, 왜정하의 일본인 御用史家들이 우리 한국사를 얼마나 자기네 위주로 왜곡시켜 놓았었나를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대통령시절의 故李承晩 박사의 업적에 대해 당시의 여당인 자유당 직계의 史家가 어떻게 후세에 전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아도 그렇다.[316]

「환관」의 서사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환관」은 소설의 배경을 『고려사』 중에서도 환자 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엄인속전」, 즉 '할세'라는 장은 손창섭이 상상력을 발휘해 창작한 허구이다. 이는 『고려사』의 환자 열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을 준별했을 때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고서가 '속전俗傳'이라는 점 또한 정사를 벗어난 허구를 착안해 창작한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든다.

소설에서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정대진이란 자는 허황된 출세욕에 마음이 들뜬 나머지 아우 정대승에게 환관이 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정대승은 수술을 받은 뒤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고 정대진은 아우의 시체를 부여잡고 통곡하기에 이른다. 액자서술을 벗어난 '후기'에서 소략하게 다뤄지고 있는 서술에 의하면 정대진은 종국에 자신이 할세를 하고 원나라에 들어가 환관이 된다. 손창섭이 고려사의 한 구석에서 이런 희비극을 들춰내고 있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의 출세욕이나 권세욕" 따위를 트집 잡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후기'에 이르게 되면 가상의 고서 「엄인속전」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상평엔 흥미를 목적으로 '엄인'을 들춰보던 '전기'의 면모 대신 짙은 자조가 깔리게 된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서 개구리눈은 하기야, 세상 남자들 가운데 대통령은 고사하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자리만 준대두, 나두 나두 하고 주저없이 그걸 잘라버리고 나설 놈이 수두룩할걸. 새로운 견해를 표명했다. 매부리코도 고개를 주억거리고, 그럴지도 모르지, 최고의 교육도 받고 낫살이 지긋한 덧들이, 한자리 얻어 해보려고 염치도 체면도 없이 별의별 수단으로 집권층에 아첨하고 돌아가는 꼴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나봐.[317]

정사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손창섭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

316) 손창섭, 앞의 글, 191면.
317) 손창섭, 「환관」, 『신동아』41, 1968.1, 452면.

까. 역사적 정황을 소설을 통해 그대로 재현한다거나 참된 가치의 구현을 역사 속에서 찾는 태도 같은 것을 「환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낭시의 견해에 따르면 "의의로서의, 즉 역사에 대한 근대 사유의 시작에서 목적론적으로 방향지워진 기록으서의 역사"는 유예되거나 끝났다. 그것은 이미 맑스가 후기 헤겔의 사변적 사유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자율적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사유하는 방식은 서사성과 지식으로라기보다는 수행적 행위로서의 역사성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318] 이때 루소의 역사인식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에밀』에 나타나는 역사관은 아래와 같은 문장에 집약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게다가 역사에 묘사된 사건이 발생 당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역사가의 머릿속에서 모습이 변형되며, 그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주조된다. 그것은 역사가의 편견의 빛깔을 띤다.[319]

고귀한 역사를 이성의 힘으로 간취할 수 있다는 정사의 사고방식은 손창섭에게 회의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면모를 산문 「史學家의 責任」과 단편 「환관」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환관」과 멀지 않은 시기에 창작한 「청사에 빛나리」를 같은 문제의식 아래 살펴볼 수 있다. 이 역사단편에는 소설의 부제에서처럼 '계백의 처' 보미부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녀를 중심으로 계백과 그녀의 동생 황인성이라는 인물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보미부인의 시선을 통해 이전의 통념과는 달리 계백이라는 인물을 결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백은 정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실과 달리 백제가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근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손창섭이 『삼국사기』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소설이 끝나고 괄호 친 상태로 기술하고 있는 극히 짧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20] 계백과 처 사이에 벌어진 일화를 모티프로 삼고는 있으나 「청사에 빛나리」는 정사 『삼국사기』가 전해주고 있는 고귀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작품은 또한 초기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관찰자를 이중구도 중간

---

318) 장-뤽 낭시, 「유한한 역사」,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216~217면.
319) 장-자크 루소, 앞의 책, 425면.
320) "(그 뒤,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를 끌고 나가 황산벌에서 신라의 대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이어 백제가 패망하였음은 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다.)" 손창섭, 「청사에 빛나리」, 『월간중앙』2, 1968.5, 392면.

에 설정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비근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계백의 반대편에는 보미동생의 동생인 황인성이 있다. 손창섭은 그를 보미부인보다 훨씬 강경하고 과격한 행동성을 부여받은 인물로 그려 계백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백제를 비판하는 입장 중에서도 극단에 서있던 황인성은 결국 역모를 단행하다 죽기에 이른다

「청사에 빛나리」는 우선 정사에서 중요하게 포착되지 않던 존재인 계백의 처를 초점화하면서 사회상을 비판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계백의 처 보미부인을 계백과 황인성 사이의 관찰자로 설정해 양 쪽에 대한 균형을 잡고 두 사람 모두를 적절하게 꾸짖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로 관찰자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초기 소설의 이중구도와는 다른 점이기 때문이다.

간헐적으로나마 창작을 잊지 않았던 단편소설의 세계에서 포지션의 문제와 시대에 관한 의식을 알레고리의 형식을 통해 재요청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손창섭이 산문과 소설을 통해 환기하고 있는 것은 곧 "완성된 역사는 더 이상 역사적이지 않다."라는 낭시의 언명과 맞닿아 있으며, 완성된 주체를 상정하는 목적론적인 제반사항들에 대한 거부라는 의미에서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역사성'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 낭시는 기존의 주제 자체의 존재론적 구성이라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념 없는 본질을 통해 '이념 바깥에서' 사유하도록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공동의 어떤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단수적 개인이나 단순한 한 가족은 공동체에 속할 경우에만 역사적이 된다. 즉 공동의 사유란 곧 역사적 사유와 뗄 수 없는 관념인 것이다.[321]

손창섭이 정사라는 틀로부터 빗겨서며 "각 시대와 시대, 사건과 사건 사이에 깊숙이 묻혀버린 민간사, 생활사"[322]에서부터 자신의 역사소설을 창작하려 했던 면모를 이런 관점 아래 해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정사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폭력성과 같은 것을 경계하고 있던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묻혀버린 존재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손창섭은 정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현 사회의 단면을 대조함으로써 현실의 문제까지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환관」이나 「청사에 빛나리」와 같은 작품이 군부독재가 한창이던 1960년대 말

---

321) 장-뤽 낭시, 앞의 책, 215-249면 참조.
322) 손창섭, 「史學家의 責任」, 『자유』63, 자유사, 1977.8, 191면.

에 제출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종의 알레고리 수법 아래 해독할 여지가 역사 단편소설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발표한 역사단편소설 「흑야」의 경우 비록 그 층위는 다소간 다를지라도 「청사에 빛나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능한 장군이 한 나라를 패망의 길에 이르게 만든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에 대해 공종구는 손창섭이 「흑야」를 통해 고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무신정권을 그려냄으로써 당대의 군부정권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를 시도했다고 파악한 바 있다.[323] 「흑야」에서 손창섭은 무신들이 고려를 좌지우지하던 시기의 사회적 참혹상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시체고기를 사고팔 수밖에 없을 정도의 잔혹한 풍토로 이어지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전제는 아래와 같다.

> 고려의 십팔대 왕인 의종 말에서부터, 다음 왕인 명종 초의 세태는 어수선하고 살벌하기 이를 데 없었다.
>
>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들의 반란을 일으켜, 경조부박한 문신배를 대량 학살하고, 풍류 도락만을 일삼던 의종 왕을 거제도로 방출한 뒤, 왕제인 익양후 호를 신왕(명종)으로 세워 정권을 그들 무신들이 오로지하게 되더니, 이번에는 동지였던 무신간에 또다시 살육의 변을 겪게 된 것이다.[324]

'김부'라는 무관의 직속 부하인 대정 홍신표는 명령에 따라 김부의 친구인 한욱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구학을 찾아 나선다. 여기서 한욱은 무신들의 정치판에 휩쓸려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야밤을 타 시체를 찾던 홍신표는 시체가 버려지는 골짜기에서 어떤 중노인이 식도 같은 것을 들고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사람고기 장사를 위해 온 것임을 깨닫자 구열질을 느끼며 노인에게 호되게 꾸짖게 된다. 그런데 시체에서 사람고기를 썰어내던 중노인은 사람의 도리를 운운하며 질타하는 홍신표에게 사람의 도리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냐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람시체가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된 잔혹한 사회상은 기실 홍신표와 같은 무신들이 정치를 통해 횡포를 부린 결과로 배태된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 말미에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노인을 나무라던 홍신표가 가학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되는 아래의 장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 이놈아 어서 삼켜라. 어서 씹어 삼켜. 너같이 송장을 먹어주는 구더기 같은 백성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네놈 말대로, 생사람을 때려잡는 강자의 명분도 설 게 아니냐. 그러니 한 점도 남기지 말고 그 고깃덩일 깨끗이 먹

---

323) 공종구, 앞의 글, 참조.
324) 손창섭, 「흑야」, 『월간문학』13, 1969.11, 12면.

어치우란 말이다.[325]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 억지로 고기를 먹는 노인을 보며 알 수 없는 잔인한 쾌함을 느끼는 홍신표는 어느새 기득권을 지닌 무신의 한 사람으로 표상되어 나타난다. 단편이라는 분량과 인간모멸이라는 주제가 상통한다는 점에서 초기 단편소설의 그로테스크한 일면과 닿아 있는 것으로 주로 평가되어온 것과는 달리, 이 단편소설이 적시하고 있는 비판의식은 체제비판이라는 측면을 통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창섭은 1960년대에 주로 치정문제를 통해 공동체라는 문제를 풀어내자 했다. 한편 그것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사회비판적 태도를 역사라는 문맥을 통해 다소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역사를 통한 알레고리라는 문제를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소설을 쓴 당대의 군부정권의 독재와 혼란한 사회를 인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소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손창섭의 날선 정치비판의 목소리를 겹쳐볼 수 있다.

> 개헌안변칙통과가 그리 새삼스러운노릇은 아니다. 집권당이 또다시 물리적 힘을과시, 다수의횡포를저지른것이다. 개헌안은 국가사활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이슈인데도 집권당이 일반의 반대여론을전혀무시, 일방적으로 처리한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말살한처사다.[326]

1969년에 강행된 3선 개헌에 대한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군부정권에 대한 손창섭의 태도는 분명히 비판적인 쪽에 기울어 있다. 이에 관해 손창섭이 도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것 또한 “5.16 이후 군사정권 아래에서의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에 대한 환멸”[327]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수 있다. 4.19혁명 직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 정부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가하던 『저마다 가슴 속에』의 존재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장편소설들 중에서 5.16 이후 『저마다 가슴 속에』에서만큼 강렬한 체제비판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은 5.16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이 손창섭에게 일종의 억압으로 자리 잡은 것임을 반증한다. 소설과 역사를 접합하는 태도가 손창섭에게 있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속의 원리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일 한 뒤 연재된 장편소설 『유맹』에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엿보

---

325) 손창섭, 위의 소설, 19면.
326) 손창섭 외, 「그럴 수가 -날림改憲… 沈痛한休日아침의市民」, 『동아일보』, 1969.9.15.
327) 편집부, 「손창섭 연보」, 『작가연구』창간호, 새미, 1996.4, 162면.

인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다음은 『유맹』의 연재를 예고한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다.

> 재일동포문제를역사적으로고찰해서 이를 한국인의 눈으로 다루고싶습니다.
> 일본에왔으니 이곳에서밖에구할수없는재료를 마음껏 구사해서 소설을 써보고싶은 충동을 느꼈읍니다.
>
> 주로역사물을읽었읍니다. 특히 韓·日合邦전후의비화,關東大地震때의 참사와 동포생활실태등에관한 많은 자료를 덕택으로 뒤져보았읍니다.
>
> 中央公論社에서낸 『世界의歷史』와 日本학자가쓴韓國史를 읽고있읍니다. 인상에 남는 책으로는 솔제니친의 『收容所列島』라고 할까요….
> 孫씨는 收容所列島를 읽으면서 『日本의 지식인,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언론인들이 어떤감상을 가졌을까 궁금했읍니다.』 라고 강조했다.
> 『「百聞이不如一見」이라는 격언은 낡은교훈이아닙니다. 관념적인 지식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솔제니친은 가르쳐주고있어요.』[328]

여기에서 손창섭이 언급하고 있는 관동대지진에 대한 실태 등에 관한 자료는 창작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유맹』 연재분 177회에서부터 178회에 이르기까지 당시 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참상을 통계자료를 내세우며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329] 이때 눈길을 끄는 것은 작품을 위해 다양한 역사서를 참고하는 한편 당대 일본의 지식인과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읽힌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에서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가 번역되어 신조사를 통해 출판된 것은 1974년 12월의 일이기 때문에 그가 『유맹』을 창작하기 전에 『수용소군도』 참고했을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 위 지면에서 손창섭은 분명 『수용소열도』를 읽었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에서 작가가 언급한 당시의 일본에서의 솔제니친 열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주간아사히』는 신조사의 『수용소군도』 출판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것을 번역해 다섯 차례에 걸쳐 『수용소열도』라 연재한 적이 있다. 당시 솔제니친을 향한 지식인층의 관심은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주

---

328) 손창섭, 「豫告없이 度日 2년 孫昌涉과의 文學的 再會」, 『한국일보』, 1975.12.17.
329) 손창섭, 『유맹』, 1976.7.30.-31, 참조.

간아사히』가 솔제니친의 『수용소열도』에 집중한 긴급증간호를 1974년 3월 5일에 발간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실린 좌담회를 살펴보면 『주간아사히』가 연재한 『수용소열도』가 원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주간 아사히』의 원고가 "「뉴욕타임스」의 초역"일 뿐 아니라, 방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330]

문제는 손창섭이 일본의 지식인,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열광했던 『수용소열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솔제니친의 문학적 수기는 "기록적으로도 대단한 작품"이라는 『주간아사히』 좌담회 참가자의 상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겨 ㅇ아래 손창섭은 솔제니친으로부터 '백문이면 불여일견'이라는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331] 『유맹』의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 큰 축의 하나인 과거의 장면들 속에서 손창섭은 재일조선인이 국가동원체제 아래 강제로 노동현장에 차출된 인물들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이는 그의 작품이 『수용소군도』와 일정부분 영향관계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손창섭은 더 나아가 '관념적인 지식'을 모두 소거한 상태에서 출발해 '동포 생활 실태 등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폭넓게 참조하는 한편, 서사 속에 사태의 진실을 가감 없이 평가할 수 있는 서술자를 직조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유맹』은 '나'라는 관찰자를 전면에 내세워 최원복 노인과 고광일 노인의 가계와 그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소설들의 문제의식과 상통하고 있다. 이때 『유맹』에서 나타나는 관찰자가 '나'라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손창섭의 소설에서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는 사례는 의외로 흔치는 않으며, 등장하더라도 반드시 따로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한자까지 명시해 이름을 부여하는 태도는 손창섭이 지니고 있던 하나의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맹』에서 '나'는 특이하게도 이름을 끝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332]

『유맹』이 자전적 요소들을 차용하고 있으면서도 『낙서족』, 「신의 희작」과 대별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낙서족』의 경우 『유맹』과 마찬가지로 자전적 요소가 상당 부분 발견되지만 『낙서족」』의 서사는 오로지 '도현'이라는 가

330) 『週刊朝日』2890(緊急增刊), 1974.3.5, 32면 참조.
331) 손창섭, 「豫告없이 度日 2년 孫昌涉과의 文學的 再會」, 『한국일보』, 1975.12.17.
332) 필립 르죈 식으로 조명하자면 『유맹』은 비록 자서전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에 매우 가까운 '자전적 소설'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손창섭의 이름과 그의 전기는 작중 '나'를 강하게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낙서족」 내지는 「신의 희작」의 경우와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참조.

상의 인물이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낙서족』을 창작하는데 필요했던 시대적 격차가 20여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낙서족』의 관찰자 도현을 중심으로 상희와 노리코의 선명한 구분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편 1973년 12월 25일경 도일했다고 알려진 손창섭이 『유맹』의 연재를 시작한 것은 76년 1월 1일이었다. 『낙서족』을 창작하는데 20여년이라는 세월의 공백과 달리 『유맹』의 창작을 위해 마련된 공백은 2년여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시의 한 신문기사를 참고했을 때 손창섭은 1974년 경 "앞으로 계속 소설을 쓸 생각이며 우선 재일동포소설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을 쓸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333]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손창섭은 "집필속도가 형편없이 느리다"[334]며 소설을 창작하는 데 유달리 시간이 오래 걸림을 고통스럽게 토로하던 작가였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인 '나'를 통한 서사의 추동은 그에게 허용된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편소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60년대부터 독자와의 호흡에 초점을 맞춘 신문연재 창작태도가 도움이 됐을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때 『유맹』 속에서 '나'라는 서술자의 관계망을 추적해나가다 보면 초기부터 꾸준히 누적시켜온 일종의 관찰자라는 기질을 자연스럽게 결부시킬 수 있다. 거칠게는 최원복 노인과 고광일 노인 사이에서 '나'의 문제의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맹』의 큰 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일본과 한국의 매개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반도 내의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남한의 실정을 모두 알고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해 작중 서술자 '나'는 재일조선인 1세대와 2세대의 사이에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자기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이 작품이 작가가 도일한 뒤 한국으로 타전한 작품으로써 당대 재일한국인의 실태를 민족의 문제와 결부시켜 심도 있게 다룬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청사에 빛나리」에서 보미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문제에 관해 『유맹』의 회자 '나'는 가치평가의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낙서족」의 주인공 도현이 구체적 행동이나 가치판단을 형성하지 못한 채 서사에서 이탈해버리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차라리 같은 자전적 소설의 범주에서 자주 비교되는 「신의 희

333) 「도일한 작가 손창섭 씨 동경 교외서 은둔생활」, 『동아일보』, 1974.4.16.
334) 손창섭, 「나의 집필괴벽」, 『월간문학』, 1971.9, 참조.

작」의 서술자가 보여주고 있는 신랄한 사회비판의 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런 가치판단의 문제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역사라는 문맥에서 『유맹』을 조명했을 때, 현재와 과거를 치열하게 교차시켜나간 구성 자체가 눈에 띈다. 초반과 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개의 장을 제외하면 현재와 과거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는 장 구성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5] 손창섭이 당대에 일본에서 마주한 재일조선인의 문제는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하게 타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들의 전기를 수습해 한국에 전송하는 것이 손창섭에게는 절실한 당면과제로 다가섰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창섭은 『유맹』에서 현재의 장을 통해 외면 받고 있던 당대 재일조선인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장과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과거의 장을 통해 재일조선인 1세대 최원복의 과거 일대기를 통해 외면 받아온 민족의 수난사라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원복이 지니고 있는 본국에 대한 회귀열에 작중의 '나'가 열렬히 동조하는 것은 일면 최원복이라는 인물이 형상화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이라는 문제 자체를 한국에 전송하겠다는 작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맹』에 등장하는 최원복 노인은 손창섭이 일본에서 발견한 재일조선인의 전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원복 노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는 1910년대 일제의 침탈이 시작된 사실과 결부되어 서술되며, 손창섭은 최원복 노인의 수난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역사적 사실들을 동원해 근대의 참혹상들까지 실증의 차원에서 구성하려 한다. 이는 성실한 취재를 통해 소설을 써내려간 그의 창작태도를 고려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조할 부분은 「사학가의 책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의식이 『유맹』 속에서 재차 환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을 떠나올 때 나는 빈약한 장서 중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만 반 가량 골라서 꾸려갖고 왔었다. 그것은 대부분인 역사서요, 그 중 태반은 한국사에 관한 서적들이다.[336]"와 같은 '나'의 언급은 쉽게 지나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유맹』에서 초점화자 '나'

---

335) 장 구성에 관해 가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장	1	2	4	6	8	10	12	14	16	18	19	20
과거의 장		3	5	7	9	11	13	15	17			

336) 손창섭, 『유맹』, 『한국일보』, 1976.2.15.

를 통해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읽어야 할 저술들이라고 직접 언급되고 있는 역사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작가 손창섭의 역사인식에 관해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후기소설 세계를 역사관련 소설들로 짙게 채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저서는 이기백의 『한국사신론』, 김창순의 『북한15년사』, 유주현의 『조선총독부』 등이다.

이기백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사학계의 1세대로서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유맹』에서 주인공의 입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저작 『한국사신론』은 그에 따른 대표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960~70년대 사학계의 변화를 주도한 이기백의 논의들은 손창섭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우선 식민사관이라는 주류 거대담론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라는 지점에서 손창섭의 역사인식과 상통하는 면모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굴욕의 역사를 읽어낸다고 토로하는 손창섭이 그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주현의 『조선총독부』가 지니는 의미란 그것이 직접 언급되고 있는 소설 『유맹』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유주현의 『조선총독부』는 일제식민치하 당시의 구체적 통계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한 차례의 예를 살펴본 바와 같이 『유맹』에서 손창섭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소설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특징은 유주현의 『조선총독부』라는 원형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를 읽고 받은 감화 또한 한몫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맹』의 서술자 '나'가 『조선총독부』를 소설이라 칭하지 않고 역사적 성과물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학가의 책임」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소설가의 글쓰기 또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문필행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밀』의 역사관과 비교해볼 여지는 충분할 것이다.

> 청년에게 가장 좋지 못한 역사가는 판단을 내리는 역사가이다. 사실을 청년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인간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저자가 내린 판단이 끊임없이 그를 안내한다면 그는 타인의 눈으로 볼 뿐이다. 그리하여 그에게 타인의 눈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337]

---

337) 장-자크 루소, 앞의 책, 427면.

'나'가 보유하고 있다는 역사서들은 소설의 곳곳에서 새로운 문제로 환기된다. 애초에 최성기는 자신의 친구인 백도선에게 남한계열 저자의 역사책을 빌려줄 목적으로 '나'에게 역사책들을 빌려간다. 북한계열의 저서를 주로 읽었던 백도선이란 인물은 역사와 현실 관해 공정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최성기로 하여금 책을 빌려오도록 부탁했던 것이다. 『유맹』에서 '나'를 통해 권장되고, 백도선과 최성기를 통해 환기되고 있는 역사평가의 공정성이란 문제는 그가 『유맹』 연재를 마치고 발표한 산문에서도 똑같은 층위로 강조된 바 있다.

> 三百年.五百年後엔 어떻게 될까
>
> 극단적인 예로는 우리 남한의 사학자와 북한의 사학자가 집필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한국사를 상정해보면 더욱 확연한 일이다. 3백년 혹은 5백년 뒤의 우리 후손들이 이 상반된 내용의 국사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 그때도 사상적 계열에 따라 선택과 해석과 이해가 달라질 것인가. 더욱 비근한 예로는 우리와 同世代의 일본사학자들 가운데도 그 사상적 선입견에 따라 남.북한을 보는 눈과 판단이 전혀 상치되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후일 역사적 기록의 귀중한 자료가 될 신문기사(일본의)만해도 조작과 왜곡 투성이다.[338]

손창섭에게 있어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역사라는 문제를 떠올렸을 때 위의 산문에서 "세사만반에 걸쳐 문장을 직무로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眼力에는 一點의 흐림도 있어서는 안되리라"는 문제를 작가의 위치에서 되새긴 손창섭이다. 특히 역사와 현실문제를 판단하는 어려움이 소설 속에서 형상화 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역사서를 처음 언급한 4장에서 '2세 청년' 최원복 노인의 막내아들 최성기를 향한 '나'의 인식은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을 대하고 있는 가치평가의 문제로도 읽어낼 수 있다. "지금의 성기 군에게 필요한 것은 (중략) 자랑스러운 조국을 안겨주는 일뿐이다[339]"와 같은 '나'의 태도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한국인들과의 문제에서 외따로 떨어져 관조하지만은 않겠다는 일종의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런 면모는 '의식조사서'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나'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혹 재일한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덮어놓고 적대적인 태

338) 손창섭, 「사학가의 책임」, 『자유』63, 자유사, 1977.8, 191~192면.
339) 손창섭, 『유맹』, 『한국일보』, 1976.2.29.

도를 지니고 있을 때 그 인물이 그런 태도를 고치기를 희망하며 변을 다는듯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성기를 매개로 작중 '나'가 백도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역사를 인식하는 문제가 뜬금없이도 백도선 부부의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총련계열의 교육을 받은 백도선의 아내가 소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과서처럼 틀에 박힌 말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문제로 '나'와 논쟁을 벌이던 그녀는 백도선에게 빌려주기 위해 챙겨온 두 권의 책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백도선은 그녀의 뺨을 때리고 만다. 타협할 수 없는 사상의 문제로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14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듯 일본에서 한국인끼리의 결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남북의 문제를 믿을 수 없다는 백도선의 외침은 일본에서 한국의 독자에게 타전되고 있는 재일한국인의 애환으로 읽혀진다.

인물의 구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가가 현재의 장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사회적 문제의 다른 한 축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인물로 고광일을 들 수가 있다. 그는 다카무라 고이치로 개명해 일본으로 귀화한 고광일은 성공을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나'의 시선에 의해 최원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로 포착된다. 남한으로 이주하여 고국에 돌아가기를 일생의 원으로 그리며 살아가는 최원복과 달리 고광일이 남한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은 오로지 관광 호텔사업을 통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때뿐이다.

조선말을 극도로 기피하고 일본말로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고광일에게 돈 앞에서 민족의 문제는 일말의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성질로 그려진다. 이것은 북한의 사상에 경도된 한창일을 비웃으며 사상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를 얽어내고 있는 것는 민족이나 사상의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주색질과 속물근성에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퍼붓도록 만드는 고광일의 이런 행태들이 현재의 장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면, 과거의 장에서는 민족의 애환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인물로 최원복의 일대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때 현재의 장에서 재일한국인이 짊어져야 할 온갖 문제적인 국면들을 '나'의 직접적인 여로를 통해 비판적으로 구성해내고 있는 한편, 과거의 장에서 최원복의 회고를 통해 민족의 애환 문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그것을 들을 '나'라는 청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을 맞이한 직후 동경에서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의 단면까지를 관통하는 최원복의 기나긴 일대기는 일본에도 민족의 구성원의 삶이 존재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마주

한 인간군상을 『유맹』으로 풀어낸 뒤 손창섭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과학 論文이나, 신문 記事나, 공문서와는 달리, 文學作品의 생명이란 실로 이 군소리와 허튼소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군소리, 허튼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素朴한, 일견 서투른文章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은 野生的 인간인 나의 非文化性탓인지 모르나, 아뭏든 文學作品에 대한 나의 이러한 기본 자세가 「流氓」을 집필함에 있어서 一貫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가능한한, 전문가적인 냄새를 여기서는 지워보기에유념하였다.
>
> 첫째는 거짓말을 쓰지않기로 했다.
>
> 頂上을향해 독자의 관심을몰고 올라가는 피라밋型의 극적구성은 피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소위 立體的 구성에는 아무리 기교를 가해도 빈 구멍이 뻥뻥 뚫리게 마련이다.
>
> 둘째는 군소리의 意味와 맛을 최대한 살려보자는데 있었다. 한마디의 중요한 얘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열마디의 하찮은 군소리와 허튼소리를 지루하게 되풀이 함으로써, 人間 공통으 習癖에서 오는 一體感을 내보려한 것이다.
>
> 세째는 평범하고 단순하고 소박한文章을 써보고싶었다. 흔히들 유창한 문장이니, 세련된 문장을 高級文章으로착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매끄러운 文章이 얼마나 공허하고 無力한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기실은 그와같은 문장을 쓸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어설픈 文章으로 밀고 나가기로한 것이다.[340]

위와 같은 의미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을 뜻하는 소설의 제목과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 최원복이야말로 일본에서 작가가 발견해낸 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군소리의 의미'라는 테마는 초기 소설부터 지속되어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341] 어떤 면에서는 손창섭이 『유맹』을 통해 '민족'을 특권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장 훌륭히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지 모른다.[342]

소설 속에서 도모베 일대에서도 전형적인 '조선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최원

---

340) 손창섭, 「「說文學」의 眞實을 찾아서」, 『한국일보』, 1976.10.31.

341) 손창섭, 「미해결의 장 -군소리의 의미」, 『현대문학』, 1955.6.

342) 이 민중이라는 자기 만족적인 말에 의존한다는 데 이미 오류가 있다. 그 말을 어떤 특정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는 사회적 힘들의 집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어떠한 권력도 떠맡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민중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은 자신에게 떠맡겨졌을지도 모를 권력과 혼동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하는 민중이라는 의미에서, 따라서 민중의 무력(無力)impuissance의 선언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앞의 책, 53면.

복은 현재의 장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재일조선의 당대사회상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고광일 혹은 최원복 아래 일가와는 또한 구별되는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맹』은 과거부터 이미 일본이라는 공간에 우리 민족의 문제가, 그리고 그 구성원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소설이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듯 작가 손창섭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소설을 타전하듯 소설의 결말에서 주인공 최원복을 남한으로 전송하고 있다.

단순히 최원복 노인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것 정도로 『유맹』의 서사를 독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가는 특유의 관찰자적 기질을 발휘해 과거, 혹은 역사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최원복 노인의 서사를 현재의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교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이를 한 편의 소설을 직조해낸 작가의 편집이라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장을 통해 발휘되고 있는 '나'의 문제의식들은 소설을 통해 살아나는 작가의 강한 목소리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중 서술자가 최원복의 수난사를 전개하는 한편 현재의 장을 교차시키면서 올바른 역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창섭에게 역사 단편소설이 지니고 있는 알레고리라는 문맥은 당대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통로였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또한 「사학가의 책임」에서 손창섭은 온갖 종류의 글쓰기에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것이 곧 역사를 구성하는 것임 강조한다. 아래는 이와 비교해볼만한 『에밀』의 한 구절이다.

> 소설가는 자기 자신의 상상력에 더 몰두하며 역사가는 타인의 상상력에 더 의존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나는 이런 소설과 당신들의 역사 사이에 차이점을 별로 보지 못한다. 거기에 나는 다음의 사실을 덧붙일 것이다. 전자는 좋든 나쁘든 후자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목적을 계획하지만, 후자는 그런 것을 거의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343]

『유맹』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역사인식과 함께 당면한 재일조선인의 현실을 소설로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손창섭의 사정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루소의 항변과 접목시킬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이처럼 손창섭에게 역사는 과거의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후세에 물려받을 자산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손창섭에게 소설이란 역사를 구성하는 글쓰기의 일종으로 인식된다. 요컨대 기득권과 사회의 교조적인 폭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문제는 과거와 현시대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343) 장-자크 루소, 앞의 책, 426면.

4.2. 역사소설의 장편화와 공동체 이상의 실현 가능성 모색

『봉술랑』(『한국일보』, 1977.6.10.~1978.10.8.)은 서장을 포함해 2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연재분이 408회에 달해 손창섭의 소설들 중 가장 공들여 연재한 장편소설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더욱이 손창섭이 발표한 작품들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들 중 마지막 소설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여지가 충분하다다.

손창섭은 「서장」에서부터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당시 고려의 역사적 사실들을 상세하게 짚어나가며 서사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가령 서장에 등장하는 배중손 장군을 위시해 노영희, 김통정 등의 인물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존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삼별초의 항쟁과 관련해 기술되고 있는 소설 속 서사들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손창섭이 『고려사』를 꼼꼼하게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사』를 참고함에 있어 「환관」과 「흑야」에서 국소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에 그쳤다면 『봉술랑』에서는 소설 전체에서 역사적 사실을 꼼꼼하게 참고한 흔적들이 역력하다고 할 수 있다. 「서장」을 벗어난 뒤 고려 조정이 보여주는 악폐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원성공주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왕실과 관련된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고려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원성공주에 대한 기록을 『고려사』 열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렬왕〉 13년(1287), 〈원성〉공주가 입조하여 〈원 황제를〉 뵙고자 하니, 〈왕이〉 명하여 양가(良家)의 처녀를 뽑게 하였다. 홀적(忽赤, 홀치)으로 하여금 인가(人家)를 뒤지게 하자 비록 딸이 없는 사람이라도 또한 놀라 어지러웠으며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마을마다 가득하였다.[344]

일찍이 손창섭은 1953년에 『평요전』을 번역하면서 서문을 통해 나관중의 『평요전』이 허무맹랑한 가공적 구성을 가진 소설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대신 『평요전』을 일컬어 『사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세계 명작 탐정 소설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345] 손창섭이 1970년대 말 경 『봉술랑』을 창작하는 태도 또한 이와

---

344) "충렬왕 후비 제국대장공주 원성공주가 양가의 처녀를 선발해 원에 입조하다가 되돌아오다." 『고려사』, 제 89권, 열전 권제2.

다르지 않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봉술랑』 연재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 집필을 앞두고 4일 東京의 우에노(上野)에서 만난 孫씨는 『지난4년동안 東京의 각 도서관 고서전시회 헌책방등에서구한 자료를 마음껏 구사해서 재미있는 소설을 써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 『「流氓」은 한국인의 눈으로본 재일동포사회의 역사와 문젯점을 다루어보려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의욕이 과잉된 감이 없지않았읍니다.』
> (중략)
> 『나이50이 훨씬 넘으니 좋은책을 보아도 선뜻하지지않더군요. 비싼책을사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겠느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인지 孫씨는 고서전시회나 헌책방에서 귀중한사료를 발견하면 며칠씩 다니면서 베끼거나 외버린다는 것이었다.
> 예를들면 그가운데서도 진귀한사료가 「武術古通」이라고했다.
> 손씨는 그동안 모은자료를 정리해보니 高麗때의우리나라의 사정이나 풍속도 같은 것이 일본에적지않게 파묻혀있음을 발견했다.[346]

손창섭이 고서전시회나 헌책방에서 구했다는 「武術古通」은 백도성 일가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인 '무술'을 소설 속에 그려내는 데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347] 물론 『봉술랑』에서 서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백도성 일가의 이야기는 모두 손창섭이 창작해낸 허구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백도성 일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허구적 인물이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창섭은 역사적 전경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정사의 줄기에서 포착된 적 없는 인물관계를 구성해냄으로써 인간관계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풀어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아래는 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학가의 책임」의 한 부분이다.

>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주변 大國의 간섭과 침략과 탄압을 받지아니한 시기란 그리 길지 않은데 새삼 놀란다.
> 그러한 艱難의 시대에 서민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절로 가슴이 저려진다.

---

345) 손창섭, 『평요전』, 고려출판사, 1953, 4면.
346) 「棒術娘 마음껏 資料驅使 재미있게-첫 歷史小說 連載할 孫昌涉씨의 近況」, 『한국일보』, 1977.6.7.
347) 「武術古通」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학계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정사자료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래설까. 상식화된 正史의 굵은 줄거리보다도 각 시대와 시대, 사건과 사건 사이에 깊숙이 묻혀버린 민간사, 생활사를 엿보고 싶어 野史의 자료를 찾아다니는 버릇도 요즘 생겼다.[348]

방민호는 『봉술랑』의 주제의식이 역사소설의 본령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 역사적 시대의 예술적으로 진실한 모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봉술랑의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는 백산화가 "그 시대의 역사적 특성으로부터 등장인물의 특수성을 도출"한 형태로 묘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컨대 산화는 "형상화된 인간의 구체적인 시대제약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봉술랑』은 통상적인 역사소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349] 멀리 볼 것 없이 역사라는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손창섭의 태도만 살펴보더라도 역사소설을 창작하는 그의 태도가 "구체적 역사적 시대의 예술적으로 진실한 모사" 쪽에 기울어 있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인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와 공동체의 관련성을 분석하려 했던 낭시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봉술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손창섭의 진정성은 어디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봉술랑』이 몇 가지 문제의식을 이전 소설들과 동등한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정사라는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역사의식과 더불어 이 소설의 서사 자체가 보여주고 있듯 개인과 가정을 구속하는 사회 혹은 국가의 결속원리에 대한 저항을 읽어낼 수 있다.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부단히 반복되어 온 이 모티프는 백도성 일가의 수난사를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사회가 지니고 있는 결속과 압제의 원리에 대한 저항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봉술랑』 속에 서사화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실험했던 공동체는 『삼부녀』에 이르러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유맹』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도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손창섭에게 있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성은 부단히 어려운 문제로 재성찰된다. 한편 당면한 현시대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봉술랑』을 통해 손창섭은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모습의 공동체를 소설 속에 풍부하게 채색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주제의식은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348) 손창섭, 「사학가의 책임」, 『자유』63, 자유사, 1977.8, 191면.
349) 방민호, 「손창섭의 장편소설 『봉술랑』에 대한 일고찰, 『어문론총』4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6, 193면~199면 참조.

수 있는 백산화를 통해 꾸준히 모색되어 간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전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봤을 때, 『봉술랑』은 백년에 걸친 무인정권의 처참한 권력 쟁탈전으로 인해 고려가 혼란스러운 형국에 처했음을 「서장」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전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몽고의 습격을 받으며 고려사 치명적인 혼란을 맞이했음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국의 침략과 탄압이 불러일으킨 사회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의 아버지 백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몽병에게 종으로 팔려갔다가 우연히 재질을 인정받아 중국에서도 무술로 이름이 높은 통념사에서 도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백도성은 고려로 돌아온 뒤 삼별초에 가담하게 된다. 삼별초에서 전군의 무술훈련을 관장하는 무술위라는 직책까지 받게 된 그는 반몽정신에 근거한 삼별초의 난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삼별초의 적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다. 하지만 삼별초가 패전을 면치 못하면서 백도성은 역적의 신분이 되고, 그의 처가 조정과 몽병들에게 잡혀가 능욕당하고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백도성을 중심으로 윤관이 나타나는 고려시대의 정황들을 통해 우리는 손창섭이 한탄하듯 토로했던 “굴욕의 역사”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350] 몽고에게 예속되어 원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고려에 대한 개탄을 『봉술랑』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낙서족』과 「신의 희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겹쳐볼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손창섭은 민족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동시에 고려 조정이 백도성을 역적으로 지목하며 백도성 일가의 수난사가 부각되어 나타나고, 서사의 대부분이 조정과 현군과의 대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공녀차출, 징세를 통한 핍박, 백성들을 끊임없이 옥죄는 갖가지 조정의 악폐들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술랑』을 국가체제에 대한 회의 자체로도 해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산화의 입을 통해 소설의 후반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난다. 아래는 「사냥꾼」장의 한 대목이다.

> 약육강식은 도리어 인간쪽이더한지도, 모른다. 나라가 나라를 잡아먹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을 처단하고 수탈하는 관리놈들이 그렇고, 행패를 일삼는 악당놈들이 그렇다. 산화 자신, 김인보 현령을 위시해서, 청주의 현위 일당, 노름꾼패, 공녀 호송원, 대행소 울력패와 싸운 것도, 따지고 보면

350) 손창섭, 앞의 글, 191면.

맹수의 관계요, 사냥꾼의 소행인지도 모른다.[351]

『봉술랑』에서 백도성 일가의 서사는 조정과 권력에 대한 투쟁관계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장」에서 엿볼 수 있는 백도성 개인사는 나라가 나라를 잡아먹는 전쟁으로 인해 발발한 사회의 문제들을 눈여겨보도록 만든다. 삼별초의 난를 치르며 백도성은 처의 죽음과 관련해 상주의 현령 김인보와 원한으로 엮이게 되는데 이는 곧 자연스럽게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와의 투쟁관계로 이어지고, 백도성의 자식인 백산석, 백산화 자녀에게 전수된다. 조정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곧 파락호들이 들끓는 세상을 방치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그들과 조정은 내밀히 동조하는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

주인공 백산화는 김인보 현령을 위시해서, 어머니의 원수인 청주의 현위 일당, 백성들을 유린하는 파락호 떼인 노름꾼패, 공녀 호송원, 대행소 울력패 등과 직접 대치해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의 말미 「인간사냥」이라는 장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그것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그려질 정도다. 즉 사회의 적패라는 문제 앞에서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봉술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창섭은 『봉술랑』에서 이전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비판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한편, 서사 곳곳에서 공동체의 완성이라는 문제를 꾸준히 풀어나가고 있다. 왕실과 조정으로 대변되는 권력층의 외부에서 많은 인물들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의혈단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의적을 자청하고 나서는 반적패들의 경우가 긍정적인 공동체로 변모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들에게 반적패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흥미롭다. 그들은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조정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겁박하고 수탈하는 일면을 버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백성들에게 반은 산적패라는 원성을 듣게 된 것이다.

「삼부자녀」에서 반적패는 백도성의 아들인 백산석과 대치하게 되면서 백도성 일가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마지막 장 「종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반적패의 간부에 해당하는 '김도끼'는 소설에서 비중이 미미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백산화의 곁을 평생 지키는 마지막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에 더해 반적패 외에도 속세를 떠난 여성들이 모인 천광사라는 공동체, 북방의 무술자들이 무술을 수련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만든 공동체, 주대식 장군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단 등이 소설에 구현되고 있는 긍정적인 공동체의 예시들이라고

351) 손창섭, 『봉술랑』, 『한국일보』, 1978.8.9.

할 수 있다.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주된 초점은 역시 주인공 백산화에게로 모인다. 더불어 그 주제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작들과의 연관성을 되새겨보게 만든다는 점이 주목된다. 역적으로 내몰린 백도성의 딸 백산화는 어머니의 원수인 상주 현령 김인보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무술을 완성하고자 하는 염원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은 국가라는 체제가 던져준 한계와 핏줄의 억압이라는 구속조건 아래에서도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고야 마는 것이다.

원수의 아들인 김광세의 결혼은 백산화에게 있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백도성 일가가 처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편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도 산화 자신이 광세에 대한 호감을 감출 수 없었고, 역적으로 몰린 탓에 정상적인 가정을 구성할 수 없어 손주를 볼 수 없었던 백도성의 염원을 풀어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김인보 현령과의 오랜 원한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극적인 장치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봉술랑』에서 13번째 장인 「혼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른다. 결혼에 대한 열망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공동체들 중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을 긍정하고 보존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352]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집적체가 그 구성을 보존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것을 승계할 수 없다면 유지될 수 없다.[353] 이와 관련해 『봉술랑』에서 온전한 가정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재구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백도성 부녀는 혼담이 김인보 현령의 위계일 가능성이 짙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승낙한다. 다음과 같은 서술자의 언급은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자식을 길러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은, 어버이로서 마지막으로 책임져야할 의무요 도리인 것이다. 자녀가 적당한 배필을 만나, 저희끼리의 새로운 인생길에 오르는 것을 보아야, 어버이로서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덜 수 가 있는 것이다.[354]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보다, 과년한 딸의 행복을 비는 것이 우선"[355]이라고

352) 장-자크 루소, 박호성 역, 『사회계약론』, 책세상, 2015, 22면.
353) 안용희, 「1920년대 소설의 공동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참조.
354) 손창섭, 앞의 소설, 『한국일보』. 1978.3.26.
355) 손창섭, 위의 소설, 『한국일보』, 1978.4.2.

작심한 도성은 김광세와 직접 만나 결혼을 확정짓게 된다. 그런데 손창섭이 『봉술랑』에서 그리고 있는 결혼식의 구체적 장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번째 장 「성례후」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그의 소설 중에서는 비교적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단편소설 「저어」에서 결혼식의 절차 문제로 파혼까지 맞이해야만 했던 이야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어」에서 '광호'는 결혼 당사자들끼리의 소략한 결혼식에 목을 매다가 그것이 이뤄지지 않자 파혼을 단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인 바 있다.

『봉술랑』에서 광세는 현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상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적의 딸이라는 산화의 처지를 생각해 조촐하게 혼례를 치른다. 손창섭은 「신의 희작」에서도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결혼이란, 둘이 맘에 맞아서 붙어살고 싶거든 살면 그만이지, 무슨 씨름 대회나 권투 시합이라도 벌리듯, 야단스레 관중을 청해놓고 구경을 시킬 필요는 없다"[356]는 식의 심중을 내비친 바 있다. 『봉술랑』에 산화와 광세의 결혼은 소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이라고 할 수 없도록 간략하게 진행"[357]된다.

맺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만 여겨왔던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정이 충만한 풍경으로 그려진다. 『봉술랑』과 「저어」의 격차와 함께 「공휴일」에서 약정된 결혼은 물론이고 여성에 대한 일말의 정조차 느낄 수 없는 주인공 '도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장의 제목이기도 한 "남과 여"의 합일이라는 문제는 1960년대에 손창섭이 부단히 그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했던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주제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봉술랑』과 멀지않은 시기에 연재된 『유맹』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원복의 아들 최성기는 재일조선인이라는 핏줄의 한계로 인해 일본여성과 교제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체제가 안겨준 한계를 극복한 결혼이라는 점에서 『봉술랑』은 『유맹』의 극복이며, 멜로드라마를 통해 끊임없이 모색했던 남과 여의 만남이라는 이상적 가능성을 손창섭은 산화와 광세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정을 통한 남녀가 만나 이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는 곧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김인보 현령이 위계를 써서 백도성, 산화 부녀를 하옥시키고 참형을 선언한 것이다. 「성례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산」이라는 장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겨우 가능성의 실마리를 잡아나가던 공동체는 흩어

356) 손창섭, 「신의 희작」, 『현대문학』77, 1961.5, 47면.
357) 손창섭, 『봉술랑』, 『한국일보』, 1978.4.19.

져버리고 만다. 심지어 탈옥하는 과정에서 백도성이 김인보 현령의 목을 베어버림으로써 산화 부부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여기에 더해 탈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현군과의 격전으로 인해 백산석과 함께 의혈단 단원 대부분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의혈단은 실질적으로 붕괴하기에 이른다.

서사의 표면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공동체가 이산하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김인보 현령의 위계 탓이다. 그러나 이때 『봉술랑』이 『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성장소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사에서 정작 중요한 국면은 이 사건 이후 백산화가 무술의 완성이라는 스스로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을 벗어나 북방으로 유랑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펼쳐진다. 김인보의 위계로 인해 벌어진 참극을 공동체의 가능성을 허물어버린 허무주의의 일면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소설을 전반부로부터 후반부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민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산화는 비로소 원수를 처단함으로써 은거생활로부터 벗어나기에 이른다.[358]

탈옥 사건이 지나고 17장 「무뢰한」을 시작하면서 산화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산화는 관군과 대응하는 문제에 관해 한쪽으로는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백도성과, 다른 한쪽으로는 과격하고 아나키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산석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인물로 그려졌다. 이를테면 신중론에 가까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화는 북방으로 유랑을 떠나면서부터는 역적의 신분 때문에 평생 고집해야만 했던 산길 대신 당당하게 대로를 걷는 길을 선택한다. 산화는 "평생을 비굴하게 피해 다니며 숨어 살기보다는, 차라리 일 년을 살고 죽어도, 남들처럼 버젓이 드러내놓고 살아보고 싶"[359]다는 희망을 실천하기에 이른다. 덮어놓고 사건을 터뜨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 같이 말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산화는 스스로의 무술을 믿고 정면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각오한다.

이후에 펼쳐진 산화의 행보는 광세에게 "마침내 노골적인 도전행위로 나오기 시작했구나"[360]라는 탄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담하게 그려지고 있다. 청주에 들러 남아 있던 마지막 원수를 처치한 산화는 무술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북방을 목적으로 길을 떠나면서 파락호 노름꾼들, 공녀 호송원, 백성을 수탈하는 대행소 울력패들, 종국에는 산화를 잡기 위해 결성된 성진구 등의 무술자 일파까지 격파한다. 앞길을 막는 자는 죽이겠다는 태도로 행해지는 산화의 유랑은 일면 파격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현청에서 벌어진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산화는 살인하는

358) 방민호, 앞의 글, 194면.
359) 손창섭, 앞의 글, 1978.6.1.
360) 위의 글, 1978.6.21.

것을 매우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군과 파락호패들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산화의 행보는 놀랍게도 조정의 명을 받아 백도성 일가의 토벌을 맡은 윤창수의 입을 통해 변호된다.

윤창수는 고려 관군의 별장으로 백도성 일가를 은밀하게 죽이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 북방에서 무술장을 세워 고수들을 규합한다. 소설의 전반부에 속하는「결투」장에서 윤창수 별장이 모은 무술자들과 백도성 일가는 한차례 공개결투를 벌인 바 있다. 결투에서 송지와 강유진을 잃은 윤창수는 방신오와 함께 북방으로 돌아와 북방의 숨은 고수들을 다시 모집해 토벌단을 재정비한다.

산화가 북방으로 유랑을 떠난 소설의 후반부에서 윤창수 별장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토벌단과 함께 산화를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산화가 지니고 있는 무술의 재기와 인품의 훌륭함을 알아차리고 조정의 명과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윤창수의 언급은 관군의 장수라는 지위가 무색할 만큼 혁신적이다. 나라 법을 어겼으니 산화가 죽여 마땅하다고 성토하는 성진구에게 윤창수는 그녀가 이전까지 대항하지 않는 자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례를 들어 변호하고 나선다.

> 법을 어겼다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나라법이란 결국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통치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야. 그 수단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얽매여 살 수 밖에 없는 약자에게 있어서만, 나라법도 효과가 있는거지,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배겨낼 능력이 있는 강자에게 있어서야, 무슨 구속력을 갖겠느냐.
>
> 그러면, 백가년은 나라법을 무시하고, 무슨 짓을 하구두 견대낼 수 있는 강자구,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두 좋다는 말씀인가요?
>
> 성진구는 끝내 불만스러운 눈치였다.
>
> 좋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백가년으로선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거지. 나와 너희들도 백가년과 같은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는거야.[361]

윤창수의 논리는 놀랍게도 법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그는 나라의 법을 강자가 약자를 구속하는 원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자에게 법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봉술랑』의 산화에게서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산화가 스스로의 무술로 당당하게 세상과 대적하겠노라는 천명한 것의 의미가 무

361) 손창섭, 앞의 소설,『한국일보』1978.7.6.

엇인지에 대해 윤창수의 입을 통해 대신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통상 가정되는 법의 초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은 죄의식·불가해성 등과 필연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362] 그러나 법이 있다고 믿었던 곳에 실레로 있는 것은 오직 관계가 형성하고 있는 욕망일 뿐이다.[363] 즉 권력은 '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피라미드적인 것이 아니라 인접성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364] 그런 의미에서 산화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법을 직시하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에 관한 데리다의 지적은 명징하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요컨대 자유로운 재긍정 속에서 법에 대해 충분히 파괴적이거나 판단 중지적이어야만, 혹은 법에 대한 해체를 고려할 때에 비로소 '정의'가 도래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365]

강자가 약자를 구속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나라 법에 맞서는 행보의 귀착지가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종장」을 향해가는 산화의 서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토벌단에게 추적을 받는 한편 그녀의 자유분방한 행보는 곧 일정한 방향을 제시받게 되는데, 황주지역에서 도술의 경지가 높기로 이름이 높은 주대식 퇴역 장군과의 만남은 산화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남기게 된다. 대련에서 패하자 아버지뻘임에도 불구하고 패자의 예를 취하는 주대식에게 산화는 감탄하게 되고, 주 장군의 요청에 따라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많은 교화를 느끼게 된다. 그녀는 이 짧은 시기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평화라는 것을 만끽하게 되는데, 산화의 눈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주 장군의 일상은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대한 짧은 단상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주 장군은 조반상을 물리고 나면 옆집의 종 부자를 따라 밭일을 나갔다. 종이라고는 하지만, 장군은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종적에서도 빼고, 양민으로 해 주었다고 한다.
>
> "놀고 있으면 몸이 둔해져서 안돼. 또한 내가 먹을 것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야."
>
> 그래서, 종과 함께 오전 중에는 밭일을 하는 것이 장군의 일과란다.
>
> (중략)
>
> 점심 후에는, 장군은 으레 뒷산 중턱의 초도암을 찾아갔다. 거기서 초지스님을 상대로 장기에 열중하는 것이다. 그동안 산화는, 공녀 탐색을 피하여

362)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07면.
363) 위의 책, 118면.
364) 위의 책, 136면.
365) 자크 데리다, 앞의 책, 37-58면.

거기에와 머물고 있는 소녀들과 얼려지냈다. (중략)
이렇게 지내는 삼일간 <평화>라는 것은 산화는 사무치게 실감했다. 그러자 부친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고 웬일인지 광세의 모습까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366]

주 장군은 약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 법의 외부에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종을 해방시킴으로써 노예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을 양민으로 대하고 함께 노동하면서 공동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위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초도암 또한 공녀로 차출되어 가는 소녀들이 국법을 피해 기댈 수 있는 일종의 대피처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외부'로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장군은 산화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충고하고 나선다. 그는 산화와 마찬가지로 원나라와 고려 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비판의식은 백성 전체의 문제를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녀와 차이가 드러난다. 산화는 주 장군과 대면하면서부터 자신이 이전까지 원나라와 고려 조정을 적대한 것이 개인적인 사정에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낀다.[367]

한 발 더 나아가 주 장군은 고려가 원나라라는 강국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뜻있는 백성이 힘을 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힘을 모으되, 유사시에 단합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막연한 관념의 차원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산화의 무술 유랑이 모두 끝난 뒤 「종장」에 이르게 되면 주 장군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단이라는 구체적인 실현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창섭은 「종장」에서 원나라의 반도 합단적이 삼만의 병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온 실제사건을 그리고 있다.[368] 역사적 실례를 주인공 개인의 서사를 완성하는 데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의 대군을 막을 수 없었던 무능력한 조정은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 전의 죄를 사하고 벼슬을 준다는 명목으로 산적 떼와 무술자를 가리지 않고 군사를 모으게 되는데, 주 장군은 이 기회를 놓치

366) 손창섭, 위의 소설, 『한국일보』, 1978.7.25.
367) 개인이란 공동체가 와해되는 시련 이후에 남은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장-뤽 낭시, 앞의 책, 25면.
368) 『고려사』, 제 30권, 세가 충렬왕 16년 1월. 오인영이 원에서 돌아와 카단 잔당의 동변 침략을 알리다. "甲子 將軍吳仁永等還自元, 言, 乃顏餘黨哈丹賊 將侵我東鄙(강조 및 밑줄 인용자)."

지 않고 무술에 상당한 경지에 오른 소수정예를 이끌고 의병단을 꾸리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백도성 부녀와 의혈단 출신 김도끼가 속해 있다.

합단적과의 치열한 전투 중 백도성과 김광세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전쟁이 모두 끝나고 고려에 평화가 찾아온 뒤 백산화는 양민의 신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논공행상에서 주 장군이 이끈 의병단에게 내리는 상은 초라한 것이었으나 주 장군과 산화는 그나마도 마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그들이 벼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곧 '국가'의 논리에 따라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자신의 능력을 살려 나라에 평화를 되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국가라는 '연합'의 논리에서 빗겨나면서도 공동체를 수호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산화는 전쟁이 끝난 다음 산화는 김도끼와 함께 무술장을 열어 평생의 삶을 무술에 바치며 안정된 삶과 공동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혼란으로 발발한 삼별초의 항쟁으로부터 연원된 역적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산화는 비로소 광세와 함께 낳은 아들 무생에게 평범한 삶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산화는 "한 여인으로서는 한도 없지 않았지만, 한 무술자로서는 추호도 후회함이 없"[369]는 인생을 완성하게 된다.

산화의 아들 무생의 존재에는 산화의 삶과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세대를 거쳐 보존될 것이라는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개인의 능력을 통해 나라와도 당당히 맞선 삶을 살아간 산화가 종국에 획득할 수 있었던 삶이 지극히 안정된 평범한 것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예컨대 손창섭은 산화의 여생을 규정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는다. 그녀는 심지어 남은 평생을 함께 하게 된 김도끼와 남녀의 관계로 엮이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산화는 김도끼와의 재가를 진지하게 권하는 주 장군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

가족공동체는 긍정되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을 필연적으로 구성해야만 한다는 방식의 논리는 일면 집단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루소가 『고백』과 『사회계약론』에서 내비치고 있는 의식과도 부합된다. 앞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소에 따르면 의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규합된 관계는 비록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할지라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소설의 종장에서 그려지고 여생에 대한 공백은 산화가 어떠한 규정의 원리도 제약할 수 없는 공동체의 근원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의성'[370]으로 충만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

369) 손창섭, 앞의 소설, 『한국일보』, 1978.10.8.
370) 조르조 아감벤, 이경진 역,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2014, 9~11면.

5. 결론

최인훈은 손창섭을 일컬어 '최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작가라 칭한 바 있다. 여기에 최인훈의 표현을 빌려옴으로써, 이 글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연구의 방향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요컨대 이 글은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작품 분석들 사이에서 손창섭 문학에 뻗어나가고 있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추출해낸 뒤, 그 속에 내제된 계역을 추적해나감으로써 작가 의식의 지도를 최대한 확장해나가자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950년대 초기에 창작된 손창섭의 단편소설들은 '전후'라는 시기적 적합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탓에 전후문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된 경향이 없지 않다. 가령 1990년대에 들어서 전후문학연구가 한차례 각광을 받았던 시기에 제출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손창섭이 1960년대에 발표한 소설들을 전후성이 고갈되고 난 뒤의 잉여분 정도로 취급하려는 경향을 읽어낼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해 1950년대의 단편소설들을 순수문학으로 보존하려는 태도는 손창섭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창작한 다수의 역사관련 서사들을 방치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약 손창섭의 소설을 분석함에 있어 전후성만을 준거로 삼을 경우 『낙서족』이라거나 「신의 희작」과 같은 자전적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작법상의 전략을 놓치고 지나가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태도는 전작들과 1960년대의 작품세계로 이어지는 방향전환의 국면을 다채롭게 설명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굴절이 배태하고 있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려 발굴 자료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반역 문학인의 허세」와 같은 산문은 손창섭의 작품들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신의 희작」이 루소가 『참회록』에서 보인 '고백'의 원리를 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면모는 어떤 의미에서든 1950년대의 소설과 1960년대 소설 사이의 연속성을 상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 논문은 시기와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손창섭이 문학 활동 속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주제의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공동체 담론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약술하자면 손창섭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루소의 원리를 내면화하고 있었고, 이로써 사회의 모든 압제와 구속의 원리들 앞에 항거하기 위해 평생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구속 원리를 향한 비판의식은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중기의 신문연재소설, 마지막으로 후기에 창작된 역사소설들 속에 고루 발견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토대 아래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들이 서사 속에서 구체적인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사회적 구속의 원리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공민의 일반의지를 내세우며 공동의 관계를 고찰했듯, 손창섭 또한 소설 속에서 긍정적 인간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손창섭이 신문연재소설에서 복잡한 치정문제를 그려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실험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속에서 손창섭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꿈꾸고 실험해냈다.

동등한 문제의식 아래 역사소설들과 장편소설 『유맹』, 『봉술랑』 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손창섭은 작품 활동 초기에서부터 소외된 인간군상을 작품 속에 그려내며 그들을 연민어린 시선 속에 바라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후기 소설에까지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작가가 도일한 뒤 발표한 산문 「설문학의 진실을 찾아서」, 「사학가의 책임」 등을 참조했다.

본 논문은 지독한 회의주의자로 인식되며 언제나 타자의 위치에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손창섭의 문학세계를 시기와 작품분량의 구분이라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의 문학성이 지니고 있는 '외부'와 '바깥'을 향한 지향은 곧 사회적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의 양태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시선을 확보하게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인습적인 도덕률을 허무는 시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은 그 자체로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1) 신문, 잡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예』, 『문학예술』, 『민국보』, 『방송』, 『부인』, 『사상계』, 『世界文學月報』, 『세대』, 『신문예』, 『신태양』, 『여원』, 『연합신문』, 『영문』, 『월간문학』, 『자유』, 『주간한국』, 『한국일보』, 『현대공론』, 『현대문학』, 『국제신문』, 『민국일보』, 『새벗』, 『서울신문』, 『세계일보』, 『신동아』, 『영남일보』, 『월간중앙』, 『주간여성』, 『週刊朝日』

(2) 작품집 및 총서류
『길』, 동양출판사, 1969.
『낙서족』, 일신사, 1959.
『부부』, 정음사, 1962.
『비오는 날』, 일신사, 1957.
『삼부녀』, 예옥, 2010.
『손창섭 단편 전집』1-2, 가람기획, 2005.
『손창섭 대표작전집』1-5, 예문관, 1970.
『싸우는 아이』, 대한기독교서회, 1972.
『여자의 전부』, 예문관, 1970.
『이성연구』, 동방서원. 1967.
『평요전』, 『세계대중문학전집』 改造社, 1927.
『평요전』, 손창섭 역, 고려출판사, 1953.
『한국대표문학전집』10, 삼중당, 1970.

2. 국내논저

(1) 단행본
구인환 외, 『한국 전후문학 연구』, 삼지원, 1994.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종욱, 『한국 현대문학과 경계의 상상력』, 역락, 2012.

김진기, 『손창섭 무의미 미학』, 박이정, 1999.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방민호, 『이상 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옥, 2015.
송하춘 편, 『작가론총서18 손창섭』, 새미, 2003.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유철상, 『한국전후소설연구』, 월인, 2002.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 b, 2014.
조건상 편, 『한국의 전후문학』, 성균관대 출판부, 1994.
조두영, 『목석의 울음-손창섭 문학의 정신분석』, 2004.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현대문학연구회 편, 『한국 전후문학 연구』, 태학사, 1991.

(2) 학술논문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고 은, 「실내작가론(9)-손창섭」, 『월간문학』, 1969.12.
공종구, 「강요된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곽상인,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문정,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젠더 표상-『부부』와 『인간교실』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65, 동악어문학회, 2015.8.
김용민, 「『고백록』을 통해 본 루소의 섹슈얼리티와 사랑」, 『정치사상연구』11(2), 한국정치사상학회, 2005.11.
_____, 「한국에서 루소사상 수용과 연구현황에 관한 일 고찰」, 『정치사상연구』18,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김진기,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84, 한국언어문학회, 2013.
_____, 「손창섭 소설에 미친 루소의 영향」, 『겨레어문학』50, 겨레어문학회, 2013.6.
김 현, 「대중문화 속의 한국문학」, 『세대』, 1978.5.
류동규, 「난민의 정체성과 근대 민족국가 비판」, 『비평문학』29, 한국비평문학회,

2008
박재연,「「평요전」 번역본에 대하여」,『중국학연구』6, 중국학연구회, 1991.
방민호,「그는 '마지막까지' 한국인이었다-손창섭의 시조를 소개하며」,『작가세계』27, 작가세계, 2015.
_____,「데가주망의 논리 -최인훈 장편소설『회색인』」,『미네르바』2016봄, 연인M&B, 2016.
_____,「'막장드라마'의 이면-손창섭 장편소설『삼부녀』」,『삼부녀』, 예옥, 2010.
_____,「몰래카메라의 의미-1960년대 한국 사회 만화경으로 들여다보기」,『인간교실』, 예옥, 2008.
_____,「손창섭 소설의 외부성」,『한국문화』58, 한국학연구원, 2012.
_____,「손창섭의『낙서족』에 관한 일고찰」,『한국현대문학연구 13』, 2005.
_____,「손창섭의『유맹』과 '재일(在日)'의 운명」,『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_____,「손창섭의 장편소설『봉술랑』에 대한 일고찰,『어문론총』4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6.
_____,「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통일과평화』7집2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5.
_____,「전후 알레고리 소설에 관한 연구」,『외국문학』, 열음사, 1994.
_____,「6.25와 한국문학」,『서정시학』, 2013.5.
사공일,「호미 바바의 식민담론에 나타난 푸코의 권력담론」,『현대영미어문학』32, 현대영미어문학회, 2014.
송태현,「장 자크 루소의 한국적 수용 -초창기 루소 수용을 중심으로」,『외국문학연구』52,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3.
신은경,「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 -『아리랑』에 실린 「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14.
안용희,「손창섭 소설의 서술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_____,「1920년대 소설의 공동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안철택,「니체의 문화비판」,『독일어문학』12(1), 한국독일어문학회, 2004.3.
오수웅,「루소의 도덕과 법: 개념과 관계」,『정치사상연구』15(2),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오현숙,「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동화와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유종호,「모멸과 연민」,『현대문학』57-58호, 1959.9-10.
이동하,「손창섭의『길』에 대한 한 고찰』,『작가연구』창간호, 1996.
이정신,「원 간섭기 환관의 행적」,『한국사학보』57, 고려사학회, 2014.11
임경순,「혈서의 세계와 욕망의 좌절」,『1950년대 문학의 이해』, 1996.
정규복, 「평요전의 한국번역문학적 수용」, 『아세아연구』34, 아세아문제연구소, 1991.
정찬범,「자기 모멸의 신화」,『문학춘추』, 1965.2.
정철훈,「두 번 실종된 손창섭」,『창작과 비평』114, 2009 여름.
조남현,「손창섭 소설의 의미 매김」『문학정신』, 1989.
최다정,「민족번역과 혼종적 정체성」,『이화어문논집』29, 2011.
최미진,「손창섭의 라디오 단편소설「비둘기 한 쌍」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39, 2009.
한명환,「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1960년대 사회적 인습과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신문소설 전개양상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4.
함동주,「신조사판 엔본『세계문학전집』의 출판과 서양문학의 대중화」,『일본학보』104, 한국일본학회, 2015.8.
홍주영,「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부성 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 국외논저

강상중, 노수경 역,『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사계절, 2017.
Agamben, Giorgio, 이경진 역,『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2014.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Blanchot, Maurice · Nancy, Jean-Luc, 박준상 역,『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1.
Blanchot, Maurice, 이달승 역,『문학의 공간』, 그린비, 2010.
_____, 최윤정 역,『미래의 책』, 세계사, 1993.
Deleuze, Gilles · Guattari, Felix, 이진경 역,『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1.

Deleuze, Gilles, 박정태 편역,『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이학사, 2007.
Derrida, Jacques, 진태원 역,『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Foucault, Michel, 김현 편역,『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지성사, 1989.
_____,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나남, 2003.
_____, 오트르망 역,『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_____, 이규현 역,『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Lejeune, Philippe, 윤진 역,『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Marx, Karl Heinrich, 고병권 역,『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그린비, 2001.
Nancy, Jean-Luc, 박준상 역,『무의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Nietzsche, Friedrich Wilhelm, 김태현 역,『도덕의 계보』, 청하, 1987.
_____, 최승자 역,『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청하, 1984.
Rousseau, Jean-Jacques, 김중현 역,『에밀』, 한길사, 2003.
_____, 박아르마 역,『고백1』, 책세상, 2015.
_____, 박아르마 역,『고백2』, 책세상, 2015.
_____, 박호성 역,『사회계약론 외』, 책세상, 2015.
_____, 박호성 편역,『루소 사상의 이해』, 인간사랑, 2009.
_____, 최석기 역,『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동서문화사, 2007.
Sennett, Richard, 유강은 역,『무질서의 효용-개인의 정체성과 도시 생활』, 다시봄, 2014.
佐々木中, 김소운 역,『제자리걸음을, 멈추고』, 여문책, 2017.
_____, 안천 역,『야전과 영원 :푸코·라캉·르장드르』, 자음과모음, 2015.

4. 기타자료

국립중앙도서관,『국내 근대문학 자료 소장 실태 조사 -1945~1960년 문학 단행본 자료와 1895~1945년 근대 문학잡지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2015.

부록 1 손창섭 서지 검토

지금까지 손창섭의 완전한 전집은 간행된 바 없다. 손창섭의 작품 활동을 초기에 『비오는 날』(일신사, 1957.10)[371], 『낙서족』(일신사, 1959,11)[372] 등과 같은 선집이 출간된 이후, 1970년 4월 예문관을 통해 『손창섭 대표작전집』이 기획되어 총 다섯 권으로 묶여 출간된 바 있으나, 이른바 '대표작'만을 취급한 탓에 그의 작품 모두를 싣지는 않았다. 여기에 훗날 《한국일보》에 장편소설 『유맹』과, 『봉술랑』을 연재한 내력이 더해져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집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는 있지만 『손창섭 대표작전집』의 자료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선집은 작가가 도일하기 직전에 남긴 작품선집이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요하며, 수록작품의 분량이 앞서 출간된 선집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여기에 수록된 5편의 장편소설 들 중 『통속의 벽』(원제 『저마다 가슴 속에』), 『아들들』의 경우, 이외에 달리 책으로 출판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문관에서 출판한 『손창섭 대표작전집』은 출간된 연도 자체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373]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손창섭을 다루고 있는 작가연보에서 대표작전집이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1969년에 출간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연보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손창섭 대표작전집』이 직접 확인하기 힘든 희귀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374]

『손창섭 대표작전집』은 표지목차를 보이는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며 실제 작품이 수록된 면면을 살펴야만 선집의 전체구성을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표지를 먼저 살펴봤을 경우 '신의 희작', '포말의 의지'과 같이 작품 이름을 소분

---

371) 단편선집 『비오는 날』의 수록작품은 다음과 같다. 「사연기」, 「혈서」, 「생활적」, 「비오는 날」, 「광야」, 「미해결의 장」, 「피해자」, 「인간동물원초」, 「치몽」, 「설중행」, 이하 단편소설 10편.

372) '장편소설'을 표제로 달고 출간된 『낙서족』의 수록작품은 다음과 같다. 「낙서족」, 「층계의 위치」, 「잉여인간」, 이하 장편소설 1편, 단편소설 2편. 더불어 판권지가 찍혀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간단한 작가소개가 다루어져 있다.

373) 이런 논란에 관해 홍주영은 그의 석사논문에서 초판 인쇄일이 1970년 4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홍주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부성 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94면 참조.

374) 수록된 작품목록과 초판인쇄일이 명시되어 있는 출판기록을 사진으로 기록해 별지에 첨부해 두었다. 예문관 판 『손창섭 대표작전집』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전권이 보관되어 있다.

류 제목으로 명명한 경우만이 아니라, ‘초기단편집’, ‘공포의 기록’, ‘장편집(掌篇集)’ ‘소년소설집’과 같은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분류를 준거로 『손창섭 대표작전집』의 기획을 추적해나가면서 작가의식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작업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것은 한 인터뷰에서 작가 스스로 밝힌 내용과 별개로 이 대표작전집의 구성 자체에 손창섭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기 때문이다.[375] 대표작전집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수록 작품 및 목차
孫昌涉 代表作全集 Ⅰ	낙서족(落書族)	제1부
		제2부
	신의 희작(神의 戱作)	신의 희작(神의 戱作)
		잉여인간(剩余人間)
		미해결의 장(未解決의 章)
		가부녀(假父女)
		반역아(反逆兒)
		사제한(師弟恨)
		환관(宦官)
		청사(靑史)에 빛나리
		치몽(稚夢)
		미소(微笑)
		층계(層階)의 위치(位置)
		공휴일(公休日)
孫昌涉 代表作全集 Ⅱ	부부(夫婦)	서장
		제1장 봉사회(奉仕會)
		제2장 제처권(制妻權)
		제3장 부부조약(夫婦條約)
		제4장 우유부단(優柔不斷)
		제5장 물놀이
		제6장 자라피
		제7장 행패(行悖)
		제8장 사건(事件)
		제9장 약혼식(約婚式)
	포말(泡沫)의 의지(意志)	광야(曠野)
		설중행(雪中行)
		유실몽(流失夢)
		소년(少年)
		포말(泡沫)의 의지(意志)

375) 단적인 예로 『저마다 가슴 속에』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이 대표작전집에 수록되면서 『통속의 벽』으로 이름을 바꿔달게 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더불어 각각의 소분류에서 확인되는 작품들의 면면은 작가의 개입 없이는 분류가 불가능해 보인다.

孫昌涉 代表作全集 Ⅲ	아들들	회갑연(回甲宴)
		형제회의(兄弟會議)
		사건(事件)들
		사랑의 과정(過程)
		겹치는 난사(難事)
		지리멸렬(支離滅裂)
		모친(母親)의 처지(處地)
		연속소동(連續騷動)
		춘한(春寒)
	초기단편집(初期短篇集)	비오는 날
		생활적(生活的)
		혈서(血書)
		피해자(被害者)
孫昌涉 代表作全集 Ⅳ	여자(女子)의 전부(全部)	삼부녀(三父女)
		남자(男子)들
		유혹(誘惑)의 손
		여행(旅行)
		중고품인간(中古品人間)
		방황(彷徨)
		재혼조건(再婚條件)
		새로운 사태(事態)
		치명상(致命傷)
		새 생명(生命)
		선물(膳物)
	공포(恐怖)의 기록(記錄)	공포(恐怖)
		육체추(肉体醜)
		인간동물원초(人間動物圓抄)
		흑야(黑夜)
孫昌涉 代表作全集 Ⅴ	통속(通俗)의 벽(壁)	편지마니아
		풍파(風波)
		여자(女子)들
		사모(師母)님 족(族)
		방학전후(放學前後)
		요지경(瑤池鏡) 속
		딱한 일
		혼란(混亂)
		창녀일기(娼女日記)
		남녀관계(男女關係)
		동요(動搖)
		신문기사(新聞記事)

		번루(煩累)
		여심(女心)
		해동전(解凍前)
		봄은 와도
		불안(不安)한 출발(出發)
	장편집(掌篇集)	STICK氏
		다리에서 만난 여인(女人)
		전차내(電車內)에서
		장례식(葬禮式)
		탈의범(奪衣犯)
		한국(韓國)의 상인(商人)
		신서방(申書房)
	소년소설집(少年小說集)	꼬마와 현주
		싸움 동무
		너 누구냐?
		돌아온 쎄리
		마지막 선물

우선 특이한 점은『손창섭 대표작전집』에서 작품의 이름을 소분류 제목으로 가져다 쓴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편소설『낙서족』에서부터「신의 희작」으로 이어지는 제1권의 구성은 눈여겨봐야 할 지점들이 많다. 일차적으로 두 작품에 흐르고 있는 주요한 테마가 '넌센스'라는 지점에서 작품 대 작품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자전적 소설의 범주에서 두 작품은 친연성이 높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376] 그리고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희작'이라는 범주 아래 12편의 단편소설을 한데 묶은 구성이 억지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지점에서 제2권 '포말의 의지'라는 분류 아래 묶인 5편의 단편소설을 같은 맥락의 작품군으로 파악해 분석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선집의 제목으로 사용한 바 있는「비오는 날」, 혹은 제4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화재가 된「잉여인간」등 수상작품들의 이름을 분류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이른바 '대표작전집'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이다. 둘째, 제3권에서 확인되는 '초기단편집'이라는 분류의 애매모호함을 주목해볼 수 있다. 가령 제1권에서 '신의 희작' 속에 분류되어 있는 단편소설「공휴

376)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방민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방민호,「손창섭의『낙서족』에 관한 일고찰」,『한국현대문학연구 13』, 2005, 참조.

일」은 1952년에 손창섭이 『문예』에 추천되어 정식 작가로 출발을 알리게 된 이정표와도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단편집'이라는 범주로 집어넣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발표 시기에 있어 '초기단편집'에 분류된 소설들과 불과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는 「미해결의 장」, 혹은 「인간동물원초」와 같은 작품들이 각각 다른 분류기준에 따라 대표작전집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제3권에 '초기단편집'이라는 분류가 대표작전집의 균형 잡힌 구성을 위해 모색한 하나의 방편일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질은 '공포의 기록'이라는 주제 아래 비교적 선명한 주제의식들로 묶인 제4권의 분류와 비교해보면 더욱 부각되어 비교된다.

제5권의 경우 '장편집'과 '소년소설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 실린 작품들이야말로 '대표작'이라고 부르기 힘든 작품들이라고 일컬을만하다. 이때 장편(掌篇)은 분량이 글자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듯이 매우 짧은 소설을 의미한다.[377] 그러나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정신풍경을 추적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꽁트'를 손창섭을 이해하는데 문제적인 장르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다.[378]

그런데 꽁트 중에서도 「stick氏」의 서지사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끈다.[379] 홍주영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대문학』 1956년 4월호를 참고했을 때 「STICK氏」씨의 최초 서지사항은 『학도주보』 1955년 9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남문학회에서 출간한 문예지 『영문(嶺文)』 17집(1959.11)에서도 같은 작품 「STICK氏」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80] 그렇다면 「STICK氏」는 지금까지 확인된 서지사항만 하더라도 3곳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선집이 아니라 각각 다른 문예지에 한 작품을 여러 차례 실은 예외적인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

「STICK氏」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를 통해 문예지 『영문』과 손창섭의 관계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손창섭은 6.25 전쟁기간 동안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영위했다. 당시의 행적이 구체적

---

377)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 중 「STICK氏」를 제외한 6편의 작품은 1966년 1월 『신동아』를 통해 '장편소설집(掌篇小說集)'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들이다.

378) 정철훈 기자의 시도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손창섭의 생애사와 정신풍경의 단상을 추적함에 있어 이와 같은 '장편(掌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b, 2014. 참조.

379) 『현대문학』 1956년 4월호를 참고했을 때 「STICK氏」씨의 최초 서지사항이 『학도주보』 1955년 9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

380) 영남문인회, 『영문(嶺文)』 17집, 1959.11, 14~17면.

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섣불리 재단할 수 없을 것이지만, 짧지만은 않았던 부산생활을 통해 당대의 문인들과 교우하며 나름의 관계망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1957년 일신사를 통해 『비오는 날』이 출간되었을 때, 『영문』 15집(1957.11)에 『비오는 날』 출판광고가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381] 이 뿐만이 아니라 단편소설 「모자도」(중앙일보)와 장편소설 『세월이 가면』(『대구일보』), 『저마다 가슴 속에』(『세계일보』), 『결혼의 의미』(『영남일보』) 등과 같은 장편소설이 영남에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손창섭 대표작전집』의 마지막 권에서 '소년소설집'의 구성을 통해 아동소설을 대하는 작가의식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손창섭이 도일하기 전 직접 개일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집이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7)였다는 점이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싸우는 아이』에는 손창섭이 대표작전집을 출간할 때도 남기지 않았던 머리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후 1950년대에 출판된 선집을 기초로 몇몇 단편선이 산발적으로 기획된 것을 제외하고 전집이 기획된 사례는 2005년에 출간된 가람기획의 『손창섭 단편전집』(총 2권)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편 전집은 작품명 표기의 문제, 작품연보와 작가연보, 기획 등에서 많은 오류와 허점들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5년 7월 1일에 사상계에서 발표된 단편 「齟齬」의 한글 표기를 '저어'로 할 것인가, '서어'로 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손창섭 단편 전집 1』의 경우 「서어」로 표기하고 있으나, 「저어」로 표기한 사례가 이전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편집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이 단어에 대한 한글표기를 손창섭 스스로 '저어'라고 쓴 적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382]

둘째, 가람기획은 손창섭의 작가연보를 '자화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문제작 「신의 희작」의 주인공 S를 토대로 재구성하고 있다. 즉 실증의 차원에서 빗겨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람기획의 『손창섭 단편 전집』은 단편소설 「얄구진 비」에 대해 등단하기 전 독자 투고의 형식으로 발표된 작품이라는 이유로 전집에서 제외시켰다. 게다가 이를 제외하고도 문학 성취도가 낮다는 판단 아래 「계루도」, 「고독한 영웅」, 「인간시세」와 같은 작품들을 전집에서 제외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단편전집을 출간한다는 기획에 걸맞지 않은 태도

---

381) 영남문인회, 『영문(嶺文)』 15집, 1957.11, 41면.
382) 손창섭, 『우맹』, 한국일보, 1976.5.20. 참조.

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계루」를 '계루도'라고 잘못 지칭하고 있는 오류를 범했다.

넷째, 부록에서 손창섭의 산문 중 유일하게 1965년에 발표된 「아마튜어 작가의 변」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글은 손창섭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작가정신에 관해 총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편소설의 문제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단편전집으로 기획된 이 책에서 손창섭의 산문을 부록으로 추가하려 했다면 「사연기」, 「유실몽」과 같은 단편소설들에 대한 수상소감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383]

마지막으로 가람기획에서 출간한 『손창섭 단편 전집』의 오류는 책 말미에 작품연보를 정리한 곳에서도 발견된다.[384] 전집에 단편소설 32편을 수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연보에 정리된 단편소설은 29편에 불과하다. 이 연보에 29편 중 독자투고의 형식이라 전집에는 수록하지 않는다던 「얄구진 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책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작품연보에 누락된 작품은 「저녁놀」, 「가부녀」, 「공포」, 「반역아」 총 네 작품이다. 이 중에서 「공포」만이 그나마 작가연보의 편에 포함되어 있으나, 발표된 년도만을 확인 가능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손창섭 단편 전집』에서 확인할 수 오류들이 문제인 이유는 손창섭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람기획의 단편전집을 1차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작품연보에 관해서라면 2003년에 새미에서 출간된 『작가론 총서18 손창섭』의 것이 훨씬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385] 이 작가론 총서는 작품연보에서 장편소설 9편, 단편소설 36편을 명시해놓았으며, 비록 "꼬마와 현주 외 다수"라고 표기하고는 있지만 소년소설의 존재를 연보에 포함시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창섭의 작품연보가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된 것은 홍주영의 작업을 통해서 가능했다.[386] 홍주영은 실증을 바탕으로 작품목록 확정작업을 진행해 단편소설 40편, 장편소설 13편, 소년소설 9편, 꽁트 8편과 동시, 잡문 21편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손창섭의 소설 중 가장 앞선 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얄구진 비」보다 앞선 「싸움의 원인은 동태 대가리와 꼬리에 있다」[387]와 같은

---

383) 한편 손창섭의 산문을 한데 모으는 시도를 한 것은 송하춘이 편집한 『작가론 총서18 손창섭』에서의 경우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수상소감을 비롯한 여러 산문들이 9편 수록되어 있다. 송하춘 편, 『작가론총서18 손창섭』, 새미, 2003 참조.

384)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2』, 가람기획, 2005.1, 473~475면 참조.

385) 송하춘 편, 앞의 책, 337~339면 참조.

386) 홍주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부성 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부록 참조.

단편소설의 존재가 밝혀졌으며, 마찬가지로 단편소설인 「모자도」의 존재가 새로 발굴되었다. 여기에 더해 장편소설 『세월이 가면』과 『삼부녀』와 같은 작품이 손창섭 작품목록에 새롭게 오를 수 있었으며, 소년소설 「앵도나무집」, 꽁뜨 「인식부족」, 동시 「봄」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목록은 약간의 혼란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까지 존재가 밝혀진 손창섭의 장편소설들이 59년 3월 『사상계』에서 발표된 『낙서족』을 제외한 12편 모두가 신문연재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홍주영은 연재된 소설들 중 책으로 출간되거나 전집에 편입되면서 이름이 바뀐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모의 과정을 작품목록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388] 가령 『저마다 가슴속에』[389]의 경우 예문관 판의 『손창섭 대표작전집5』에 수록되면서 『통속의 벽』으로 그 이름이 바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신문』에서 1961년 4월 10일에 연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29일에 연재를 마친 『내 이름은 여자』의 경우 1969년 국민문고사에서 책으로 출간하면서 『여자의 전부』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제목을 바꾸지 않고 책으로 출간한 신문연재소설의 사례들이 더 많다. 『부부』[390]는 1962년 12월 20일 정음사에서 책으로 출간되었으며, 『길』의 경우 1969년 동양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아들들』은 이름이 바뀌지 않고 『손창섭 대표작전집』 3권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최근 2005년에 실천문학사에서 『유맹』이, 2010년에는 예옥에서 『삼부녀』가 출간되었다. 이렇듯 『손창섭 대표작전집』에 수록된 사례까지를 포함해 책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장편소설은 무려 9편에 이른다.

손창섭의 장편소설 출판 사례들 중에서도 1970년에 삼중당에서 기획해 출판한 『한국대표문학전집』 중 제10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

---

387) 이 작품은 「얄구진 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합신문》에 독자투고의 형태로 1949년 3월 6일에 개재된 것이다.

388) 이렇게 작품의 이름이 바뀐 경로가 친절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례를 정철훈 기자의 『내가 만난 손창섭』(도서출판 b, 20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에서 홍주영이 「모자도」와 「봄」을 발굴한 사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손창섭 연보」에서 홍주영에 의해 새로 발굴된 작품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다.

389) 이 작품은 『세계일보』에서 1960년 6월 15일에 연재를 시작해 『민국일보』를 통해 1961년 1월 31일에 연재가 종료되었다. 이때 『민국일보』는 1960년 7월 1일에 『세계일보』의 사명이 바뀐 것이다.

390) 이때 『부부』가 『동아일보』에서 연재 종료일자가 1962년 12월 29일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재종료일이 책으로 출판된 이후이기 때문에 손창섭의 연재방식에 대한 하나의 참고지점이 될 수 있다.

학전집'의 구성 속에 손창섭의 장편소설 『길』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제10권 마지막에 실린 '손창섭연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정황상 이 연보는 손창섭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손창섭의 편지글이 이러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게 해준다.

> 代表文學全集의 完刊을 먼저 祝賀 드리며, 아울러 편집부 여러분의 숨은 勞苦에 감사합니다.
>
> 同全集 中, 小生分의 印稅와 寫眞(十五장) 찾아가라는 연락, 內子를 통해 어제 받았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들은 등기우편으로 부쳐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小生의 年譜(畧厂)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小生이 作成해 드린대로 되었는지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
> 10月 12日
>
> 손창섭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동경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손창섭의 편지를 지면으로 옮긴 것이다. 부연하자면 이 편지는 한 장짜리 편지지에 정갈하게 세로쓰기로 작성되어 있다. 앞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문제이지만 편지지가 'KOKUYO'라는 일본 문구회사의 제품인 점을 미루어봤을 때 손창섭이 이 편지를 일본에서 보내왔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정황상 도일을 전후로 작성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

편지의 내용에 부합하는 '대표문학전집'은 앞서 언급한 삼중당의 『한국대표문학전집』 제10권 외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작성된 연보는 한 가지 특이한 오류가 발견된다. 연보 작성자가 손창섭이라는 가정 아래 기술하자면 그는 1958년에 『중앙일보』를 통해 「女子道」를 발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391] 하지만 『중앙일보』는 1957년에 이미 『세계일보』로 사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계일보』를 확인해본 결과 1958년도에 발표된 손창섭의 작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연보에 작성된 「여자도」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1955년에 『중앙일보』를 통해 발표한 「母子道」를 작가가 잘못 기억해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작품 발굴사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서지 검토를 마치고자 한다. 손창섭의 라디오 단편소설이 2009년 최미진에 의해 「비들기한쌍」이 발굴되면서 연구의 가능성

391) 「孫昌涉年譜」, 『한국대표문학전집』, 1970. 209면.

이 열리게 되었다. 「비들기한쌍」은 1958년 4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10분에서 40분까지 <낭독>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으며, 잡지 『방송』의 1958년 4월호에 '방송소설'로 분류되어 게재되었다.[392] 이 작품 외에도 최미진은 『서울신문』의 '오늘의 라디오'(라디오 프로그램 안내)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손창섭이 열한 편 가량의 라디오 단편소설을 창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393] 그러나 소설들의 원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설이 실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잡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첫 작업으로 1950~1960년대에 출간된 『방송』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방송』에 실린 손창섭의 작품은 「비들기한쌍」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394]

이 소설에서 화자는 청각 매체의 현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라디오라는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신문소설을 본격적으로 창작하는 1960년대 손창섭의 행보와도 연결되고 있으며, 그가 1950년대 말에 작가로서의 고민과 모색을 거듭해왔다는 점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한편 유한근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교수가 단편소설 「애정의 진리」를 발굴해 잡지 『연인』, 19호(연인M&B, 2013)에 수록한 바 있다. 유한근 교수는 「애정의 진리」의 서지를 『아리랑』 58년 1월호로 밝히고 있으나,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잡지 『아리랑』 58년 1월호는 훼손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

---

392) 최미진, 「손창섭의 라디오 단편소설 「비둘기 한 쌍」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39,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393) 손창섭의 작품이 방송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춘여담」(1957.3.24. 11:15~11:30), 「죄인처럼」(1957.5.5. 11:15~11:30), 「후배의 결혼」(1957.11.19. 20:00~20:15), 「재혼까지」(1957.12.10. 20:00~20:15), 「크리스마스 선물」(1957.12.25. 10:20~?), 「결혼승낙」(1958.2.25. 19:10~19:25), 「비둘기 한 쌍」(1958.4.8. 19:10~19:40), 「나무는 알고 있다」(1958.4.29. 19:10~19:25), 「안해의 비밀」(1958.11.6.:11.13;11.20;11.27. 21:10~21:25). 「청춘여담」, 「죄인처럼」, 「후배의 결혼」, 「재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은 <소설낭독>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으며, 「결혼승낙」과 「비둘기 한 쌍」, 「나무는 알고 있다」는 <낭독>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다. 이외에도 손창섭의 소설 「소년」(1958.6.26.~6.28.)과 「치몽」(1958.6.29.~30.)이 <소설낭독>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바 있다. 이상은 모두 서울중앙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이다. 최미진, 위의 글, 참조.

394) 『방송』이라는 제목의 잡지에는 한국방송문화협회 편(1963), 대한방송사업협회 편(1959~1984), 공보부방송관리국 편(1958)이 있다. 제목은 같지만 부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잡지도 있는데, 한국방송문화협회 편 『방송(Radio&TV)』(1958~1994)와 공보부 실방송관리국 편 『방송(Radio)』(1956~1957)이 그것이다. 이 잡지들을 모두 검토하되 그 범주를 1950~60년대로 한정한 까닭은 1960년대 초반부터 이들이 문예 작품을 게재하는 빈도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970년대에 이르면 이들 잡지에서 문학 작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손창섭, 「방송소설 비들기한쌍」, 공보실 방송관리국 편, 『방송』제3권 제4호, 1958.

기에 더해 신은경은 그의 논문「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에서 새로 발굴된 단편소설「애정의 진리」를 분석하는 한편,『소설계』1959년 6월호에 수록된「애정무효」의 존재를 새롭게 소개하고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애정무효」는「애정의 진리」와 시기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주제 면에서도 부합되는 바가 많다. 신은경은 손창섭이 1950년대 말에 애정소설에 집중함으로써 1960년대에 신문연재소설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395]

방민호는 2015년『작가세계』겨울호를 통해 노트에 기록된 손창섭의 육필 시조 10편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노트에는 실제로 1993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창작한 70편의 시조가 담겨있으며, 이는 손창섭 작가의 딸 손도숙 여사가 직접 제공한 것이다.[396]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앞으로 육필 원고가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은 현전하게 낮을 것이라 판단된다. 손도숙 여사는 2017년 1월 12일 니가타에서 진행한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손창섭 작가가 타계한 뒤의 정황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손도숙 여사는 미망인이 된 우에노 지즈코 여사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손창섭 부부가 거주하던 동경 히가시구르메의 집을 정리하게 되었고, 유품을 추려 니가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가가 생전에 육필로 작성했던 원고들을 처분했다고 한다. 작가가 1978년까지 연재한 장편소설『봉술랑』뒤로 그의 글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뒤로 작성된 원고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다만 작가가 생전에 수집해 보관하던 서적들이 현재 니가타 손도숙 여사 자택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95) 신은경,「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 -『아리랑』에 실린「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14.

396) 방민호,「그는 '마지막까지' 한국인이었다-손창섭의 시조를 소개하며」,『작가세계』27, 작가세계, 2015,

부록 2 손창섭 작품 및 기타 목록

1. 작품 목록

분류	작품명	발표지면	발행일 (연재 시작일 /연재종료일)
동요	봄	아이생활	1938.6
단편소설	싸움의 원인은 동태대가리와 꼬리에 있다	연합신문	1949.3.6
단편소설	얄구진 비	연합신문	1949.3.29
단편소설	공휴일	문예	1952.5.1
번역소설	평요전	고려출판사	1953.6.
단편소설	死緣記	문예	1953.6.20
단편소설	비 오는 날	문예	1953.10.1
단편소설	生活的	현대공론	1954.11.1
단편소설	혈서	현대문학	1955.1.1
단편소설	被害者	신태양	1955.3
단편소설	미해결의 장 -군소리의 의미	현대문학	1955.6.1.
단편소설	齟齬	사상계	1955.7.1
단편소설	人間動物園抄	문학예술	1955.8.1.
단편소설	母子道	중앙일보	1955.7.29
소년소설	꼬마와 현주	새벗	1955.11
단편소설	雪中行	문학예술	1956.4.1
단편소설	流失夢	사상계	1956.3.1
단편소설	犧牲	해군	1956.4
단편소설	曠野	현대문학	1956.5.1
단편소설	마지막 선물	새벗	1956.5
단편소설	微笑	신태양	1956.8
단편소설	層階의 位置	문학예술	1956.12.1
단편소설	師弟恨	현대문학	1956.10.1
소년소설	심부름	새벗	1957.5
단편소설	稚夢	사상계	1957.7.1
단편소설	少年	현대문학	1957.7.1
단편소설	條件附	문학예술	1957.8
단편소설	저녁놀	신태양	1957.9
소년소설	앵도나무집	출전미상	1957

분류	작품명	발표지면	발행일 (연재 시작일/연재종료일)
단편소설	孤獨한 英雄	현대문학	1958.1.1
단편소설	假父女	자유문학	1958.1.1.
단편소설	애정의 진리	아리랑	1958.1
소년소설	장님강아지	새벗	1958.1
단편소설	侵入者 -續稚夢	사상계	1958.3
단편소설	罪없는 刑罰	여원	1958.4
방송소설	비둘기 한 쌍	방송	1958.4
단편소설	人間繫累	희망	1958.5
소년소설	너 누구냐	새벗	1958.7.
단편소설	雜草의 意志	신태양	1958.8.1
단편소설	剩餘人間	사상계	1958.9.1
단편소설	미스테이크	서울신문	1958.9.5
단편소설	人間時勢	현대문학	1958.11.1
소년소설	돌아온 세리	새벗	1958.11
장편소설	落書族	사상계	1959.3.1
소년소설	싸움동무	새벗	1959.3.
단편소설	반역아	자유공론	1959.4
단편소설	愛情無效	소설계	1959.6.
掌篇소설	STICK씨	영문嶺文	1959.1
단편소설	泡沫의 意志	현대문학	1959.11.1
장편소설	세월이 가면	대구일보	1959.11.1.~1960.3.30
장편소설	저마다 가슴속에	세계일보 민국일보	1960.6.15.~1960.6.30 1960.7.1.~1961.1.31
掌篇소설	인식부족	동아일보	1960.12.4
소년소설	싸우는 아이	새벗	1960.6~1961.6
장편소설	내 이름은 여자	국제신문	1961.4.10.~1961.10.29
단편소설	神의 戱作 -自畫像	현대문학	1961.5
단편소설	肉體醜	사상계	1961.11

분류	작품명	발표지면	발행일 (연재 시작일/연재종료일)
장편소설	부부	동아일보	1962.7.1.~1962.12.29
장편소설	인간교실	경향신문	1963.4.22.~1964.1.10
장편소설	결혼의 의미	영남일보	1964.2.1.~1964.9.29.
단편소설	恐怖	문학춘추	1965.1
장편소설	아들들	국제신문	1965.7.14.~1966.12.30
장편소설	이성연구	서울신문	1965.12.1.~1966.12.30
掌篇소설	장편소설집(掌篇小說集) 「다리에서 만난 여인」, 「전차내에서」 「장례식」, 「탈의범」, 「한국의 상인」, 「신서방」	신동아	1966.1
단편소설	宦官	신동아	1968.1
단편소설	靑史에 빛나리 -階伯의 妻	월간중앙	1968.5
장편소설	길	동아일보	1968.7.29.~1969.5.22
단편소설	흑야(黑夜)	월간문학	1969.11
장편소설	삼부녀	주간여성	1969.12.30.~1970.6.24
장편소설	유맹	한국일보	1976.1.1.~1976.10.28
장편소설	봉술랑	한국일보	1977.6.10.~1978.10.8.
육필시조	「自嘆」,「不孝罪」,「生」,「死」, 「空手去」,「送友」,「老化」, 「動物讚」,「處身」,「母國」,「淸貧」, 「자랑炳」,「標本人」,「有名病」, 「賞」,「鳥籠속새」,「弱肉强食」, 「꿈」,「世上꼴」,「天惠物」, 「有害動物」,「落鄕」,「思祖母」, 「祖母님 靈前에」,「제精神」, 「隱遁」,「돈毒」,「送年辭」, 「不公平」,「似而非」, 「仮信徒 -神父, 牧師, 僧侶들에게」, 「벗」,「이心情」,「惡質動物」,		1993.~2001.

	「사람」,「西洋흉내」,「종교 (Ⅰ)」, 「雜草人生」,「世上」,「종교(Ⅱ)」, 「聖經」,「親友」,「生의意味」,「얼」, 「反省」,「生死」,「他國살이」, 「造物主(肉食動物)」,「奉仕인간」, 「無名人」,「生死(Ⅱ)」,「戱作」, 「人生」,「虛送歲月」,「難事」, 「春夢」,「三無民族」,「有恨」, 「後悔」,「無題」,「樂園道」, 「이世上」,「送年辭(Ⅱ)」,「人生道」, 「死卽空」,「余生道」,「後悔」, 「人生공부」,「나부터」,「人間社會」		

2. 산문 및 기타

제목	수록매체	수록일
當選所感 -人間에의 背信	문예	1953.9
나의 作家修業	현대문학	1955.9
餘談	문학예술	1955.11
過分	조선일보	1956.4.2
受賞所感 -괴짜의 辯	현대문학	1956.4
生命의 欲求에서	경향신문	1956.6.28
新世代를 말하는 新進作家 座談會	현대문학	1956.7
도둑의 나라와 不親切	교통	1958.2
面書記같은 郭鶴松	현대문학	1958.5
文學과 生活	신문예	1959.4
當選所感-作家의 大願과 小願	사상계	1959.10.1
作業餘滴	한국전후문제작품집	1961.
다음번 連載小說 夫婦	동아일보	1962.6.19
後記	『夫婦』(정음사)	1962.12
作家孫昌涉氏의辯 -놀라운 讀者의 抗議	동아일보	1963.1.4
다음 連載小說『夫婦』 凌駕할 人氣作 人間教室	경향신문	1963.3.23
對談(孫昌涉<作家>-朴海璟<本社記者>) :나는왜新聞小說을쓰는가 -「夫婦」의作家孫昌涉씨는말한다	세대	1963.8
아마츄어 作家의 辯	사상계	1965.7
사족	『이성연구』	1967.3.5
人間工場 :다음 連載小說 非情한 現實教育 파헤칠 野心作	동아일보	1968.7.4
길 :다음 連載小說 시골少年에 비친 서울相 그려 -『人間工場』은 入試制全廢로 變更	동아일보	1968.7.18

제목	수록매체	수록일
小說『길』을 끝내고…	동아일보	1969.5.24
“그럴 수가…” 날림改憲… 沈痛한休日아침의 市民	동아일보	1969.9.15
별난 人生 별난 作家 孫昌涉	주간한국	1970.3.22
反逆 文學人의 虛勢 -朴泰洵씨에게의 回信	월간문학	1971.3
나의 집필 괴벽-雨景에 젖어서	월간문학	1971.9
머리말 (1972.6.)	『싸우는 아이』	1972.7
「흐르는 백성」의 哀歡 流氓	한국일보	1975.12.17
豫告없이 渡日 2년 孫昌涉과의 文學的 再會	한국일보	1975.12.17
說文學의 眞實을 찾아서	한국일보	1976.10.31
棒術娘 -마음껏 材料驅使 재미있게	한국일보	1977.6.7
歷史家의 責任	자유 63	1977.8

<Abstract>

A Study of Sense of Community as it Appears in the Fiction of Sohn Chang-Seop

Min-su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reveal and explain the relationship of Sohn Chang-seop's sense of community to his criticism of the binding principles of society and his attempt to restore human relationships, two issues which appear consistently in his work. Above all I seek to show that Sohn Chang-seop's novels are composed with a consistent sense of these problems regardless of their length or periodization, and in doing so to break free from the tendency to explain his literary qualities with the keyword "post-war literature." The emphasis currently placed on his work's relationship to post-war literature not only neglects the writing strategies contained in autobiographical fiction like *Naksojok* and "Shin-ui-hui-jak." but also fails to fully capture the change in direction of the later novels published as newspaper serials.

In chapter two I explore the roots of Sohn Chang-seop's literary composition by reconstructing his period of study in Japan and his early reading experience, which I consider to be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his sense of community. In order to do this I conduct an empirical study of the manuscript of *Ping Yao Zhuan*, the single novel that Sohn Chang-seop translated, and thereby locate him within the influence of the various anthologies of world literature that enjoyed explosive popularity in the 1920s under the direction of the Shinchosha and Kaizosha, Japanese publishing houses. Specifically the works of Jean Jacques Rousseau, including *The Confessions*,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 on the Origin and Basis of Inequality Among Men, became an important theme of his early work and resulted in the expression of his critical response to society's binding principles. In addition Sohn Chang-seop's commitment to Nietzsche's *Thus Spoke Zarathustra* served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his resistance to societal principles. Finally I sought to confirm that these two tendencies are depicted in the concepts of the state and the nation, which suppress the individual in *Naksojok*.

In chapter three I trace the differentiation of these issues as they lead out of Sohn Chang-seop's early work and into the 1960s. In doing so I am able to rethink the typical division of his novels into pure-literature short stories of the 1950s and popular novels published serially in newspapers beginning in the 1960s. To make this point more specifically I examine the editing and structure of *Representative Works of Sohn Chang-seop*, in which the author participated directly, and emphasize the fact that the short story "Shin-ui-hui-jak," published in 1961, brought the considerations of his early work to a higher level. Comparable to *Naksojok* in its autobiographical nature, "Shin-ui-hui-jak" employs the principle of confession apparent in Rousseau's *The Confessions* and constructs, through the maximization of nonsense, the possibility of subversion. In order to analyze the two works' connections and differences in detail I make reference to a newly confirmed interview and prose work entitled "The Falsity of Traitorous Writers." Here the concept of nonsense can be explained using Maurice Blanchot's principle of incompleteness, and in this context it can be stated that Sohn Chang-seop achieves a new directionality which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reason and the other. This thesis uses these observations to examine how Sohn Chag-seop fiercely draws the problem of passion into the narrative while perceiving the other through reason, how korean society is effectively criticized within this relationship, and finally how Sohn Chang-seop discovers the possibility for a new community through this process.

Chapter four analyzes the two novels *Yumaeng* and *Bongsullang*,

published as newspaper serials after Sohn Chang-seop's move to Japan in the 1970s, using the central concepts of history and community. As can be gathered from the newly confirmed prose piece "The Responsibility of the Historian," it seems that Sohn Chang-seop attained teaching qualifications in geography and history during his period of study in Japan. By examining Sohn Chang-seop's intermittent publishing of short historical essays during the 1960s in addition to these newly discovered biological details, I argue Sohn Chang-seop did not conceive the themes of these two novels arbitrarily. Furthermore I demonstrate how Sohn Chang-seop's attempt to restore human relationships and his criticisms of society's binding principles are depicted in *Yumaeng* and *Bongsullang*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he considers the novel itself a form of writing that organizes history.

Through this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community restructuring was a specific and consistent concern in Sohn Chang-seop's writing. Possessing a lived experience as a foreign resident at a young age, Sohn Chang-seop accepted Rousseau's thesis that need is not a factor which brings people together and resisted social contradictions through his writing on the one hand, and forged a new sense of community that would be possible outside the binding principles of society on the other. Yet even within his attempt to tear down conventional codes of ethics, he spent great effort i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in his writing, and thus his novels and short stori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uggest the possibility of not only an ethical community but also one of unrealized potential.

Keywords: Sohn Chang-seop, Community, Rousseau, The Confessions, Nietzsche, Nation, State, Nonsense, Auto-biographical Novel, Catharsis Literature, The Opposite Sex, the Other, Ethnic Koreans in Japan, History

Student Number: 2015-20034